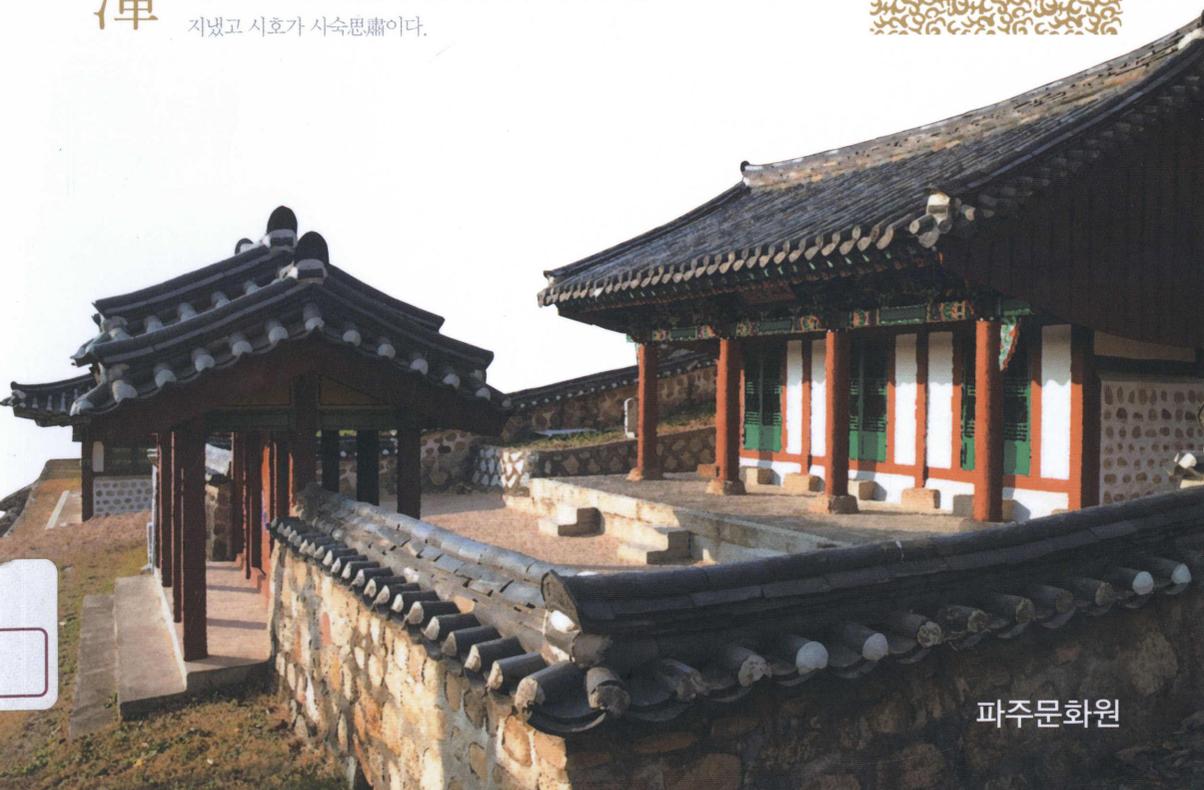


牛溪成渾

선생은 휘諱가 혼渾이고 자가 호원浩原이며 창녕昌寧인
이니, 스스로 묵암默庵이라 호를 지었다. 파산坡山의 우
계牛溪에 거주했으므로 배우는 자들이 우계 선생이라
칭하였다. 고려 때에 증윤中尹을 지낸 휘 인보仁輔의 후
손이다. 6대조 휘 석인石因은 예조판서였고, 5대조 휘
억매은 좌찬성이었고, 고조 휘 득식得識은 좌윤左尹이
었다. 증조 휘 충달忠達은 현령으로 판서에 추증되었으
며, 조고 휘 세순世純은 문과에 급제하여 지중추부사를
지냈고 시호가 사숙思肅이다.

우계성호학과 坡山의 학자들



성혼成渾

1535~1598년,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가. 자는 호원浩原, 호는 우계牛溪 또는 묵암默庵,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1551년(명종 6) 생원·진사의 초시에 모두 합격했으나 복시에 응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했다. 선조 대에 6년간 이이와 사단칠정에 대한 논쟁을 벌여 유학계의 큰 화제가 되었다. 선조 초 이조참판에 특배되고 임진왜란 중에는 우참판에 오르고 이후 좌참판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영의정 유성룡과 함께 일본과의 화의를 주장하다 선조의 노여움을 사 고향인 파주로 돌아왔다. 죽은 뒤 기축옥사와 관련하여 삭탈관직되었다가 인조 대에 복관되어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성수침成守琛

1493~1564년,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창녕. 자는 중옥仲玉, 호는 청송聽松·죽우당竹雨堂 등이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1519년(중종 14)에 현량과에 천거되었으나 기묘사화가 일어나 벼슬을 단념하고 청송이라는 편액을 내걸고 두문불출하였다. 이후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경서 공부에 전념했다. 그의 문하에서 아들 성혼을 비롯한 많은 석학들이 배출되었다.

성수증成守琮

1495~1533년,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창녕. 자는 숙옥叔玉, 시호는 절효節孝이며, 성수침의 아우이다. 1519년(중종 14)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했으나 기묘사화가 일어나면서 과방에서 삭제되었다. 그뒤 다시 과거에 응시하여 초시에 여러 번 합격했으나 벼슬에 뜻을 버리고 청빈하게 살았다. 1566년 아들 성이成耳가 삭방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명종의 특명으로 흥패를 받고 방목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백인걸白仁傑

1497~1579년, 조선 중기의 학자·문신. 본관은 수원. 자는 사위士偉, 호는 휴암休菴, 시호는 충숙忠肅, 문경文敬이다. 중종 대에 문과에 급제한 뒤 대사간, 대사헌 등 여러 관직을 거쳤다. 양주목사로 있을 때는 공납의 폐단을 개혁하는 등 치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다. 선조 대에 조정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당파를 짓는 폐단에 대해 논하고 군비강화를 강조했으며, 많은 시간을 파주에 퇴거해 있었다.

파주문화원
향토사료집



우계성훈과

坡山의 학자들



일러두기

- 이 책은 우계 성혼 선생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엮고, 현 파산서원에 배향된 인물들의 관련 자료를 요약 발췌해 엮었다.
- 인물과 관련된 자료의 오역이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 원문을 제한적으로 가공했다.
- 문헌 자료는 원문을 국역한 고전번역원의 자료를 다수 활용했다.
- 인물 관련 사진 자료는 책의 앞부분에 화보로 묶어 정리했다.
- 이 책을 서술하는 데 참고한 문헌은 맨 뒤의 「참고문헌」에 일괄 표기했다.



우계 성혼 선생 영정



성훈 선생 묘역 입구



성훈 선생 묘



성혼 선생 신도비



성혼 선생 묘의 문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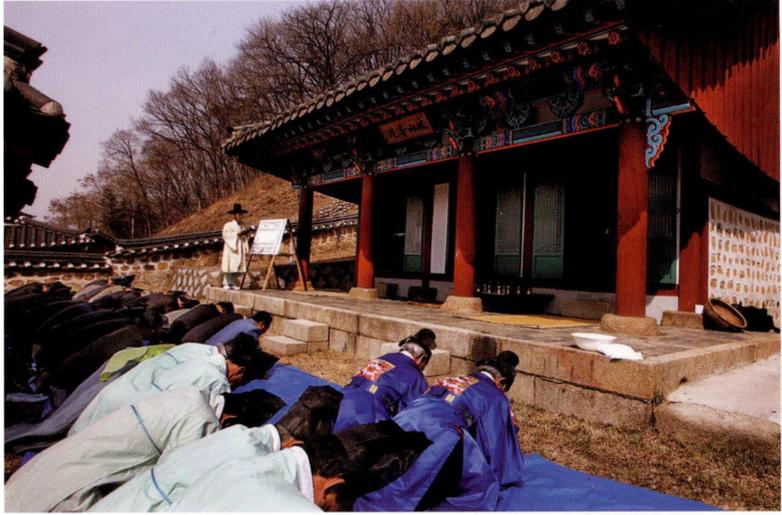
성혼 선생 묘비



파산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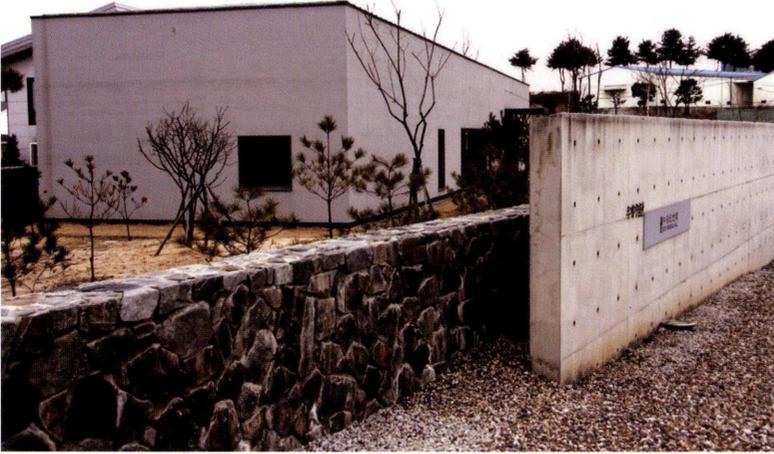
파산서원 사당



파산서원 제향



파산서원 제향



우계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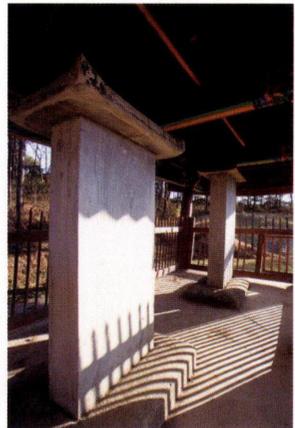
우계기념관 전시실



청송 성수침 선생 묘



청송당유지 각자



성수침 선생 묘갈비



물계서원(제공: 장녕군청)



절효 성수종 선생 묘역



성수종 선생의 묘갈비



성수종 선생 묘비



휴암 백인걸 선생 영정



백인걸 선생 묘



백인걸 선생 신도비



백인걸 선생 유허비



용주서원



용주서원 정륵당



용주서원 제향

文鄉 波州의 큰 즐거,
坡山의 學者들을 再照明하다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겨레의 전통으로 계승되어야 하듯이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는 그 지역의 정체성으로 계승되어야 마땅합니다. 파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선현이 배출된 ‘문향文鄉’입니다. 그러나 ‘문향’의 구체적 의미와 계승하려는 노력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표적 학자로 손꼽히는 우계 성혼 선생은 율곡 이이 선생과 함께 파주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 안에서 선생의 사상과 학문에 대한 고찰이 미진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파산坡山(파주의 옛 이름)을 근거로 학문적 토양을 다져온 학자들이 있으니, 청송 성수침, 절효 성수중, 휴암 백인걸 선생은 ‘파산학’이라는 새로운 지역적 학풍을 대동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날까지 파산서원에 배향되어 파주 유림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계 성혼 선생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성리학자이며 율곡 선생과 함께 문묘에 배향된 인물입니다. 동향인 율곡 선생과 교우관계를 맺고 ‘사단 칠정’이라는 학문적 논쟁을 벌여 조선 성리학의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계 선생의 부친인 청송 선생과 휴암 선생 그리고 절효 선생 또한 파산을 근거로 한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특히 율곡 선생과 우계 선생이 스승으로 모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들의 학맥을 ‘파산학파’라고 이미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주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우계 성혼과 파산의 학자들’은 조선 중기 파산을 근거로 새로운 학풍을 일으킨 네 분의 삶을 재조명해보고 관련 문헌 기록을 발췌해 한 권의 자료집으로 엮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앞으로 파산학을 세상에 알리고 연구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파산학을 세상에 알리는 일은 파주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학문적 사상과 철학을 재해석하고 계승하는 일은 문향 파주를 견고히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을 통해 우계 성훈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파주를 근거로 형성된 파산학을 연구하는 작업이 한 걸음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2월

파주문화원장 우 관 제

차례

발간사

文鄉 波州의 큰 줄기, 坡山의 學者들을 再照明하다 ————— 17

1부 우제 성혼

세계와 연보	—————	25
생애	—————	40
문헌 자료	—————	62
작품 세계	—————	146
관련 유적	—————	181

2부 파산의 학자들

청승 성수침

생애	—————	189
문헌 자료	—————	191
관련 유적	—————	205

필효 성수종

생애	210
문헌 자료	212
관련 유적	231

휴암 백인걸

생애	233
문헌 자료	237
관련 유적	294

참고문헌	297
------	-----



1부

우계 성혼

牛溪 成渾

여 백

세계와 연보



세계世系

- 1세 **인보仁輔** 성은 성씨成氏, 관향은 창녕昌寧, 관직은 고려시대의 호장 戶長 중윤中尹이었다.
- 2세 **송국松國** 관직은 시중侍中이며 묘소는 창녕 우두산牛頭山에 있다.
- 3세 **공필公弼** 관직은 봉익대부판도판서奉翊大夫版圖判書에 추봉追封되었다.
- 4세 **군미君美** 관직은 봉상대부판도총랑奉常大夫版圖摠郎이었다.
- 5세 **여완汝完** 초명은 한광漢匡, 이헌怡軒이라 하였다. 1276년에 등제하여 관직은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에 이르렀는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1397년 세상을 떠났다. 향년 89세이고 묘소는 포천시 정방산正芳山 밑 계류촌溪流村 묘덕암동妙德庵洞에 있다. 세 아들이 모두 등제하였는데, 맏이는 석린石璘, 관

직은 영의정에 이르고 시호는 문경文景이다. 둘째는 석용
石琮, 관직은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 시호는 문숙文肅이
다. 셋째는 석인石因이다.

6세 석인石因 자는 자유子由, 호는 상곡桑谷, 관직은 예조판서에 이르고
시호는 정평靖平이다.

7세 억抑 관직은 좌찬성左贊成이며 증좌의정贈左議政이다.

8세 득식得識 관직은 한성부윤漢城府尹이다.

9세 충달忠達 관직은 김포현령金浦縣令으로 증이조판서贈吏曹判書이다.

10세 세순世純 자는 태순太純, 관직은 대사헌大司憲에 이르고 시호는 사
숙思肅이다. 울곡栗谷 이이李珣 선생이 묘비명墓碑銘을 지
었으며, 묘소는 파주 향양리에 있다.

11세 수근守瑾 관직은 참봉參奉이다.

수침守琛 자는 중옥仲玉, 호는 청송聽松, 유일遺逸(과거를 거치지 않고
학덕으로 높은 관직에 임명될 수 있는 선비)로 추천되어 적성현
감을 제수받았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564년 정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 72세이다. 특명으로 집의執義를 증직하
고 나중에 또 판서判書를 증직하였다. 묘소는 파주 향양리
에 있는데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이 묘갈명墓碣銘을 짓고
기대승奇大升이 묘지명을, 울곡 선생이 행장行狀을 지었다.

수중守琮 자는 숙옥叔玉, 정암靜庵 조趙 선생 문하에서 수업하여 일
찍이 급제하였으나 사화士禍로 인해 제명되었다. 죽은 후

에 과첩科牒을 되돌려 주었는데 김안국金安國이 공의 묘
소에 쓰기를 절효節孝라 하였다.

수영守瑛 관직은 부정副正이다.

12세 혼渾 곧 선생이다.

13세 문준文濬 자는 중심仲深, 호는 창랑滄浪이다. 학행學行으로 추천되
어 사포司圃를 제수받았고 관직은 영동현감永同縣監에 이
르렀다.

14세 기機 자는 자구子久, 관직은 사재감司宰監 첨정僉正이다.

익척 자는 자천子薦, 관직은 금대사禁大司 별좌別坐인데 절효공
손자 문개文漑에게 출계出系하였다.

중樓 자는 자교子喬, 관직은 선공감繕工監 첨정이다.

15세 희위熙胃 자는 사익士翼, 호는 구전求全, 상의원尙衣院 첨정僉正이다.

희직熙績 관직은 현령縣令이다.

희집熙緝 출계하였다.

희명熙命 자는 사혁士赫 증승정원좌승지贈承政院左承旨이다.

연보年譜

1535년 1세 중종 30년 6월 25일 서울 순화방順和坊 본가에서 출생하다.

1544년 10세 9월에 부친인 청송 선생이 파산坡山의 우계牛溪에 복거卜居

하였는데, 선생은 가정에서 시학侍學하였다. 청송은 정암 조 선생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기묘사화 이후로는 문을 닫고 들어앉아 일체 출입하지 않았다. 백악산白岳山 송림 속에 서실을 짓고 ‘聽松’이라는 편액을 써 붙이다. 이때 시국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드디어 파산으로 돌아갔다. 이때 선생은 10세 나이로 학업이 크게 진보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1549년 15세 선생은 경사經史를 널리 통하고 문사文辭도 훌륭하였으며, 학식과 행실도 남에게 모범이 되다.

1551년 17세 7월에 부인 고령 신씨高靈申氏를 순천군順天郡에서 맞이하다.

1553년 19세 아들 문영文泳이 태어나다.

1554년 20세 율곡 이이와 더불어 도의교道義交를 맺다.

1555년 21세 큰 병을 앓은 후부터는 비위脾胃가 허해져 그만 고질이 되다.

1559년 25세 아들 문준文濬이 태어나다.

1561년 27세 12월에 어머니 과평 윤씨坡平尹氏의 상喪을 당하다.

1563년 29세 2월에 외제外除한 다음 심상心喪으로 계시다. 가을에는 부친의 병환이 위독하여 다리의 살을 갈라 약에 타서 바치다.

1564년 30세 정월에 부친 청송 선생이 세상을 떠나다.

1566년 32세 3월에 삼년상을 마치고 옛 집으로 돌아오다.

1567년 33세 부친 청송의 묘지墓誌를 고봉高峯 기대승에게 지어달라고

청하다.

1568년 34세 2월에 전생서典牲署 참봉에 제수되다. 5월에 율곡 선생과 더불어 중中이니 지선至善이니 하는 학설을 논하다.

1569년 35세 8월에 목청전穆淸殿 참봉을 제수받다. 12월에 장원서掌苑署 장원掌苑을 제수받다. 청송묘갈聽松墓碣을 퇴계 선생에게 지어주기를 요청하다.

1570년 36세 6월에 적성현감에 제수되다.

1571년 37세 봄에 「서실의書室儀」를 지어 제생에게 보여준다. 또 주자서朱子書에 말씀한 「위학지방爲學之方」을 초抄하여 제생에게 보여준다. 9월 천마산天磨山 놀이를 가서 서화담徐花潭이 살던 옛 집을 찾아보다.

1572년 38세 여름 율곡 선생과 더불어 사단四端, 칠정七情, 이기理氣의 학설을 변론 하다.

1573년 39세 2월 공조좌랑工曹佐郎, 7월에는 장원掌苑이 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다. 12월에는 사헌부 지평持平을 제수받다.

1574년 40세 정월 본주本州에 장계를 올려 통례원通禮院 인의리儀를 그 만두었는데, 또 공조좌랑으로 옮겨졌으나 부임하지 않다. 또 지평을 제수받고 상소하여 사면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아 또 사직소를 올리다. 2월에 전생서 주부主簿를 제수받았는데 또 유지를 내려 날씨가 따뜻해지면 올라오라 하였으나 상소하여 사면하다. 3월 특명으로 공조좌랑을 제수시켰으

나 그만두려고 상소하니 어서御書로 비답批答을 내리어 윤택하지 않다.

1575년 41세 2월 설경헌薛敬軒의 「독서록讀書錄」 끝에 발문을 쓰다. 6월 지평을 제수받다. 소명을 받고 서울까지 들어와서 병으로 사직소를 올리고 그만두었는데 임금의 특명으로 어의를 보내어 진찰하고 약을 보내주도록 하다. 7월 공조정랑工曹正郎이 되고, 8월에는 지평으로 옮겼는데 병으로 그만두었다가 다시 공조정랑이 되다. 9월에는 궐하에서 사은한 다음 사직소를 올리고 시골로 돌아왔는데, 12월에 비로소 그만두도록 하다.

1576년 42세 10월 지평을 제수받고 사직소를 올렸는데 잇달아 인의키儀되다.

1577년 43세 4월 송익필宋翼弼의 편지에 답하다. 10월 편지를 써서 최영경崔永慶과 정인홍鄭仁弘에게 부치다.

1578년 44세 5월 지평을 제수받고 상소하여 그만두었는데 또 조지서造紙署 사지司紙가 되다. 8월 다시 지평이 되었으나 그만두고 다시 사지가 되다. 11월 또 지평을 제수받고 사직소를 올리니 그만두도록 하고 예빈시禮賓寺 판관判官을 제수시키다.

1579년 45세 2월 지평을 제수받고 사직소를 올렸는데 또 종묘서영宗廟巸飭을 제수시키다. 3월 또 지평을 제수받고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택하지 않다. 4월 지평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특

명으로 장흥고長興庫 주부主簿를 제수시키고 소명을 내리다. 5월 아픔을 참고 서울로 올라가다가 도중에 병이 심해져 사직소를 올려 그만두려 하였으나, 임금이 잘 조섭한 후에 천천히 올라오라고 하다. 7월 지평이 되었으나 상소하여 그만두었는데, 또 광흥창廣興倉 주부를 제수하고 소명을 내리므로 봉사封事를 올려 종선從善과 전학典學에 대한 방법을 개진하다. 8월 전생서 주부가 되다. 성대기成大器 부고를 받고 통곡하다.

1580년 46세 7월 「소학집주小學集註」의 발문을 짓다. 8월 사헌부 장령을 제수받았으나 병으로 그만두다. 또 재차 소명이 있어 병을 억지로 참고 집을 떠났으나 중도에서 병이 심해져 더 나아갈 수 없어 그만두었는데, 장악원掌樂院 첨정을 제수시키다. 12월 장령을 제수받고 병으로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휴하지 않고 가마를 타고 올라오라고 하므로 또 진정소를 올리기까지 하였으나 역시 윤휴하지 않다.

1581년 47세 정월 장령을 그만두고 종묘서영이 되어 서울로 돌아갔으나 병으로 그만두다. 2월 대궐로 나아가 진정소를 올리고 그만두려 하였으나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으로 불러 사대賜對하게 하다. 공조정랑을 제수받았으나 병으로 그만두다. 5월 다시 입대入對하라는 명이 내렸으나 역시 병으로 입궐하지 못하다. 또 호조에 명하여 쌀과 콩을 내려주도록 하였

는데 두 차례 상소하여 사양하다. 또 세 차례나 사직소를 올리고 시골로 돌아가려 했으나 윤택하지 않다. 6월에는 임금이 의원을 시켜 약을 지어 보낸다. 전설사典設司 수수를 제수받다. 9월에는 다섯 차례나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택하지 않다. 또 충무위忠武衛 사직司直으로 옮겨졌는데 10월에 입대한 후 시골로 돌아가기를 거듭 간청하다. 11월에는 여섯 번이나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택하지 않고 겨울을 날 신탄薪炭을 내려주라고 명하다. 용양위龍驤衛 상호군上護軍에 승진되었는데 사직소를 올려 시골로 돌아가기를 거듭 간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다.

1582년 48세 2월에 사헌부 지평을 제수받았고, 3월에는 두 차례 소명을 받았으나 또 사직소를 올려 그만두다. 잇달아 사옹원司饔院 정표를 제수받았으나 병으로 그만두다. 5월에 사옹원 정으로 소명받고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택하지 않다. 어사御賜한 『농사직설農事直說』 끝에다 발문을 적다. 9월에 또 사옹원 정을 제수받았다가 사재감司宰監 정으로 옮겨졌으나 병으로 그만두다.

1583년 49세 정월에 집의執義를 제수받고 2월에 그만두다. 3월에는 특지特旨로 통정대부 병조참지兵曹參知를 제수시키다. 4월에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택하지 않다. 5월에 소명을 받고 서울로 들어갔으나 병이 심해서 사은하지 못한 채 사직소를

올렸는데 참지를 그만두고 호군護軍이 되다. 계인일癸卯日에 대궐로 나아가 사직소를 올렸는데 옮겨서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제주시키고 은대銀帶를 하사하다. 7월에 상소하여 삼사三司의 죄를 논박하고 율곡 선생을 신구伸救한 다음 시골로 돌아가기를 간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무술일戊戌日에 양사兩司의 비방을 받고 파산으로 돌아가다. 9월에는 특명으로 이조참의를 제주시키고 빨리 올라오라는 전교를 내리다. 10월에 또 사직소를 올리다. 거듭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고 빨리 올라오라는 전지를 내리다. 11월에는 특명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제주시켰는데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다.

1584년 50세 정월에는 율곡 선생의 죽음을 애통해하다. 2월에는 을해소乙骸疏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4월에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제주시키다. 얼마 안 되어 또 이조참판을 제수받았으나 사직소를 올리고 그만두었는데, 다시 동지중추부사가 되다. 6월에는 상소하여 시골로 돌아가 분황焚黃하려 하였으나 임금의 가을을 기다려 내려가도록 하다. 7월에 파산으로 돌아오다. 8월에는 사직소를 올려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9월에는 불러들이는 유지를 내리므로 소를 올려 그만두려고 하다. 11월에는 장계를 올려 사직하려 하였으나 겸대兼帶만 그만두게 하고 병을 치

료한 후 올라오게 하다. 12월에는 우두머리 아전에게 명하여 존문存問하게 하고 식물食物도 양급量給하도록 하다.

1585년 51세 정월에 상소하여 존문한 명을 사례하다. 3월에는 울곡 묘소에 가서 성묘하다. 5월에 사직소를 올리고 그만두다. 7월에는 동지중추부사를 제수받고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택하지 않다. 9월에는 양사의 지탄을 받았는데 이름이 천부天府에 적혀 있었다. 9월에 두 번째 상소하여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다.

1587년 53세 2월에 조여식趙汝式 헌憲에게 편지를 부치다. 7월에 자지문自誌文을 짓다. 8월에 「감회이절感懷二絶」을 써서 오충겸吳充謙과 황신黃愼 두 선비에게 보이다.

1589년 55세 7월 조여식趙汝式에게 편지를 부치다. 박사암朴思庵의 죽음을 애통해하다. 8월에는 석담사石潭祠에 제향할 일을 논의하다. 11월에 이조참판을 제수받고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택하지 않다. 12월에 병으로 사직소를 올리니 그만두도록 하고 동지중추부사를 제수하다.

1590년 56세 봄에는 임금이 대신에게 명하여 선생을 사유師儒로 들어오도록 상의하라고 하였으나 결국 그대로 되지 않다. 4월에 봉사를 올려 양민養民·보방保邦·율빈律貧·진현進賢 등에 대한 방법을 개진하였는데, 여러 천언千言이나 되었다. 5월에 대궐로 나아가 사은한 다음 을해소를 올렸으나 윤택

하지 않다. 9월에 정좌상鄭左相 철澈에게 편지하다. 11월에는 박순경朴舜卿 여룡汝龍의 편지에 답하다. 첨지중추부사 僉知中樞府事를 제수받다.

1591년 57세 봄에 『을곡선생문집粟谷先生文集』을 엮어 정리하다. 4월에는 김장생金長生과 더불어 거취去就에 대한 의리를 상의하다. 7월에는 정철을 적소謫所로 전송하다.

1592년 58세 4월 대열大閱에 불참한 이유로 상소하여 자핵自劾하다. 임인壬寅일에 왜적이 국경에 침입했는데, 기미己未일에 대가 大駕가 피난하다. 5월에 선생이 병화를 피해 산골로 들어갔다. 7월 세자가 이천伊川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을 내려 불렀으나 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위학지도爲學之道와 시무時務에 대한 15조條를 논하다. 기묘己卯일에 세자의 영을 받고 김지金漬의 의병義兵이 주둔한 군중軍中에 이르렀다. 갑신甲申일에 세자가 또 영을 내려 부르므로 떠나서 안협安峽에 이르러 더 나아가지 못하다. 8월 세자의 영을 받고 개성유수 開城留守 이정형李廷馨의 군중으로 나아가다. 정철에게 편지를 부치다. 9월에는 세자에게 검찰사檢察使를 제수받고 이정형에게 양보하다. 세자가 또 불러들이는 영이 있어서 임오壬午일에 바로 군중을 떠나 성천成川에 있는 분조分朝로 향하다. 10월 비로소 성천에 이르러 세자를 찾아뵙고 곧 대조大朝로 들어가도록 간청하다. 신해辛亥일에 성천을 떠나

의주에 계신 행조行朝로 향하다. 11월에 행차가 순천順川에 이르렀는데 나중 신후身後의 일을 글로 적어 윤생尹甥에게 부치다. 의주에 계신 행조로 들어가 계사를 올리고 대죄하다. 우참찬右參贊을 그만두려고 계사를 네 번이나 올렸는데 끝내 윤택하지 않으므로 이에 사은하다. 12월에는 시무時務에 알맞은 아홉 조항을 적어 올린다. 사헌부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그만두었는데 또 우참찬이 되다.

1593년 59세 정월에 대사헌을 제수받고 병으로 그만두었는데 도로 우참찬이 되다. 계유癸酉일에 대가가 정주定州로 돌아오셨으나 병으로 따라가지 못하다. 3월에는 대가가 영유永柔로 옮겨오나 병이 들어 수행하지 못하다. 임신壬申일에 영유에 이르러 대죄계待罪啓를 올린다. 정철에게 편지를 부치다. 5월에 대사헌을 제수받고 대궐로 나아가 계사를 올려 그만두게 되었는데 또 지중추부사가 되다. 경신庚申일에는 명을 받고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을 봉심奉審하다. 7월에는 도로 재령載寧으로 왔는데 병이 심해서 여러 날 머물러 있게 되다. 9월에는 해주 행조에 가서 복명한 다음 연로沿路의 보고 들은 바를 아뢰다. 을해소를 올렸으나 윤택하지 않다. 대가가 서울로 되돌아오게 되었는데 선생은 병으로 수가隨駕할 수 없어 머물러 있다가 중전中殿을 호종하다. 10월에는 석담정사石潭精舍에서 우거寓居하다. 12월에 정철의 부고訃告

를 받고 통곡하다.

1594년 60세 정월에 이첨지李僉知 해수海壽에게 편지를 부치다. 2월 계유癸酉일에는 석담을 떠나다. 3월 서울로 들어와 대궐로 나아가 상소하고 대죄待罪하다. 4월에 자핵소自劾疏를 올린다. 비국당상備局堂上을 사면하려 했으나 윤택하지 않다. 5월에는 또 좌참찬을 제수받다. 비국당상에게 유지를 내려 각기 계책을 적어 바치도록 했는데 시무에 알맞은 14조를 지어 올린다. 계묘癸卯일에 비국에서 인대인對했는데, 진본秦本의 내용을 의논하다. 또 상소하여 비국당상과 좌참찬을 그만두려고 했으나 윤택하지 않다. 우참찬으로 옮겨지자 또 사직소를 올린다. 7월에 또 자핵소를 올린다. 상소하여 병으로 그만두려 하자 윤택하다. 8월 정미丁未일에는 용산龍山으로 나가다. 또 을해소를 올렸다. 9월에는 병으로 군직軍職을 그만두고 임오일에 배를 세내어 타고 서강西江에서 떠나다. 갑진甲辰일에는 연안延安 각산角山에 이르러 우거하다.

1595년 61세 2월에 각산에서 파산으로 돌아오고, 6월에 부호군副護軍을 제수받다.

1596년 62세 여름에는 이참의李參議 해수海壽에게 편지를 부치다. 10월에는 황시숙黃思叔 신愼에 답한 편지를 부치다.

1597년 63세 5월에는 조상 제사를 받들 전택田宅과 노비는 대대로 종가

에 전해주도록 하라는 유서를 지어 아들 문준文濬에게 부
치다. 8월에는 윤좌상尹左相 두수斗壽의 편지에 답하다.

1598년 64세 정월에는 옛 병이 더욱 심해지다. 6월 기미己未일에 파산 시
냇가 오막살이집에서 눈을 감다. 8월 임신壬申일에 파주坡州
향양리向陽里 묘좌卯坐 유향西向으로 된 산에 장사지냈는데,
바로 부친인 청송 선생 묘소 뒤였다. 부음訃音이 전해지자
임금이 예관禮官을 시켜 치제致祭하도록 하다.

사후

1602년 2월에 소인小人들이 헐뜨으면서 관작官爵을 추탈追奪당하다.

1608년 2월 광해군光海君이 즉위하다.

1610년 9월에 관학유생館學儒生 김육金瑨 등, 10월에는 파주 유생 김탕
金盪 등과 전현감前縣監 한교韓嶠 등이 서로 잇달아 상소하여 신
원伸冤하도록 하다.

1613년 인조 원년 3월에 관작을 되돌려 주라고 명하다.

1616년 황산서원黃山書院이 창건되어 신판神板을 봉안奉安하고 석채례
釋菜禮를 행하다.

1628년 10월 파산서원坡山書院이 이룩되었는데 신판을 봉안하고 석채례
를 행하다.

1629년 4월에 증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좌의정겸영경연감춘추관사세
자사_{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世子師傅}
를 추증하다.

1633년 시호를 내렸는데 문간_{文簡}이라 하다.

1635년 5월에 관학유생 송시영_{宋時瑩} 등이 상소하여 선생과 율곡 선생
을 문묘_{文廟}에 종사_{從祀}하도록 간청하다.

1650년 효종 원년 파산서원에 사액하고 예관을 시켜 치제하도록 하다.

1651년 소현서원_{紹賢書院}에 배향하다.

생애



드러내지 않아도 도드라지는 선비의 삶

선생은 휘諱가 혼渾이고 자가 호원浩原이며 창녕인이니, 스스로 묵암默庵이라 호를 지었다. 파산의 우계에 거주했으므로 배우는 자들이 우계 선생이라 칭하였다. 고려 때에 증윤을 지낸 휘 인보의 후손이다. 6대조 휘 석인은 예조판서였고, 5대조 휘 역은 좌찬성이었고, 고조 휘 득식은 좌윤이었다. 증조 휘 충달은 현령으로 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조고 휘 세순은 문과에 급제하여 지중추부사를 지냈고 시호가 사숙이다. 선고先考 휘 수침은 세상에서 청송 선생이라 일컫는데, 젊어서 조정암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은둔하여 뜻을 지키며 도학道學을 강명하니, 명종이 융숭하게 예우하고 여러 번 관직을 내려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별세하자 사헌부 집의에 추증하였다. 선비先妣는 파평 윤씨로 판관判官 사원士元의 따님이며, 가정嘉靖 을미년 6월 25일 선생을 한성의 순화방에서 낳았다.

효자 성혼

선생은 10세에 청송 선생을 따라 파산의 별업別業으로 왔는데, 12, 13세에 문사文思가 날로 진전되어 책을 대하면 굳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남김 없이 통달하였다. 17세에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에 모두 급제하였으나 병환이 있어 복시覆試에 응시하지 못하였는데, 이로부터 과거 공부를 단념하고 오로지 학문에 힘썼다. 헌납獻納 백인걸白仁傑이 정사를 말하다가 죄를 얻고는 파산의 집에 거처하였는데, 선생은 수업할 것을 청하였다. 약관 시절 경사에 널리 통달하고 높은 학식과 뛰어난 행실로 한 시대의 동류同類들에게 크게 추앙과 복종을 받았다.

계해년(1563, 명종 18)에 청송 선생이 품병을 앓아 위독하자, 선생은 넓적다리 살을 베어 약에 섞어서 올리니 얼마 후 병환이 덜하였다. 그러나 반년 만에 다시 병이 발작하니, 또다시 넓적다리의 살을 베어 약에 섞어서 올렸다. 갑자년(1564, 명종 19) 1월 부친이 끝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별세하자, 3년 동안 여묘廬墓하였다.

선조 초년(1568)에 경기감사가 선생이 학문에 침잠沈潛하고 효행이 드높다고 조정에 아뢰어 전생서典牲署와 목청전穆淸殿의 참봉에 제수되었으며, 이조에서는 학문과 행실이 뛰어나다고 천거하여 장원서 장원掌苑署掌苑에 올려 제수하였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경오년(1570, 선조 3)에 적성현감에 제수되자 사은숙배하고 즉시 파산으로 돌아오니, 원근의 학도들이 모여들어 문하에 가득하였다. 선생은 간곡히 이들을 가르쳤으

며, 서실의書室儀를 짓고 서재書齋의 규칙을 세웠으며, 손수 『주자어록朱子語錄』 중에 학문하는 방법을 초하여 책자 하나를 만들어서 배우는 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율곡 선생과 사단칠정의 이기설을 논란하여 긴 편지를 주고받아 옛사람들이 미처 발명하지 못한 것을 많이 발명하였다.

위에서 덜어 아래에 보태주소서

계유년(1573, 선조 6)에 공조좌랑에 제수되고 얼마 후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으며, 갑술년(1574, 선조 7)에 공조정랑에서 다시 지평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병환 때문에 사양하였다. 전생서 주부로 부르고 날씨가 따뜻해지기를 기다려 서울로 올라오라는 분부가 있었다. 그리하여 갑술년부터 기묘년(1579, 선조 12)까지 지평에 제수된 것이 열두 번이었고 공조정랑에 제수된 것이 네 번이었으며, 조지서 사지와 종묘서영, 예빈시 판관, 광흥창 주부와 장흥창 주부에 제수된 것이 한두 번이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거나 사은숙배한 다음 체직되었다. 경진년(1580)에 또다시 장령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병환을 이유로 상소문을 올리니, 상은 말과 가마를 타고 올라오라고 분부하였다.

율곡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성모成某에게 가하신 은혜와 예우는 근래에 드문 것입니다.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성상의 뜻이 그 사람을 등용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 보고 마시려는 것입니까?” 하니, 상

이 이르기를, “성모의 어짊을 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으나 다만 그 재주가 어떠한지 모르겠다” 하였다. 율곡이 아뢰기를, “재주가 또한 똑같지 아니하여 홀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자가 있고 선善을 좋아하여 여러 사람의 재주를 쓸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성모의 재주는 홀로 경세제민의 책임을 맡을 수 있다고 이른다면 지나치지만, 사람이 됨이 선을 좋아하니 선을 좋아하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도 충분합니다. 이 어찌 쓸 만한 재주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몸에 고질병이 있어서 반드시 사무가 많은 부서는 맡을 수가 없으니, 한가한 부서에 두어 때로 들어와 경연經筵에 입시하게 한다면 반드시 성상을 보필하는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신사년(1581) 종묘서영에 제수되었는데, 부르는 명이 여러 번 내렸으므로 병을 무릅쓰고 서울로 들어갔다. 상은 의원을 보내어 문병하고 약을 하사한 다음 사정전에서 인견引見하였는데, 첫 번째로 대도大道의 요체를 묻자, 선생은 대답하기를, “군주가 반드시 몸과 마음을 수습하고 정신을 보전하여 전일하고 안정되게 하여 뜻과 기운을 항상 맑게 하면 본원本源인 마음이 맑아져서 의리義理가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고금의 치란治亂에 대하여 묻자 선생은 대답하기를, “나라가 다스려지고 혼란해짐은 일정한 형체가 없어서 오직 군주의 한 마음에 달려 있으니, 반드시 한 세상의 현인과 군자를 얻어 재상으로 삼고 인재를 널리 수합하여 여러 치위에 둔 뒤에야 훌륭한 정치와 교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내가 즉위한 이래로 등용한 인물 중에 소인이 있는

가?” 하고 묻자 선생은 대답하기를, “조정에 몸을 용납하고 지위를 지키기 위해 성상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만 많고 강직하고 굳세어 임금을 올바른 도리로 인도하는 신하가 적으니, 어찌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백성들의 곤궁함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는가?” 하고 묻자 선생은 대답하기를,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하고 위에서 덜어 아래에 보태준다면 백성들의 부역이 반드시 가벼워져서 은혜가 민심을 결속시켜 하늘에 영원한 명을 기원하는 근본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선생은 녹봉을 받지 않았는데, 모시는 신하 중에 이것을 말하는 자가 있었다. 이에 상은 쌀을 실어 보내주게 하였다. 선생이 상소문을 올려 사양하자 상은 비답批答하기를, “구휼해주면 받는 것은 옛날의 도리이다” 하셨다. 선생은 부득이 받아서 친척과 이웃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만 자에 달하는 봉사소封事疏를 올려 전에 등대했을 때에 아뢴 뜻을 펴서 극언하였다. 승정원에서 이 상소문을 대신들에게 보일 것을 청하자 상은 비답하기를, “상소문 가운데에 학문과 시폐時弊에 대한 것은 내마땅히 자세히 살펴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조정을 비판한 것이 너무 지나치고 또 나라의 제도를 모두 변경하려 하였으니, 이는 또한 시행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대개 선생의 뜻은 조종祖宗의 훌륭한 법이 연산군燕山君에 이르러 모두 폐지되었는데, 아직 완전히 없어지거나 개혁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예를 들면 진상進上과 공물貢物 따위였다. 그리하여 애당초 옛 법을 모두 변경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처럼 백성들에게 폐해를 입히는 정사를 제거하여 선왕先王이 만들어놓은

법을 따르려고 한 것일 뿐이었다. 옥당玉堂에서 차지筭子를 올려 대신들에게 이 상소문을 보일 것을 청하자, 상은 마침내 이를 허락하였다. 삼공三公이 선생의 말씀을 가납嘉納하고 채용採用할 것을 청하였으며, 경연을 겸직하여 고문顧問에 대비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연을 겸직하는 일은 새 규정을 만들 수가 없으니 마땅히 다시 만나보겠다” 하고는 체직하여 공조정랑에 제수하였다. 선생은 연달아 글을 올려 위급함을 구제해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였다.

수개월 동안 병가病暇를 내자 상은 의원을 보내어 약을 하사하였으며, 풍저창수豐儲倉守를 제수하고 편전便殿에서 인견하도록 명하였다. 선생은 나아가 아뢰기를, “하늘의 운행이 굳세어 한순간도 간단間斷이 없기 때문에 만물을 발육하여 조화造化의 공功을 이루는 것입니다. 군주는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니, 만일 한순간이라도 간단이 있으면 곧 천지의 조화와 서로 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연에서 글줄을 외고 글자의 뜻을 찾아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제왕의 학문이 아니니 반드시 깊이 배양하고 후하게 길러 의리의 마음이 항상 이겨서 뜻과 기운을 맑게 한다면 이목구비耳目口鼻의 욕망이 자연 그 사이에 용사用事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용』의 구경九經과 『대학』의 치평장治平章에 반드시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았고, 현자를 높이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대학』의 혈구絜矩는 사물에 대응하는 요체가 되며, 인물을 등용하고 재물을 다스리는 것은 정치하는 도리의 최우선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농지에 대한 세稅는 지극히 가볍고 공물貢物은 지극히 무거우니, 모름지기 공법貢法을 줄

여서 백성들의 힘을 펴지게 하고 세금을 올려서 세입을 증가하게 한다면 백성이나 나라나 모두 편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은 선생의 말씀을 가상히 여겨 받아들였으나 공안貢案은 고치지 못하였다.

상이 분부를 내려 경연에 출입하도록 명하자, 선생은 연달아 글을 올려 면직을 청하였다. 상이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선생으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 겨울을 나면서 병을 조리하게 하고자 하니, 대신들은 품계를 올려주고 경연의 참찬관參贊官을 겸직시킬 것을 청하였다. 상이 한가로운 직책에 있으면서 입시할 것을 명하자, 선생은 거듭 사양하여 해직을 청하고 도성을 나가 서쪽 교외에 머물렀다. 상은 선생이 도성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는 비망기備忘記로 소환하여 편전에서 인견하고 재삼 머물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선생이 물러가 죽기를 간곡히 청하자, 상은 그제야 우선 돌아갔다가 다음 해 봄에 올라오도록 허락하였다. 다시 사헌부 집의와 사옹원司饔院·사재감司宰監·내섬시內瞻寺의 정正을 제수하였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계미년(1583, 선조 16) 3월 특지特旨로 병조참지를 제수하였는데, 세 번 사양하는 상소문을 올리자 체직시키고 이조참의에 제수한 다음 인하여 품대品帶 한 벌을 하사하였다. 선생이 세 번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자, 비답하기를, “내 감히 직사職事를 맡겨 억지로 번거롭게 할 수가 없어서 본직을 체직하는 것이니, 다만 물러나 돌아갈 계책을 하지 말고 전에 내린 전지를 따라 경연에 입시하여 덕이 부족하고 몽매한 나를 돕도록 하라” 하였다.

나는 이이와 성혼의 당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때에 율곡이 조정에 있으면서 당론黨論을 없애고 잘못된 정사를 개혁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으니, 선조는 매우 사랑하고 의지하였다. 취향이 다른 자들이 율곡을 시기하여 공사公事 간에 하찮은 일을 들추어내어 국정을 제멋대로 처결하고 교만 방자하다고 삼사三司에서 탄핵하니, 조야朝野가 격분하였다. 선생이 마침 부름을 받고 서울에 이르렀다가 글을 올려 율곡을 논변하여 구원하려 하니, 삼사에서는 선생까지 탄핵하였다. 선생이 당일로 도성을 나와 파산으로 돌아오니, 태학생太學生 470명과 호서湖西와 해서海西의 유생 400여 명이 서로 이어 항의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상이 이르기를, “이제 유생들의 상소문을 보니, 충성스럽고 의로운 간담이 넘쳐서 범할 수가 없다. 선비들의 기개가 이와 같으니 내 어찌 국사를 걱정하겠는가” 하였다. 하교하기를, “만일 군자라면 봉당朋黨이 있음을 걱정할 것이 없으니, 나는 이이와 성혼의 당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였다. 얼마 후 또다시 이조참의를 제수하고 부르는 명을 네 번이나 내렸다. 선생이 부득이 명에 사은숙배하니 상은 인견하고 대면하여 타일렀다. 겨울에 이조참판으로 올려 제수하자 사양하는 상소문을 다섯 번 올렸으나 상은 허락하지 않았다.

갑신년(1584, 선조 17) 1월 율곡 선생이 별세하자 선생은 한탄하기를, “율곡은 도체道體에 대하여 큰 근원을 밝게 보았다. 이른바 ‘천지의 조화가 두 근원이 없다’는 것과 ‘인심人心의 발함이 두 근원이 없다’는 것과 ‘이기

理氣가 서로 발할 수 없다’는 등의 말씀은 모두 실제로 보고서 안 것이니, 참으로 나의 스승이다. 진실로 산하山河의 뛰어난 기운을 받고 태어난 인물이요, 삼대三代 이전의 훌륭한 인물인데, 이러한 세상에 큰일을 하지 못하고 뜻만 품고서 별세하였으니 애통하다” 하였다. 선생이 또다시 네 번이나 정사로辭하였으나 상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벼슬에서 물러날 것을 아뢰자 상은 답하기를, “새로 어진 재상을 잃었으니 나는 국사를 생각하면 잠을 자도 잠자리가 편안하지 못하다. 이제 나와 함께 국가를 다스릴 자는 경卿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지금이 어찌 물러갈 때이겠는가” 하였다.

가을에 분황焚黃하는 일로 말미를 받아 파산으로 돌아오자 상은 경기 감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성모成某가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고 도를 지키며 은거하여 지조를 지키고 있었는데, 내가 여러 번 부르므로 마음을 바꾸어 조정에 나왔으나 애석하게도 그는 병이 많으므로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였다. 이제 해가 저물어가니, 마땅히 수령으로 하여금 안부를 묻고 적절히 헤아려 음식물을 내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을유년(1585, 선조 18)에 찬집청纂集廳의 당상관堂上官으로 부름을 받고 세 번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상소하여 사양하였다.

이보다 앞서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이 모두 명류名流로서 하찮은 일 때문에 서로 비방하니, 선배와 후배 들이 마침내 서로 틈이 벌어졌다. 울곡이 아뢰어 두 사람을 외지로 내보내게 하였으나 이때까지도 진정되지 않았다. 심의겸은 바로 인순대비仁順大妃의 아우였는데, 젊은 사

람들은 외척이라고 지목하여 함께 배척해서 한 함정으로 여겼다. 그러나 선배들은 “심의점은 권간權奸이 조정을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힐 때에 사람을 부지하여 보호한 공이 있으며, 선조가 왕위를 이을 적에 원로대신들과 어진 사람을 불러오도록 청하였으니, 비록 외척이라고 하나 평소 중요한 관직에 있지 아니하여 일찍이 조정의 권력을 잡은 적이 없으므로 지나치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선생이 이것을 공론公論이라 여기니, 후배들은 마침내 선생까지 함께 탄핵하여 외척과 사귀고 결탁하여 조정을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혀 국사를 그르친다고 모함하였다. 선생은 연달아 상소하여 스스로 탄핵하고 유서를 써서 아들 문준에게 후사를 부탁하였다.

정해년(1587, 선조 20)에 자지문 및 감회시感懷詩와 서문을 지어 문생인 오윤겸과 황신에게 보였다. 기축년(1589, 선조 22) 겨울에 다시 이조참판에 제수되자 상소하여 사양하였다. 이때 마침 정여립鄭汝立의 역모 사건이 일어나니, 상은 하교하기를, “나라에 큰 변고가 있으니 경이 물러나 있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선생은 도성에 들어가 사은한 다음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며, 일찍이 정여립을 알고 지냈다고 하여 대죄하였다. 이때 우상右相 정언신鄭彦信이 역적과 서신을 왕래하고는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자, 대간臺諫에서는 기군망상欺君罔上했다고 논죄하였다. 선생이 요로要路를 맡은 대신에게 서신을 보내어 “대신이 한마디 말을 사실대로 하지 않았다 하여 대번에 중한 형벌을 받는 것은 왕도 정치에 손상이 된다. 송宋나라 조정은 일찍이 한 명의 대신도 죽이지 않았으니 인후仁厚함을 본받을

만하다” 하니, 의논이 마침내 잠잠해졌다.

이때 역옥逆獄이 사대부들 사이에서 일어나 크게 파급되어 만연하였다. 성상이 크게 진노하니, 사람들이 감히 구원하고 해명하지 못하였으나 선생은 강력히 화평한 의논을 주장하였다. 경인년(1590, 선조 23) 봄에 봉사를 올려 옥사를 늦추고 형벌을 신중히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니, 준엄하게 의논하는 자들이 상당히 불평하였다. —경인년 봉사를 살펴보면 백성들을 길러 나라를 보호하고 탐관오리를 다스리고 현자를 등용하는 도리를 위주로 하였는데, 옥사를 늦추고 형벌을 신중히 하는 한 조목은 선생이 상소문을 미처 다 초하기 전에 병이 났다. 그리하여 병이 나아 글을 올리려 할 때에는 옥사가 이미 결말이 났으므로 다시 삭제하였는데, 이제 도리어 이 한 조목을 들추어내어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였으니, 이는 선생을 신원伸冤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진실을 잃었음을 면치 못하였다. — 이때에 당화黨禍가 크게 일어날 기미가 있으므로 선생은 정장로狀을 올려 체직된 다음 마침내 파산으로 돌아왔다. 태학생들이 상소하여 선생을 머물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으니, 선생은 이로부터 다시는 도성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상 또한 다시는 부르지 않았다.

얼마 후 최영경이 호남의 방백方伯 홍여순洪汝諱이 올린 장계의 유언비어로 말미암아 체포되어 옥중에 있었다. 이에 선생은 정승인 송강松江 정철鄭澈에게 편지를 보내어 “최효원崔孝元(최영경)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깨끗이 수행하는 사람이니 어찌 역모에 가담할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정 정승의 뜻도 그 말을 옳게 여겨 마침내 탑전榻前에서

‘최영정은 효도하고 우애하며 기절氣節이 뛰어난 인물이므로 반드시 역모에 가담하였을 리가 없다’고 극진히 아뢰었다. 이에 성상의 뜻이 다소 풀렸다.

임진년(1592, 선조 25)의 변란에 선생은 조정으로 달려가려 하였으나, 이때 당론이 매우 준엄하여 사대부들이 서로 이어 유배 가고 쫓겨났다. 선생은 정 정승과 절친한 친구 사이여서 불원간에 화가 닥치게 되었으므로 감히 곧바로 대궐 아래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선생은 대가가 장차 서쪽으로 피난 갈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아들 문준에게 이르기를, “대죄하는 신하는 스스로 나아가기 어렵다. 대가가 만약 과연 서쪽으로 가신다면 오직 길가에서 통곡하고 맞이할 것이다. 내가 만약 고문顧問을 입는다면 대가를 따라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지어 배척받은 신하이니, 감히 스스로 반열에 낄 수 없다” 하고는 마침내 자제로 하여금 서울에 들어가 분명한 소식을 탐문해 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급히 서쪽으로 파천할 줄은 진실로 헤아리지 못하였다. 얼마 후 들으니 대가가 이미 임진 나루를 건넌 다음 배를 철거하여 나루터가 통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온 도에 왜병이 들끓기 때문에 길가에서 통곡하고 맞이하려던 계획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친한 손님과 마주 대하여 통곡하고는 마침내 병든 몸으로 안협安峽과 토산兔山 사이로 피난하였는데, 병세가 더욱 심해져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른 것이 여러 번이었다.

광해군이 세자로 이천伊川에 나가 머물면서 글을 내려 선생을 불렀으나 병환 때문에 즉시 가지 못하고 차자를 올려 제왕의 학문과 군무軍務

16개 조항을 논하였다. 광해군은 선생으로 하여금 의병장 김지金漬의 군 중에서 군대의 일을 보게 하고, 검찰사檢察使에 제수하여 개성유수 이정형과 협력하여 나가 싸워 국토를 수복하게 하였다. 가을에 광해군이 말[馬]을 보내어 부르자, 선생은 성천成川에 머칠 머물다가 즉시 의주로 갔는데, 도중에 참찬에 제수하는 명을 받았다. 그러나 처음에 대가를 미처 호종扈從하지 못했다 하여 석고대죄席藁待罪하고 새로 제수한 은혜로운 명을 계속하여 사양하였다. 대사헌에 제수되었다가 사양하여 체직되고 다시 참찬에 제수되었다.

선생은 상소하여 장수를 선발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군광을 모으는 세 가지 계책을 논하였으며, 군주의 덕을 지극히 논하였다. 이 상소에, “적국敵國의 외환外患을 전적으로 천운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옛날 제왕들은 이와 같은 변란을 당하면 모두들 통렬히 스스로 경계하고 꾸짖으며 조서詔書를 내려 자책하여, 혹은 존호尊號를 제거하고 혹은 나라를 그르친 신하들을 처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전의 잘못을 강력히 반성하여 백성들이 우리 군주가 개과천선한 실재를 분명히 알게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걱정하고 멀리 생각하시어 크게 훌륭한 일을 하려는 뜻을 분발하셔야 할 것이니, 단지 공허한 말에 나타낼 뿐만이 아니요, 오직 실제 일에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까이 모시는 자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금지하고 궁인宮人들이 정사에 관여하는 단서를 막으며 한결같이 정직한 선비에게 이목耳目의 임무를 맡긴다면 거의 인심人心이 기뻐하여 복종하고 천의天意가 다시 새로워져서 본원本源

인 마음이 깊이 배양되어 기강이 떨어지고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원수인 왜적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명나라 주사主事인 원황袁黃이 찬획贊畫으로 임명되어 우리나라에 와서 편지를 보내어 학문을 논하였는데, 그의 말은 육象山陸象山の 학설을 주장하고 정주程朱의 학설은 배척하였다. 행조行朝의 재신宰臣들은 회답하는 것을 어렵게 여겨 선생에게 청하여 답장을 초하게 하였는데, 대략 말씀하기를, “소방小邦 사람들은 모두 황조皇朝에서 반포해준 경서전주經書傳註와 성리性理에 관한 책들을 외고 익혀서 이 학설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여깁니다” 하니, 원황은 가상히 여기고 다시 말하지 않았다.

계사년(1593, 선조 26) 여름에 또다시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여 체직되고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이때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의 화가 현궁玄宮에까지 미쳤다. 선생은 명을 받들어 재상들과 봉심奉審하였는데, 일을 처리함이 상세하고 신중하며 사려가 보통 사람들의 의표意表를 찌르니, 제공諸公들이 탄복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병환이 심해져서 9월에야 비로소 해주海州의 행조에 복명復命하였다. 얼마 안 있어 대가가 도성으로 돌아왔으나 선생은 그대로 남아 중전中殿을 호위하였다.

갑오년 봄에 호서의 도적이 크게 일어나니, 경성京城이 진동하였다. 선생은 병을 무릅쓰고 가마를 타고 서울로 달려가서 상소하여 대죄하였는데, 비답의 대략에, “변란이 일어나던 초기에 내가 경의 집 앞을 지나 갔으나 경이 와서 문안하지 않더니, 이제 경이 찾아오니 감격하여 눈물

이 흐른다” 하였다. 이는 임진년 대가가 서쪽으로 행행할 때에 상이 임진 나루에 이르러 “성모成某가 어느 곳에 사는가?” 하고 묻자, 이흥로李弘老가 병조좌랑으로 앞에 있다가 강안江岸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을 가리키며 아뢰기를, “저곳이 바로 성모가 사는 곳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와서 나를 보지 않는가?” 하니, 이흥로는 아뢰기를, “이러한 때를 당하여 그가 어찌 기꺼이 와서 뵈겠습니까” 하였다. 이흥로는 일찍이 선생이 사는 곳을 왕래하여 선생의 집이 임진 나루에서 20여 리 지점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기회를 틈타 이와 같이 무함誣陷한 것이었다. 그리고 대가가 의주에 이르자, 이흥로는 선생이 동궁東宮의 부름에 달려가 성천成川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는 상에게 아뢰기를, “성모는 온 나라의 중망重望을 받고 있는데 그가 이미 세자에게 돌아갔으니, 일을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였으며, 선생이 의주의 행조에 왔다는 말을 듣고는 또다시 아뢰기를, “성모가 이번에 온 것은 세자에게 선위禪位할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였다. 선조는 이미 여러 번 그의 무함하는 말을 들었으므로 이때에 이르자 이러한 분부가 있었던 것이다. 선생이 황공하여 상소하여 중한 견책을 내리시기를 원하자, 비답을 내려 위로하고 타일렀다.

여름에 좌참찬 겸 비국당상에 제수되니, 이때 상이 당상관들은 각각 계책을 올리라는 분부를 내렸다. 이에 선생은 시무時務 14개 조항을 올렸다. 첫 번째로 공물을 바치는 것을 중지하고 임금에게 올리는 음식을 중국의 예처럼 시장에서 사 오기를 청하였다. 소疏가 계하啓下되었으나

폐기하여 시행되지 않았다.

이때 명나라의 고顯 시랑侍郎이 호胡 참장參將을 보내 자문咨文을 보내기를, “우리 중국은 병사들이 지치고 힘이 다하였으니, 형편상 우선 왜적의 화의和議를 들어주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귀국貴國과 함께 병력을 길러 후일을 도모할 것이니, 귀국에서는 이러한 형세를 자세히 갖추어 상주奏하라” 하였다. 이때 왜적들은 경상도 연변의 13개 고을을 점거하여 날마다 노략질을 자행하였고 전라도 한 곳만 홀로 적들의 칼날을 면하였다. 우리나라는 병력이 부족하고 군량이 다하여 적이 쳐들어올 경우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의정부에서는 계책을 낼 방도가 없으므로 뜻을 굽혀 고 시랑의 자문을 따르려 하였으나 당시 의논들이 화의를 매우 준엄하게 공박하였다. 이때 정승인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이 선생과 함께 입대入對하여 성상께 결단을 내릴 것을 청하였다.

상이 “황제에게 어떻게 주문奏聞할 것인가?” 하고 묻자, 선생은 아뢰기를, “국세의 위태로움이 한 오라기의 머리카락과 같으니, 모름지기 다소 적의 예봉銳鋒을 늦추어야 거의 자강自強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 시랑은 손수 큰 병권을 쥐고 있어 자기의 생각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현재 물러나 압록강을 지키자는 의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싸우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만 중국의 화의를 금한다면 잘못된 계책일 듯합니다” 하였다. 상은 이에 답하지 않았는데, 이때 마침 전라감사 이정암李廷龜이 장계狀啓를 올려 우선 화의를 허락하여 병란兵亂을 늦추는 계책으로 삼을 것을 청하자, 좌우의 신하들은 이정

암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다투어 아뢰었다. 선생은 평소에 이정암이 충성스럽고 신의를 지키는 큰 절개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이 때문에 중한 죄를 얻을까 염려하여 아뢰기를, “이 사람이 함부로 아뢰된 것은 참으로 죄가 있으나 그 마음은 지극한 정성으로 국가를 염려하여 용감하게 말하고 숨기지 않은 것이니, 중한 죄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상이 매우 진노하자, 유 정승은 끝내 감히 발언하지 못하고 물러나왔다. 이로부터 상은 여러 번 화의를 배척하는 하교를 내렸으며 삼사에서도 서로 글을 올려 화의를 공격하니, 선생은 글을 올려 스스로 탄핵하고 물러날 것을 청한 다음 파산으로 돌아왔다.

선생이 항상 답답해하며 말쑤하지 않는 것을 보고 문인들이 그 이유를 묻자, 선생은 눈물을 닦으며 말쑤하기를, “내 군부君父에게 죄를 얻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죄를 결정하지 않고 있으니 진실로 천지 사이에 몸 둘 곳이 없다. 그런데 편안히 쉬면서 집에 있으니 어찌 마음에 편안하겠는가” 하였다. 이로부터 걱정하고 상심하여 병이 되었다. —살피보건대 이때 성상의 노여움이 그치지 아니하여 엄한 분부를 연달아 내렸으니, 선생이 사람들과 말쑤할 때 혹 허물을 자책하여 대죄한다는 말씀은 있을 수 있으나 어찌 답답해하여 눈물을 닦으며 근심하고 상심하여 병환이 됨에 이르렀겠는가. 이 또한 신원伸冤할 때에 상에게 아뢰된 말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너무 지나친 것이다. — 마침내 위독해지자 아들 문준에게 유서를 남기기를, “나는 죄명罪名이 지극히 중하여 현재 엄한 견책을 기다리고 있다. 세상일은 날로 위급해지는데 평소의 마음을 군부

에게 드러내지 못하였으니 나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죽거든 삼베옷을 입히고 종이 이불로 얽습한 다음 띠풀을 췌어 관을 덮어서 소달구지에 싣고 고향으로 돌아가 장례하고 묘 앞의 비석에는 ‘창녕 성모묘昌寧成某墓’라는 다섯 글자만 써서 자손들로 하여금 무덤이 있는 곳을 알게 하면 된다” 하고 마침내 파산서실에서 별세하니, 무술년 6월 6일로 춘추가 64세였다.

선생이 별세하였으나 여러 소인들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질시하였다. 정인홍이 자신의 무리인 문경호文景虎에게 시주하여 상소하여 선생을 모함하기를, “최영경의 죽음이 선생에게서 연유되었다”고 하니,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때를 틈타 더욱 함부로 비방하여 ‘간흉과 한 무리가 되고 군주를 버렸다’는 것으로 죄안罪案을 엮어 만들어 사람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웠다. 선조는 어필御筆로 ‘모함하여 죽였다[構緹]’ 등의 글자를 삭제하였으나 끝내 관작을 추탈하기에 이르렀으니 슬프다. 선생은 본래 산림에서 일어나 부귀를 보기를 우연히 오는 물건으로 여겼으니, 사후死後의 득실得失은 선생에게 아무 관계도 없었다. 그러나 모함하는 말의 망극함이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유림들이 함께 원통해하고 분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이 쇠하고 도가 미미해져서 간사함이 정도正道를 이긴 지 오래되었다. 정주와 같은 대현大賢으로도 오히려 간사한 자들에게 위학僞學이라는 지목을 면치 못하였으니, 선생에 대해서 또 무슨 한할 것이 있겠는가. 천운天運은 순환하여 가면 돌아오지 않음이 없다. 그리하여 성상(인조를 가리킴)께서 즉위하시던 초년에 선유先儒들을 높

여 장려하시고 억울한 자들을 신원하여 다스렸다. 이에 나는 지금 영중 추부사領中樞府事인 오공 윤겸과 함께 선생이 전후에 걸쳐 모함을 당한 곡절을 탐전欄前에서 자세히 아뢰니, 성상은 마침내 관직을 복구하도록 명하였다. 그 뒤 내가 또 경연에서 선생을 표창하여 추증하는 은전恩典을 내릴 것을 청하자 성상은 즉시 의정부 좌의정을 추증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제생들이 파산의 옛 마을에 서원書院을 세우고 청송 선생을 배향配享하여 국가의 예전禮典이 밝게 게시되어 선비들의 마음이 크게 정해 지니, 선생의 도가 다시 오늘날에 밝아졌다고 이를 만하다.

아, 선생은 타고난 천품이 매우 높고 덕기德器가 일찍 이루어졌다. 어려서부터 가정의 교훈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 효제孝悌와 충신忠信을 입신立身하는 기본으로 삼았으며, 학문을 함에는 정밀하게 연구하고 독실하게 실천하여, 지知와 행行이 겸하여 진전되고 경敬과 의義가 서로 유지되었다. 그리하여 규모와 절도가 한결같이 주자朱子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본원인 마음을 조존操存하는 곳에 더욱 정성을 다하였다. 지극한 공양供養과 깊은 조예造詣는 일반인들이 엿보고 측량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었으나, 외면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관찰하면 용모가 장중莊重하면서도 편안하고 온화한 기색이 있고, 지기志氣가 정숙靜肅하면서도 억지로 구속하는 수고로움이 없었으며, 말씨가 분명하고 간절하며 행동거지가 단정하고 자상하였다.

평소 거처할 적에 새벽에 일어나서 반드시 사당에 배알하고 저녁에도 이와 같이 하여 날씨가 춥든 덥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일찍이 그만두

지 않았다. 물러 나와 서실에 거처함에 종일토록 엄숙하여 태만한 모습을 신체에 나타내지 않았으며, 사람을 접하고 사물을 대함에 한결같이 겸손하고 온화함을 위주로 하였으나 사람들이 스스로 존경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집안을 다스리는 데에 법도가 있어서 절약하고 검소함과 사랑하고 용서함을 힘썼고, 집안사람들에게 직책을 나누어주고 일을 분담시켜 각각 조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수고롭지 않으면서도 일이 잘 거행되었다. 초상과 제사의 예절은 한결같이 주자의 『가례家禮』를 따르고 기용器用과 제수祭需는 반드시 지극히 정결하게 하였으며, 농사일이 끝나면 언제나 제사에 쓸 곡식을 적절히 헤아려 별도로 저장하고 다른 곳에 쓰지 말도록 경계하였다. 집안사람들은 선생의 가르침을 삼가 지켜서 비록 끼니를 여러 번 굶더라도 감히 제수로 쓸 곡식을 갖다 먹지 못하였다. 선조先祖의 기일忌日을 당하면 슬퍼하고 사모하기를 초상 때처럼 하여 포관布冠을 쓰고서 하루를 마치고 하였다.

선생은 젊어서부터 질병이 많아 몸이 수척하고 얼굴이 검게 타서 옷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듯하였으나 정신이 안정되고 눈동자가 빛났으며 언제나 책을 읽다가 뜻에 맞는 부분에 이르면 낭랑한 목소리로 글을 읽어 췌소리가 나는 듯하였다. 젊어서 율곡 선생과 교분을 맺고 도의道義를 강마講磨하여 이택麗澤의 유익함이 있었다. 율곡은 일찍이 칭찬하기를, “만약 견해의 경지를 가지고 논한다면 내가 다소 나은 점이 있겠으나 조행操行의 독실함은 내가 우계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였다.

선생은 일찍 과거를 포기하고 산림에서 광채를 숨겨 본래 세상에 나아

갈 뜻이 없었다. 그런데 학문이 이루어지고 도가 높아지자, 종유從遊하는 선비들이 더욱 많아져 빛나는 명성이 알려졌으므로 여러 번 천거하는 글에 이름이 올랐다. 선조는 은혜와 관심이 특별하여 불차不次의 지위로 대우하였다. 선생은 강력히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여, 비록 부름을 받고 도성에 가곤 하였지만 항상 오래 머물 뜻이 없었으므로 조정에서 벼슬한 기간을 따져보면 1년이 채 못 되니, 이것이 선생이 나아가고 물러난 대략의 내용이다.

선비들의 의논이 분열된 이후로 세상의 도가 날로 나빠지자, 선생은 마음가짐이 공평하고 정직하여 전혀 편벽되어 엇매이는 것이 없었으나 오직 어진 사람과 간사한 사람이 사라지고 자라는 것을 가지고 걱정과 즐거움으로 삼았다. 이에 한 번 을곡을 위하여 변호하였다가 마침내 일부 사람들의 질시를 당하니, 그들은 남몰래 모함하고 드러나게 꾸짖는 등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유학을 높이고 현자를 예우하는 선조의 거룩한 덕이 유종有終의 미미를 거두지 못하게 하였으며 선생의 큰 포부도 이 세상에 퍼지지 못하게 하였으니, 진실로 애통해할 만하다. 선생의 문장은 육경六經에서 나오고 성리性理에 근원하여 명백하고正大하였으며 정밀하고 간절하여 염락濼洛의 유풍遺風을 깊이 얻었다. 그리하여 문장을 읽어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풀리고 이치가 투철해져서 읽고 읽어도 싫지 않게 하니, 참으로 세상을 경륜할 만한 문장이다. 저서로 『우계집牛溪集』 6권이 세상에 전한다.

가족들

부인 고령 신씨高靈申氏는 군수 여량汝樑의 따님인데 어질고 부덕婦德이 있어서 가법家法을 잘 지켰다. 2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 문영은 일찍 죽었고, 차남 문준은 을유년 진사에 합격하고 천거로 현감이 되었다. 장녀는 남궁명南宮暻에게 출가하였는데 벼슬이 별좌別坐이고, 차녀는 윤황尹煌에게 출가하였는데 벼슬이 참지參知이다. 현감은 주부 조감趙堪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3녀를 낳았는데, 맏이는 역櫟이고 그다음은 익채과 직櫟이며, 사위는 신민일申敏一·안후지安厚之·윤정득尹正得이다. 별좌는 2남 3녀를 낳았는데, 맏이는 결초이고 그다음은 우楸이며, 사위는 신협申協·김여옥金汝鈺·윤형은尹衡殷이다. 참지는 5남 2녀를 낳았는데, 맏이는 훈거勳擧이고 그다음은 순거舜擧·상거商擧·문거文擧·선거宣擧이며, 사위는 이정여李正興·권준權儁이다. 내외의 여러 손자가 모두 60여 명에 이른다.

나는 국가가 위급하던 때에 여러 번 선생을 찾아뵙고서 빛나는 도덕을 바라보고 장려하는 한 말씀은 받았으니, 사모하는 정성이 실로 보통 사람의 갑절이나 된다. 이제 시호를 청하면서 올릴 행장을 의리상 감히 사양할 수가 없으므로 삼가 가보家譜를 가지고 대략을 위와 같이 차례로 쓰는 바이다.

「우계연보부록 - 행장」(우의정 이장귀李廷龜 지음)

문헌 자료



『우계연보보유牛溪年譜補遺』 제1권, 「덕행德行」

가장家狀

선생의 학문은 대체로 가정에서 얻었는데, 인륜을 근본으로 삼고 충신忠信, 독경篤敬, 반궁反躬, 절기切己를 덕을 진전시키고 학문을 닦는 큰 방법으로 삼았다. 평생에 스승으로 섬기고 벗으로 사귀 분으로는 퇴계 이 선생과 율곡 이 선생이 있었다. 선생은 항상 말씀하기를, “퇴계 이 선생은 참으로 주자朱子 법문法門의 중지宗旨를 얻었다” 하여, 비록 몸이 병들고 사는 곳이 멀어 직접 모시고 섬기지는 못하였으나 종신토록 변함없이 존모尊崇하여 그 문하 출신인 것 같았다. 일찍이 퇴계 선생이 서울에 오신 계제에 찾아가 배알하였으며, 언제나 선생의 글을 얻으면 옷깃을 여미고 공경히 반복하여 읽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손이 닿는 대로 글을 초록抄錄하여 권질卷帙을 이루었다. 그리고 율곡 이 선생과는 약관弱冠 시절

에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고 성현의 떳떳한 교훈으로 스스로를 다스렸으며, 경적經籍을 토론하고 의리를 강마講磨하며 절차탁마切磋琢磨해서 봉우 간에 도움을 주고받은 것이 가장 많았다. 선생은 언제나 말씀하기를, “율곡은 나의 벗이 아니고 바로 나의 스승이다” 하였으며, 기일日을 만나면 반드시 그를 위하여 소식素食을 하곤 하였다.

◎

선생은 후생들을 대할 때에 성의誠意가 간곡하고 지극하였다. 그리하여 학문에 뜻이 있는 자를 보면 그 사람의 재주의 높고 낮음에 따라 지도하되 반드시 『주문지결朱門旨訣』에 의거하여 형이하학적인 인사人事를 배우는 것을 위주로 하고 사우師友 간에 강론하는 것으로 보익輔益하게 하였다. 그리고 말씀은 평담平淡하고 진실하며 질서 정연하게 순서가 있어 어진 자와 어리석은 자가 모두 유익함을 얻었으며, 감히 고원하고 기이하며 현묘玄妙한 의논을 하여 후생들을 그르치지 않았다.

◎

선생은 일찍이 주자의 글 가운데에서 중요한 말씀을 뽑아내어 배우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제목을 ‘위학지방爲學之方’이라 하고, 말씀하기를, “율곡은 비록 세상에 드문 고명高明한 재주가 있었으나 저술을 너무 일찍 하였으니, 이는 경계로 삼아야 하고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주자의 글을 초록한 것은 감히 저술한다고 자처한 것이 아니라 다만 주자의 문하에서 배우고 가르치던 요점을 뽑아내어 제군들로 하여금 준수하여 가슴속에 새겨두게 하려고 해서일 뿐이다” 하였다.

선생은 젊었을 적에 집이 가난하여 부모를 봉양하느라 힘들게 일하고 고심하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으며, 힘써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느라 몸소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는 수고로움을 피하지 아니하여 일찍이 맛있는 음식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

청송 선생이 풍병을 앓아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선생은 밤낮으로 부친을 부축하고 모셔 비록 한겨울과 무더운 여름철이라도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밤에도 물러가지 않았다. 청송 선생께서 선생이 피로가 쌓여 병이 날까 염려해서 자기 방으로 물러가 쉬라고 하면 선생은 감히 그 뜻을 어기지 못하여 즉시 문밖에 나가서 처마 아래에 거적 자리를 펴놓고 앉아 창가에 귀를 대고 부친의 숨소리를 살피다가 밤이 깊어 잠이 드신 뒤에야 잠시 물러가 가매假寐하였는데 옷의 띠는 풀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채 날이 밝지 않아 부친이 잠을 깨기 전에 먼저 방문 밖에 가서 앉아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문으로 들어가 문안을 올리곤 하면서 마치 자기 방에서 막 나온 것처럼 하였다.

부친의 증세가 위독해지자, 선생은 손가락을 잘라 피를 올리려 하였으나 ‘손가락은 사람들이 항상 보는 것이니, 효도한다는 이름을 얻으려는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두 차례나 넓적다리 살을 베어 올렸다. 그러나 선생은 평생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 지손들에게 말쑤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는 자가 극히 드물었다. 문인 신응구申應渠는 항상 말하기를, “우리 선생의 효행을 이는 자가 세상에 드물다. 선생은 일찍이 화행행

으로 이름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선행으로 일컬어지지 못하는 것인데, 실체는 참으로 효자이다” 하였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경鄕이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분은 평소 어버이 섬기기를 지극히 효성스럽게 하였으니, 국가에서는 마땅히 그분의 집문에 정표旌表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뒤에 그의 학문이 날로 진전되어 이름이 한 세상을 덮어 유럽의 사표가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효자라고 지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였다.

선생은 부친을 여윈 다음 선친의 가르침을 공경히 받들어 돌아가신 분을 살아 계실 때와 똑같이 섬겼다. 그리하여 선조의 뜻과 사업을 계승하는 일에 정성을 지극히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일을 삼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한결같이 함으로써 정성과 사랑을 지극하게 하였으며, 가정 형편에 맞추어 제물을 장만하되 되도록 정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전祭田과 노비奴婢를 충분히 마련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며, 자손들에게 유서를 남겨 자자손손 전택田宅과 노비를 나누어 갖지 못하도록 하여 영구한 계책으로 삼았다.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가 말하기를, “근세에 오직 우계께서 제사를 돌러가며 지내는 법을 고치니, 사대부 집안 중에서도 한두 집안이 이에 교화되었다” 하였다)



선생은 집 안에 거처할 적에 매일 아침 사당에 배알한 뒤에 물러 나와서 반드시 바깥사랑채에 거처하여, 일이 있지 않으면 안채에 들어가지 않았다. 내외가 엄격하여 규문閨門이 정돈되고 엄숙하였으므로 부인과 의상

衣裳을 접하고 앉지 않았으며 앉는 자리를 항상 멀리 떨어지게 하였다. 선생은 일찍이 아들에게 당부하기를, “자부姊夫나 매부妹夫가 집에 있지 않으면 밤중에 방에 들어가 자姊나 매妹와 말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

혹 어릴 때부터 서로 알아 어른으로 섬기는 분이던 비록 나이가 열 살 이상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대부분 ‘어르신네’라고 불렀으며, 자부姊夫는 비록 동고조同高祖 8촌 정도로 멀더라도 반드시 형이라고 칭하며 공경히 섬겼다. 친척과 고구故舊들에게 돈독히 하여 곤궁한 자를 구휼하고 환난患難을 구제하는 데 정성과 힘을 다하였으며, 아주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있으면 매번 재물을 아끼지 않고 노비와 전택을 주었다.

◎

선생은 약관 시절에 병에 걸렸고, 뒤이어 친상親喪을 연달아 당하였는데 너무 슬퍼한 탓에 몸이 심하게 훼손되어 마침내 고질병이 되었다. 그리하여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겨울옷으로 여름까지 났으나 끝내 병이 있다고 하여 스스로 게을리 하지 않았다. 평소 근엄하게 지내어 마치 손님을 모시거나 제사를 받드는 것처럼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였다. 일찍이 낮에 눕지 않았으며, 나태해지려는 마음이 있음을 깨달으면 그때마다 용모를 정돈하고 수습하여 정신을 다잡았다. 때로 기운이 쇠진하여 지탱할 수 없으면 등을 병풍에 기대고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고를 뿐이었다. 그러다가 잠시 후 기운이 다소 소생하면 곧 일어나 앉아 책을 보았다. 이러기를 밤낮으로 계속하여 몸에 병이 들었어도 육체와 정신이 피

곤한 줄을 알지 못하였다.

◎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이 일찍이 선생을 방문하였는데, 우계에 와서 타 이르기를, “공의 병이 이와 같은데도 계속해서 책을 보니, 이는 거의 성벽性癖을 이룬 것이다. 옛날 당唐나라 명황明皇은 여색에 빠져 몸을 돌보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그런데 이제 공은 독서에 탐닉하여 병을 키웠으니, 책과 여색이 비록 청탁淸濁의 다름이 있으나 생명을 해치고 본성을 손상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다. 그러니 오늘날 경서經書와 자서子書 등 성현의 글은 또한 공에게 나쁜 물건이다”라고 하니, 선생은 웃으며 사례하였다.

◎

선생은 행실이 준엄하였으나 포용하는 도량이 매우 커서 남이 경우 없이 침범해도 일일이 따지지 않았으며, 평소에 사람들을 교만하게 대하거나 미워하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혹 속이거나 무함하는 자가 있어도 조금도 개의하지 않고 처음처럼 대하였으며 일찍이 말소리와 얼굴빛에 나타내지 않았다. 불선不善한 행실을 하는 자를 보면 조용히 경계하고 타이러 뿐, 그의 잘못을 남에게 드러내어 말쑥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스스로 복종하였고, 혹 이로 인하여 나쁜 행실을 고친 자도 많았다.

◎

평소에 편안히 즐기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분화紛華한 자리에 있

어도 흔들리지 않고 우뚝하게 서서 스스로를 지켰으며, 특히 명예와 절개를 소중히 여겨 무너진 풍속을 격양(激揚)하였다. 남을 대할 때에는 겸손함으로 자처하였으며, 조금이라도 남과 경쟁하는 데 관계되는 일이면 즉시 버리고 돌아보지 않았다.



본주(本州, 파주)의 성주(城主)를 섬길 적에는 예와 공경을 극진히 하여 비록 친한 벗을 대하더라도 그의 과실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비록 선생보다 연배가 낮은 자라도 반드시 절하고 맞이하고 보내었다. 본관인 창녕의 수령에게도 이와 같이 삼가고 공경하였다. 고을에서 부과하는 부역과 세금은 반드시 미리 장만하였으며, 일찍이 가난하다고 핑계하지 않고 항상 마을 백성들의 솔선이 되었다. (일기를 살펴보면 성주를 언급한 곳에는 반드시 한 글자를 띄워 경의를 표하였다)



어느 날 손님과 바깥사랑채에 창문을 열어놓고 앉아 있었는데, 촌 백성이 말을 타고 100보도 안 되는 곳으로 지나가자, 선생은 즉시 손으로 창문을 닫아 피하고 그를 꾸짖지 않았다. 그러므로 시골에 거처한 50여 년 동안에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모두 편안히 여겨 털끝만큼도 원망하는 자가 없었다.



선생은 집 안에 거처할 적에 화려함을 통렬히 억제하여 집 안에 쓸데 없이 남아도는 물건이 없었다. 심지어는 관청에서 환자곡(還子穀)을 빌리

거나 사사로이 대여하여 겨우 곤궁함을 구제할 뿐이었다. 그리고 물건을 사양하거나 받을 때에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대충 처리하지 않았으며, 주현州縣에서 보낸 선물은 소소한 토산물 이외에는 비록 쌀 한 말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도 감히 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삼베옷과 초립으로 일생을 마쳐 처자식들이 굶주림과 추위를 면치 못하였다. 또한 작은 일도 대충 지나치지 않고 부지런히 하여 무릇 손님을 접대하고 제사에 올리는 물건이나 내외의 집안일로부터 농사일에 쓰는 집기 등의 하찮은 것이 이르기까지 반드시 미리 조처하였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것이 각각 조리가 있어 모두 편의함을 얻었으며 일을 당하여 근색하고 급박하게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없었다. 사람과 약속을 하면 비록 상대의 신분이 미천하고 일이 하찮더라도 일찍이 신의를 잃지 않았으며, 손님들과 한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방에 고요히 앉아 책을 보며 스스로 즐겼다. 이러한 것들은 학문의 힘이 축적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천성 또한 그러했기 때문이다.

일기 초본

정축년(1577, 선조 10) 9월에 안습지安習之(안민학安敏學)가 나를 경계하여 말하기를, “후생後生을 대할 때에 말씀은 너무 번거롭게 많이 하시며 후생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니, 이와 같이 하면 한갓 빈말이 될 뿐입니다” 하였다. 나는 절하고 이 말을 받아들이며 나의 병통에 딱 들어맞는 절실한 말이라고 여겼다. 이것은 바로 주자가

말한 “가볍게 자신을 드러내어 외인外人들의 변론을 야기하고, 지나치게 수응酬應을 많이 해서 내면으로 향하는 공부를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실제 공부가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와 같이 들뜨고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병통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병을 조섭하는 데에 가장 좋으니, 어찌 몸과 마음에 모두 유익하지 않겠는가. 내 이것을 써서 경계로 삼는 바이다.

◎

10월 13일에 김복경金復慶 기선基善이 찾아왔는데, 만나서 번거롭게 말을 참 많이 하였으니, 이는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이다. 이것을 써서 나의 잘못을 기록하는 바이다.

◎

무인년(1578, 선조 11) 1월 12일 신시申時에 민씨閔氏에게 시집간 누님의 부음을 듣고 위상을 설치하고 곡하였다. 성복成服 전에는 조석朝夕으로 곡하였고 15일에는 대공복大功服을 만들어 입고 곡하였으며, 미식米食과 면식麵食, 술과 과일을 위를 설치한 곳에 올렸으니, 이는 편두통과 치통으로 얼굴이 부어서 궤연几筵에 달려가 곡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평소에 효도와 공경을 다 바쳐 감동시키지 못하였으며 병환이 위독할 때에 달려가 문병하고 영결永訣하지 못하였으니, 마음이 더욱 애통하고 찢어지는 듯하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다. 부모와 형제 간에 후회스럽고 애통한 일이 많은데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 눈물만 흘릴 뿐이다.

28일에 소식素食을 마치고 육식을 시작하여 몸이 허손虛損된 것을 보양하였으니, 이는 빨리 달려가 곡하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율곡별집栗谷別集』

율곡은 우계 선생과 이기理氣를 논란하여 서신을 아홉 차례나 주고받았는데, 우계는 율곡 선생의 말씀을 많이 따랐다. 그러나 율곡 선생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의리義理를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우계보다 나아 우계가 나의 말을 따른 것이 많으나, 나는 성품이 느슨하고 해이하여 비록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지만 우계는 알고 나서는 곧 하나하나 실천하여 실제로 자기 것으로 만드니, 이는 내가 미치지 못하는 점이다” 하였다.



선생이 도성에 들어간 날에 마침 송강松江(정철鄭澈)의 생신 모임에 갔는데, 선생이 뜰에 이르러 기생들이 대열에 있는 것을 보고는 주인에게 말씀하기를, “저 기생들은 오늘의 모임에 마땅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율곡이 웃으며 말씀하기를, “검은 물을 들여도 검어지지 않는 것이 또한 한 가지 방법이다” 하니, 선생은 마침내 자리에 올랐다. (살피건대 혹자는 선생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고도 한다)

『기옹만필曄翁漫筆』

울곡과 우계와 우리 선친께서 함께 진사進士 이희참李希參의 집에 모였었는데, 주인집에서 술자리를 베풀면서 명창名唱을 자리에 끼게 하였다. 술잔을 돌리고 노래를 하려 하는데 우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니, 좌상座上에서는 감히 아무도 만류하는 자가 없었다. 선생은 평소 음탕한 음악을 듣지 않는 것을 법으로 삼았다 한다.



우계는 가정에 있을 때에 집안일을 매우 자세하고 치밀하게 처리하였다. 선생은 이른 아침에 명령을 내렸는데 비록 밭 갈고 수확하는 하찮은 일이라도 종들을 부릴 때에 반드시 날짜와 인력을 계산하여 나누어 맡겨서 조금도 착오가 있는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시골에 거처하면서도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았다. 청송 선생은 평소 생업을 보살피지 아니하여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접대하는 모든 일을 우계가 주관하였다. 간혹 서울에 나그네로 계실 때에 친구들이 찾아오면 우계는 반드시 술과 고기를 마련하였는데, 청송 선생은 마치 전부터 있던 것처럼 여겼다.



옛날에 우연히 한 노승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용문사龍門寺에 있을 때에 우계 선생과 여러 날을 함께 지냈으므로 선생의 기거起居를 익숙히 보았다” 하였다. 내가 “선생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무슨 일을 하시던가?” 하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새벽에 일어나서는 반드시 세수하고 빗질한 다음 의관을 단정하게 하고 손을 모으고 바르게

앉아 계셨고, 점심 무렵이 되면 다시 세수하고 빗질하고 앉아 계셨다. 때로 서책을 펴 보다가 만일 생각할 부분이 있으면 책을 덮고 바른 자세로 묵묵히 앉아 계시니, 바라보면 엄숙하여 공경심을 일으키지 않는 자가 없었다” 하였다.

현손玄孫 지선至善의 기록

청송 선생이 존귀한 손님과 말씀하시니, 선생은 아침 내내 손을 모으고 기둥 사이에서 계셨다. 손님이 청송에게 말하기를, “영윤^{永胤}을 자리에 들어오게 하시오” 하자, 청송 선생이 선생에게 앉으라고 명하였고, 선생은 그런 뒤에야 들어와 앉았다.



충익공^{忠翼公} 이시백^{李時白}이 나이 아홉 살에 파산에서 선생에게 수학 하였는데, 선생은 언제나 부인에게 친히 머리를 빗어주게 하였으며, 내외에 명을 전달하게 할 때에 친자식과 차이를 두지 않았다. 하루는 자기 집에 가서 그 대인^{大人}인 충정공^{忠定公}(이귀^{李貴})에게 아뢰기를, “우리 선생께서는 항상 바깥사랑채에 거처하시며 흑시라도 안채에 들어가시면 부인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정답게 말씀하지도 않으시니, 아마도 부인과 소원하신 듯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충정공은 웃으며 말씀하기를, “소자는 우리 부부가 항상 함께 거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하는가? 부부간에는 서로 공경하여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 예이다. 내가 너를 우계 선생께 보내 배우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배우게 하려는 것

이다” 하였다.

◎

선생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하루는 율곡이 그의 아우 우堦와 함께 거문고를 가지고 오니, 선생과 율곡 형제는 둘러앉아 거문고 소리를 들으며 담론을 계속하여 서로 즐거워하였다.

◎

선생은 크고 작은 서찰에 손수 답장을 하였는데, 잠깐 사이에 글을 써서 즉시 봉하여 부치곤 하시니, 이 때문에 문에 기다리는 심부름꾼이 없었다.

◎

선생은 평소 산수山水를 좋아하여 사람들이 혹 아무 산과 아무 물의 좋은 경치를 말하면 그때마다 이것을 적어두었다가 때때로 펴 보며 깨끗한 생각을 붙이곤 하였다.

◎

선생은 항상 책자 하나를 장만하여 날마다 일기를 써서 퇴도의 『자성록自省錄』의 예례와 같이 하였다. 여기에는 “오늘은 아무 잘못을 반성하고 아무 악행을 고쳤다”라는 내용이나 “아무 곳의 아무 사람이 훌륭한 행실이 있으니, 이는 공경할 만하다”라는 내용이나 “아무 사람은 고상한 뜻이 있으니, 이는 가상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임진왜란에 또 별도로 책 한 권을 만들어 당시에 충절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간혹 시를 지어 찬탄하기도 하였다. 또 조

송설趙松雪(조맹부趙孟頫)이 악무목岳武穆(악비岳飛)을 조문한 시와 『시경』 우무정雨無正의 제4장과 정월의 제2장 및 대주大註를 책 끝에 썼으며, 또 제갈량諸葛亮의 출사표出師表 중에 있는 “적을 정벌하지 않으면 왕업王業도 망할 것이니, 그대로 앉아서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가서 공격하는 것이 낫다(不伐賊 王業亦亡 與其坐而待亡 孰若伐之)”라는 17자를 써놓았다.

◎

일기책의 끝에 ‘돈후주신 평실정정敦厚周慎平實定靜’의 8자를 두 줄로 쓰고 분주分註하기를 “돈독敦篤하면서도 중후重厚하고 주밀周密하면서도 근신謹愼하며, 평담平淡하면서도 진실眞實하고 응정凝定하면서도 안정安靜하여야 한다” 하였다.

◎

선생은 말씀하기를 “날마다 머리를 빗지 않는 자는 뜻이 게으르기 때문이며, 손톱과 발톱이 긴데도 깎지 않는 자는 마음이 거칠어졌기 때문이며, 무딘 칼을 갈지 않고 쓰는 자는 기운이 진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였다.

◎

선생은 병이 위독해지자, 시자侍者에게 명하기를 “내일은 내가 장차 위태로울 것이다” 하시고는 집 안의 종들에게 농사일을 나가지 말고 집에서 기다리라고 명하였는데, 이날 과연 별세하였다. 별세할 때에 흰 기운이 주무시는 방으로부터 집 뒤의 산 위까지 뻗쳐 한동안 없어지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중봉집重峯集』의 병술년(1586, 선조 19) 소疏

동방東方의 남자로서 욕심의 함정에서 스스로 초탈한 자가 이지함李之菡, 성훈成渾 외에 다시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토이 이 세상에서 사사師事한 자가 세 분인데 이지함, 성훈, 이이입니다. 이상의 세 사람은 학문을 성취한 것은 비록 똑같지 않으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욕심을 적게 하며 지극한 행실이 세상의 모범이 된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신은 그 만분의 일이나마 따르려고 하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구知舊의 간독簡牘으로 한교韓嶠의 글

선생의 가르침에 “마음은 형체가 없고 몸은 형체가 있으니, 예로부터 성현들은 형체가 있는 몸으로부터 공부를 하였다. 만약 마음에만 공부를 하려 한다면 나중에는 반드시 허탄하고 망령되어 기탄함이 없는 데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였다.

『계곡만필谿谷漫筆』

『현승편玄繩編』에 실려 있는 여러 노老선생이 주고받은 언론을 보니, 강론하고 문답한 부지런함과 우의友誼의 돈독함을 모두 상상해볼 수 있는 바, 지금 세상에는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는가. 율곡의 말씀은 솔직하고 평탄하며, 우계의 말씀은 온화하고 공손하며 간곡하였다. 그리고 구봉龜峯(송익필宋翼弼)은 뜻과 기상이 준엄하고 깨끗하며 몸가짐이 매우 신중하고 언론이 논리적이었으나 왕왕 온당치 못한 부분도 있었다.

『중봉집』

그대는 주 문공의 소학을 보지 않았는가 君不見朱文公小學書
 마음을 수습하여 본성을 기르는 내용이 모두 담겨 있네 收心養性之所於
 한훤당이 별세하고 정암이 돌아가시니 寒暄隕首靜庵喪
 세상에서는 모두 이것을 쓸모없는 물건처럼 여겼네 世皆視此如土苴
 근래에 율곡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 邇來德水有明訣
 반드시 영재들에게 이 책을 먼저 배우게 하였네 必使英才先是書
 훈풍에 준걸스러운 인재들이 나옴을 거의 보게 되었는데 薰風庶見髦乂變
 중도에 별세하니 참으로 서글프네 半道云亡可歎歎
 다행히 파산에 뜻이 같은 노인 있어 坡山幸有同志翁
 사십여 년 동안 이 예를 따랐다네 四十餘年禮率初
 실천하신 것이 모두 이 한 책 속에 있으니 踐履都在一部中
 누추한 시골에서 빈한하게 살았지만 즐거움은 넉넉하였다네
 陋巷簞瓢樂有餘

『수몽집守夢集』

퇴계의 뒤에 율곡과 우계가 동시에 나와 도의道義를 강명講明하여 후학
 들을 계발하니, 그 유풍遺風과 여운餘韻이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배척하
 는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우리들이 의리를 앞세우고
 이해利害를 뒷전으로 여겨 위로 군부君父와 국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은
 이 몇 군자들의 은택이 아니겠는가.

『상촌집象村集』

목릉穆陵(선조)이 즉위하여 맨 먼저 퇴계 이황을 부르니, 이때에 성상은 스스로를 가다듬어 학문에 힘쓰려는 뜻을 두고 있었고 조정에서는 청의 淸議가 막 일어났다. 사서인士庶人들도 이러한 소문을 듣고 모두 흠모하여 선비들치고 성명性命의 이치를 말하고 예모禮貌를 갖추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다가 뒤이어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이 한 세상에 함께 나오니, 비록 원기元氣는 다소 흐려졌으나 풍속이 크게 변하였다. 그러다가 한 분은 별세하고 한 분은 배척을 받게 되자, 세상에 다시는 학문을 말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

일기초본

무인년(1578, 선조 11) 3월 8일에 서울에 있었는데, 이경로李景魯(이희참李希參)가 숙헌叔獻(이이)에게 보낸 답서에 이르기를, “이미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서 남들이 모르기를 바란다면 되겠는가. 자네들은 언제나 이러한 병통이 있네. 사람을 대하여 말할 때에 이미 말을 조심하지 못하고 곧바로 이를 후회하며, 편지를 보내어 누설하지 말라고 당부하나 결국에는 말과 편지가 모두 사람들에게 누설되고 마네” 하였다. 이 말이 비록 지나치나 나도 이러한 폐습을 면치 못하니, 참으로 간절하고 지극한 말이다. 이것을 써서 항상 보고 반성하려 한다.

◎

군자가 스스로 행동하고 남을 대함에 있어 모두 합당한 도리가 있으며

말하고 침묵하며 옳다 그르다 하는 것에는 그에 따른 이치가 있지 않음이 없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그 도리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 남을 책망하는 데 날카롭거나 자신이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평하기를 잘한다면 세상의 화를 범하여 낭패를 당하지 않을 자가 드물 것이다. 내 스스로 시골에서 살고 서울로 올라와 생활한 일을 생각해보니, 자신도 모르게 후회스럽고 부끄러우며 세상의 화에 관련된 것이 많았다. 일에 느낌이 있으므로 붓을 잡고 이것을 써서 경계로 삼으니, 때는 만력萬曆 임오년(1582, 선조 15) 4월 24일이다.



일기책의 끝에 쓰기를 “현자賢者가 산림山林에 거처하면서 스스로 수렵하여 저 세상을 잊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반드시 종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얻는 것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지켜 편안히 여기는 것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남들은 알지 못하는 가슴속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선묘보감宣廟寶鑑』에 기록된 사신史臣의 논단論斷

무술년(1598, 선조 31) 6월에 전 의정부議政府 우참찬右參贊 성흔이 졸卒하였다. 성흔은 자가 호원인데, 타고난 천품天稟이 매우 고상하고 덕기德器가 일찍 이루어졌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착실히 실천하였고, 일찍이 이황을 존모尊慕하여 사숙私淑하였다. 학문은 주자를 기준으로 삼아 강론하여 밝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모두 지극히 하였으며, 본원의

공부에 더욱 부지런히 힘썼다.

이이와 사단칠정과 이기의 선후에 대해 논한 말을 주고받은 것이 수천 자에 이르는데, 선유先儒들이 미처 발명하지 못한 것을 많이 발명하였다. 이이는 일찍이 말하기를, “만약 견해의 조예를 논한다면 내가 다소 나은 점이 있을 것이나 조행操行이 독실하고 확고함에 있어서는 내가 미치지 못한다” 하였다.

처음 학행으로 천거되어 여러 번 직책을 제수하고 불렀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으니, 상이 더욱 소중하게 대우하여 부르기를 마지않았다. 성훈은 강력히 사양할 수가 없어 비록 간혹 도성에 왔으나 항상 오래 머물 뜻이 없었으니, 조정에서 벼슬한 날짜를 계산해보면 1년이 채 못 되었다. 임진왜란 때에 이홍로李弘老에게 모함을 당하여 상의 대우가 점점 쇠해져서 마침내 다시는 부르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파산의 옛집에서 별세하였는데, 배우는 자들이 우계 선생이라 칭하였다.

『계곡집谿谷集』의 비문碑文

내 들으니, 청송의 학문은 정암에게서 나왔는데 선생은 일찍이 가정의 교훈을 받아 착실히 실천하였으며, 또 일찍이 퇴계를 존모하여 사숙하였다. 학문은 주자를 기준으로 삼아 강론하여 밝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모두 지극히 하였으며, 본원을 잡아 지키는 공부에 더욱 부지런히 힘썼다.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집안을 다스리는 예의범절로부터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의 절문節文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를

따라 행하였는데, 한결같이 정성과 공경에 근본하였다. 수양한 지 오래
되자, 덕기가 이루어져 사람들이 바라보면 도가 있는 군자임을 알 수 있
었다. 문장은 경학에 근본하여 명백하고 유창하며 전아典雅하였는데, 문
집 약간 권이 있다.



하늘이 우리 시문을 도와	天旰斯文
철인을 함께 내시니	並生哲人
우계 선생과 울곡 선생은	坡山石潭
덕이 있는 분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어	德則有隣
송나라 때 주자와 장남헌처럼	擬宋朱張
서로 어진 덕으로 도와주었네	相輔以仁
도와 기의 오묘한 진리와	道器之妙
성과 정의 은미한 이치를	性情之微
자세히 묻고 밝게 분별하여	審問明辨
모든 의심 환하게 깨우쳤다네	會通無疑
옛사람이 못 밝힌 것 확충하였고	旣擴前祕
후세의 의문점들 해소시켜주었지	亦徹來蔽
출처가 일정치 않은 것 무슨 마음인가	隱見何心
오직 의리를 따른 것이었다네	惟義之比
힘쓰고 노력하신 선생이여	臺臺先生
밝음을 지니고 정도를 걸으셨도다	含章履貞

매우 어려운 때를 만나	遭時孔難
몸은 곤궁하였어도 마음만은 형통하였지	身困心亨
선생을 알아주는 이 없었으나	人莫我知
하늘은 속일 수가 없는 법	天不容欺
사람이 하늘 이치 어겨 곤액을 당하다가	人勝而陋
하늘의 뜻 정해짐에 회복이 되었다네	天定乃復
이미 회복되었으니	亦既復矣
그 빛 드러나지 않겠는가	不顯其光
백세 뒤를 기다리나니	百世以俟
남기신 글이 휘황찬란하구나	遺文煒煌

하락河洛의 계미년 소

성훈은 산림山林의 은일隱逸로서 도道를 간직하고 스스로 즐거워하였으며, 외물外物을 사모하는 생각이 없이 오로지 고요하게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만 지니고 있었습니다. 진실한 덕이 안에 쌓여 명성이 밖으로 알려지니, 사람들은 그의 출처出處를 보고서 세상이 잘되고 잘못됨을 접쳤습니다. 일찍부터 이이와 도의지교를 맺어 하늘과 인간에 대한 학문과 의義와 이利의 분별을 서로 강론하며 절차탁마하여 그 지취旨趣를 다하고 요체要諦를 맞췄으니, 비록 마음이 같고 덕이 같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충정공忠定公 이귀李貴의 정해년 소

이황이 학문이 풍긴 뒤에 분발하여 나와 창도하자 선비의 기풍이 한 번 크게 변하였는데, 이것을 깊이 알고 독실히 좋아한 자는 오직 이이와 성혼 두 사람뿐입니다. 이황이 별세한 뒤로 두 사람은 도덕이 더욱 높아져 우뚝이 한 세상의 유종儒宗이 되었으니, 지금 사대부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인륜과 예법이 있음을 아는 것은 모두 이황과 이이, 성혼의 공입니다.

포저浦渚 조익趙翼의 을해년 소

성혼은 일찍부터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오로지 고인古人之 학문에 뜻을 두어 산야山野에서 문을 닫고 학문에 침잠하여 진리를 탐구해서 쬐어서부터 늙어서까지 마음과 몸의 일동일정一動一靜을 한결같이 법도대로 따랐습니다. 집에 거처할 때에는 내외의 구별과 장유長幼의 차례와 선조先祖를 받드는 예절에 있어 모두 일정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한결같이 옛 사람을 법으로 삼았습니다. 이이와 도의지교를 맺고 서로 절차탁마하여 덕을 이름에 이르렀으니, 함양涵養하고 체인體認하는 공부가 깊고 지극하여 종일토록 엄숙히 앉아 있는 것이 마치 소상塑像과 같았습니다. 이이는 말하고 웃는 것이 화락하여 배우는 자들이 그래도 친근히 할 수 있었으나 성혼은 배우는 자가 비록 10년을 함께 거처하더라도 더욱 두렵게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

조헌趙憲은 행실이 뛰어났으니, 또한 백세百世의 스승이라 할 수 있습

니다. 나이가 성헌과 비슷하여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도 평생 동안 매우 정성껏 스승으로 섬겼으니, 여기에서도 성헌의 덕행이 높아 사람을 감복시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남市南 유계兪榮의 임인년 소

성헌의 학문은 가정에서 얻어 연원淵源이 매우 바릅니다. 인품이 장중莊重하고 순수하여 겉과 속이 한결같았으며, 출처와 어묵語默을 모두 성현을 본받아 덕기가 성취되어 우뚝이 사림의 영수가 되었으니, 바로 상서로운 기린과 봉황이 당세에 의표가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청음집淸陰集』

만력萬曆 계미년(1583)은 소경왕昭敬王(선조) 16년이였다. 이때 선비들이 유학을 숭상하고 사기士氣를 진작시켜 나라가 편안하게 된 아름다움이 옛날보다 빛났는데, 이때 울곡 이 문성공文成公과 우계 성 문간공文簡公이 학문을 강론하고 이치를 밝혀 성대하게 유림의 사표가 되었다. 이에 선함을 좋아하는 선비들이 다투어 사모하여 스승을 높이고 도를 호위하는 데 뜻을 두지 않는 이가 없었다.

중봉어록重峯語錄

마음이 통달하고 깨끗하며 도道を 봄이 분명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심취해서 자연히 보고서 감동하는 유익함이 있게 하신 분은 울곡 선생이요,

법도를 삼가 지키고 학문하는 순서가 매우 엄격해서 일상생활의 언행이 모두 본받을 만하므로 문하에 있는 자로서 비록 재주가 둔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소득이 있게 하신 분은 우계 선생이니, 그 기상을 논하면 명도明道와 이천伊川이 서로 다른 것과 같았다.

『노서집鷲西集』

“우계와 율곡 두 선생은 타고난 기질이 같지 않았으므로 성취한 덕도도 달랐으니, 그 기상을 상상해보면 하남河南의 두 정 부자程夫子와 같은 듯하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율곡은 먼저 천리天理를 통달한 곳으로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배움에 있어 의거할 곳이 없으나 우계는 일일이 법도를 따랐기 때문에 배움에 있어 자취가 있으니, 바로 정자程子가 안자顔子와 맹자孟子를 논한 것과 같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율곡은 견해가 뛰어났으나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계를 추존하여 말씀하기를 ‘우계가 아니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하였다. 그러므로 계미년에 특별히 우계를 천거하면서 ‘국가의 경륜經綸을 맡길 수 있다’고 말씀하였으니, 덕이 같은 분들끼리 서로 허여함이 이와 같았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율곡의 말씀은 고명高明하고 통달한 반면 우계의 말씀은 질박質朴하고 정엄精嚴하니, 그 글을 고찰하면 모두 볼 수가 있다” 하였다.



도덕의 조예에 대해 우계와 율곡 두 분이 각기 품평한 것이 있다. 율곡은 말씀하기를, “우계는 경륜을 맡길 수 있다” 하였고, (계미년 추천한 글

에 보인다) 선생은 말씀하기를, “율곡은 삼대三代의 인물이다” 하였다. (연보의 갑신년 조에 보인다) 율곡은 반드시 선생과 함께 정도正道를 지키려 하였고 선생은 율곡이 반드시 큰 임무를 맡을 것을 기약하여, 인품의 고하高下와 학문의 천심淺深에 대해 오직 율곡만이 선생을 알았고 선생만이 율곡을 알았으니, 사암思菴(박순朴淳) 이하는 모두 여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증봉이 병술년(1586, 선조 19)에 올린 상소문에, “성혼의 아름다운 덕과 준엄한 행실, 충직한 말과 훌륭한 계획은 실로 군주의 덕을 바로잡고 백성들을 보호한 점이 있습니다” 하였으니, 이는 직접 선생의 덕을 보고 심복心服한 말이다. 이발李潑이 을유년(1585, 선조 18)에 아뢰기를, “세상에서는 도학道學으로 성모成某를 추존하고 있는데, 명성의 높음은 또한 이모李某(이이)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하였으니, 이는 여러 소인배들도 스스로 선생을 존모尊慕할 줄 안 것이다.

◎

우계 선생은 학문의 문로門路가 올바르고 평생 진퇴進退의 의리가 순수하여 한결같이 옛 성현으로 법을 삼았으니, 우리나라 선유 중에 이런 분은 없었다. 이는 내가 좋아하여 아첨하는 말이 아니니, 후세에 주자와 같은 분이 있다면 반드시 단정하여 말씀할 것이다.

◎

옛날 묵암默庵 선생이 우계에서 도를 강론할 적에 근본과 진실을 위주로 하고 부화浮華함을 생략하며 도의를 앞세우고 문예를 뒤로하여, 언제나 문막오유文莫吾猶의 탄식이 있었으며, 사람을 가르칠 적에는 공자의

‘선진先進을 따르겠다’는 유의遺意를 취하였다. 이 때문에 문하의 선비들이 비록 각각 재주와 식견의 높고 낮음에 따라 조예에 깊고 얇은 차이가 있었으나 말을 조심하고 행실을 힘쓰는 것이나 외면을 가볍게 여기고 내면을 중시하는 것이나 자기 몸에 돌이켜 간략함을 지키고 남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는 것은 모두 그렇게 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

대저 파문坡門의 제공諸公들은 모두 겸양하는 것을 도리로 여긴 나머지 스스로 스승의 말씀을 기술하여 어록에 드러낸 자가 없다. 그리하여 우리 후생들이 상고하여 믿을 것이 없게 되었으니, 이는 사문師門의 유법遺法이 오로지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도를 주장한 데에서 연유하여 그러한 것이다.

◎

우계 선생이 일찍이 『위학지방爲學之方』을 초록抄錄하였는데, 초록한 내용은 비록 많지 않으나 옛사람들이 학문한 본말本末이 모두 구비되어 있고 경敬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 표리表裏가 친절하니, 선생이 직접 공부하신 것도 이 책을 살펴보면 거의 알 수 있다. (처음 배우는 자는 먼저 『위학지방爲學之方』과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

『남계집南溪集』

우계 선생은 정암 조 문정공文正公의 학문을 선친인 청송공에게서 배워 파평산 속에서 강학을 통해 전수하였다. 그리고 율곡 이 문성공과 서로

학문을 강론하여 봉우 간에 유익하게 함이 더욱 지극하였으니, 문로의
올바름과 실천의 독실함이 우리나라 유현儒賢 중에 혹시라도 이보다 앞
설 분은 있지 않다.

◎

묵암默庵 성 선생은 집안에서 정확正學을 전수받고 우계에 은거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충신忠信과 독경篤敬을 진덕수업進德修業하는 방법
으로 삼고 경전의 뜻을 강론하는 것으로 보조하였다. 그분은 말씀이 평
실平實하고 정확하여 절대로 신기하거나 고묘高妙한 경향이 없었으며 저
술하거나 말하는 것을 더욱 경계하였으니, 이는 또한 송宋나라의 명현인
호안정胡安定(호원胡瑗)과 윤화정尹和靖(윤돈尹焞)의 유풍遺風에서 나온 것이
였다.

◎

우계 성 선생의 『위학지방』은 오로지 회암晦庵의 글과 말씀을 취하여
배우는 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거경居敬과 궁리窮理의 공부에 있어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 책은 초학자들이 공부하는 과정을 논한 것
이 십분 분명하고 간절하여 공부하기가 쉽다)

◎

근간에 우계 선생이 만든 이 책 『송계원명리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을
손수 비점批點하고 표주標註하기를, 대략 퇴계의 『주서절요朱書節要』와 같
이 하였다. 이 책이 세상에 유포된 지 이제 100년이 넘었으나 독실히 좋
아하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오직 선생이 일찍이 표장表章

하여 후학의 표준으로 삼았으니, 학문을 좋아하는 마음이 상대하다고 이를 만하다. (금상수상은 이러한 본본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호남 지방에 명하여 발간하게 하였는데, 한결같이 선생이 비점한 것을 따라 판각板刻하게 하였다)



근세에 여러 선생들 중에 퇴계와 우계보다 더 병이 많은 분은 없는데, 병 때문에 학문에 힘쓰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하였다. 심지어는 아픈 가운데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말씀하기를, “마음을 고르게 간직하고 조금씩 수습收拾하라” 하였고, 또 말씀하기를, “처음 배우는 자의 요점은 반드시 먼저 몸과 마음을 수습하고 정신을 보호하여 마음을 전일專一하고 안정되게 함으로써 뜻과 기운이 항상 깨끗하여 의리가 밝게 드러나게 해야 한다” 하였으니, 이 어찌 아픈 가운데 공부하여 힘을 얻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답성지선서답成至善書

배우는 자가 처음 공부하는 방법은 그 가르침이 한두 가지가 아니나 우계 노老선생이 한형중韓瑩中과 홍선응洪善應에게 답한 몇 장의 편지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으니, 이는 바로 귀문貴門에서는 예사로운 일일 것이다. 이것으로 학문을 강론하고 몸과 마음을 잡아 지킨다면 딴 것을 구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독서하는 방법에 있어 내 어찌 그대의 요구에 바로 부응하고 싶지 않겠는가. 내 일찍이 우계 선생에게 들은 것이 있으니, 선생께서 어떤 사람에게 답한 글에 이르기를, “성현이 남기신 가르침이 방책方冊에 갖추어져 있는데, 지금 사람들의 말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이미 잘못된 견해이다. 더구나 한 번 말하는 사이에 어떻게 사람을 깨닫게 하고 계발시켜 오래도록 변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하셨으니, 나는 이 때문에 그대의 요청에 감히 곧바로 말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

근세에는 교우하는 도가 시종 변치 않는 자가 매우 드무니, 오직 율곡과 우계 두 선생만이 계실 뿐이다. 율곡은 어릴 때부터 신동이였으며 장성해서는 학문과 문장이 한 세상에 크게 알려졌는데, 세상사람 중에 뜻이 합치되는 자가 없었다. 오직 우계의 덕행과 출처가 자신보다 낮다 하여 마침내 조정에 강력히 천거하였고 종신토록 의의가 변치 않았다.

『우계연보부록』

신도비명神道碑銘 병서并序 _ 좌의정 김상헌金尙憲

선생은 휘가 혼이고 자가 호원이며 성이 성씨이니, 창녕인이다. 선고 휘수침은 은거하고 도학을 강명하여 여러 번 불렀으나 나오지 않았는데, 별세하자 사헌부 집의에 추증하니, 세상에서 칭송 선생이라 칭한다. 조

고 휘 세순은 지중추부사로 시호가 시숙공이며, 증조 휘 충달은 현령으로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성씨는 고려 때 유명한 성씨(姓氏)가 되었는데, 중운 인보로부터 더욱 크게 현달하였다. 4대를 전하여 여완에 이르러 본조(本朝)에 들어와 부원군이 되었으며, 석인을 낳으니 예조판서였고, 역을 낳으니 좌찬성이었고, 득식을 낳으니 한성부윤이었으니, 선생에게 고조가 되신다. 대대로 아름다움을 계승하여 유명한 분과 덕망 있는 분을 탄생하였다. 선비(先妣)는 파평 윤씨인데 가정 을미년(1535, 중종 30) 6월 25일 선생을 낳았다.

선생은 천품이 독실하고 민첩하여 저절로 도에 가까웠으며 거처하는 집을 묵암이라 호하여 스스로 경계하였다. 처음 청송이 조정암의 문하에 종유하여 올바른 학문을 얻어들었는데, 선생은 가정에서 배워 도를 들음이 매우 빨랐다. 일찍이 한 번 과거에 응시하여 초시에 합격하였으나 병환 때문에 복시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마침내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위기지학에 전념하였다. 평소 조정암과 이퇴계를 높이고 사모하였으며 위로 거슬러 올라가 고정(考亭)을 표준으로 삼았다. 이때 율곡이 문성공이 또한 도학으로 자임(自任)하여 서로 함께 의리를 강명하여 조예가 더욱 깊으니, 한 시대의 선비들이 모두 귀의하여 우계 선생이라 칭하였다. 얼마 후 도신(道臣)이 학행이 탁월하다고 아뢰어 두 차례나 참봉에 제수되었으며, 얼마 안 되어 6품직으로 뛰어올라 적성현감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사랑에서 배우러 와서 따르는 자들이 더욱 많으니, 선생은 이들을 가르

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서실의書室儀를 게시하여 제생들로 하여금 따라서 행할 바를 알게 하였다. 산서散署의 서장署長과 여러 사원寺院의 관료와 부장관, 공조의 좌랑과 정랑에 여러 번 제수되었으며, 그 사이에 소명을 받고 한 번 경성京城에 갔다가 상소문을 올리고 즉시 돌아온 적도 있다. 시헌부의 관원에 제수된 것은 지평으로 부른 것이 열 번 남짓이었고 장령으로 부른 것이 두 번이었으며, 편안한 수레로 길에 오르도록 명하기까지 하였으나 모두 굳이 사양하고 봉사叢事를 올려 선을 따르고 학문을 주장하는 방도를 아뢰었다.

선생은 성품이 겸손하고 신중하여 이렇게 관직에 제수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나 그 실재는 자연 엄폐할 수가 없으므로 조정의 신하들이 많이 성상께 아뢰었다. 성상은 이 문성공에게 묻기를, “성모의 어짊을 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으나 다만 그의 재주가 어떠한가?” 하니, 이 문성공은 대답하기를, “홀로 경제제민經世濟民의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는 신이 감히 알 수 없으나, 사람됨이 선품을 좋아하니 선을 좋아하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도 충분합니다. 다만 병이 많아 사무가 많은 부서를 맡기기가 어려우니, 한가로운 부서에 두어서 경연經筵에 입시하게 하면 반드시 성상의 덕을 돕고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신사년(1581, 선조 14) 종묘서영에 임명하였는데 부르는 뜻이 정성스럽고 간곡하였다. 선생이 병을 무릅쓰고 서울에 들어오자, 성상은 의원을 보내어 문병하고 약물을 하사한 다음 편전便殿에서 인견하여 치도治道의 요체를 물었다. 이에 대답하기를, “임금은 반드시 먼저 몸과 마음을 수습

하여 마음과 기운을 항상 맑게 하면 근본이 서서 의리가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였으며, 또 아뢰기를, “나라가 다스려지고 혼란해짐은 일정함이 없어서 오직 임금의 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진 보필을 얻고 훌륭한 인재를 널리 수합하여 여러 지위에 두면 훌륭한 정치와 교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오늘날 조정의 인재는 어떠한가?” 하고 묻자, 대답하기를, “몸을 용납하여 지위만 보전하려는 자가 많고 임금을 올바른 도리로 인도하는 자가 적으니, 이는 우려할 만합니다” 하였다. 또 백성을 구제할 계책을 묻자, 대답하기를,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하고 위에서 덜어 아래에 보태주어야 하니, 이는 인심을 굳게 결속시켜 하늘에 영원한 명을 기원하는 근본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선생은 물러 나와 글을 올려 다시 이 내용을 지극히 말하였으나 상은 상소문을 오랫동안 내려보내지 않았다. 승정원과 옥당에서 이 상소를 대신들에게 보일 것을 청하자, 비답하기를, “상소문 중에 학문을 논한 일 등은 내마땅히 살펴야 하겠으나 다만 국가의 제도를 모두 변경하려 하였으니, 이는 또한 행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뒤에 인대할 때에 다시 예전의 말씀을 거듭 아뢰었다.

선생은 일찍이 ‘조종(祖宗)의 훌륭한 법이 연신군 때에 모두 파괴되고 어지러워졌는데 아직도 다 개혁되지 못한 것이 있으니, 이것을 변통해야 비로소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시세가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위태로운 정국을 바꾸어 편안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요, 옛 법도를 모두 바꾸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 문성공과 서로 의견이 합차

여 또한 여러 번 이것을 개진하였으나 끝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상이 선생이 녹봉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특별히 쌀과 콩을 하사하자, 선생은 간곡히 사양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구휼하면 받는 것은 옛날의 도이다” 하니, 선생은 부득이 받아서 모두 친척과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대신이 선왕조先王朝의 고사故事를 따라 경연직을 겸임하게 하여 입시하게 할 것을 청하자, 상은 허락하지 않고 다시 위급함을 구원하라는 명을 내렸다. 선생은 사양하고 받지 않고는 여러 번 상소하여 물러날 것을 청하고 교외로 나가 명을 기다렸다. 상은 어찰御札로 소환하고 인견하여 머물 것을 권고하였으나 선생은 더욱 강력히 간청하였다. 이에 상은 비로소 잠시 돌아갔다가 겨울을 나고 서울로 올라올 것을 허락하였다. 집의와 여러 시숙의 정正에 제수하였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다음 해 봄에 이 문성공이 병조의 장관長官이 되어 선생에게 경륜하는 일을 맡길 만하다고 친거하자, 상은 특별히 병조참지를 제수하였다. 그리고 하교하기를, “병조판서가 바로 그대의 친구인데 그대를 참지로 발탁하였으니, 어찌 뜻이 없겠는가. 마음을 함께하고 덕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일이다” 하였다. 부르는 명을 여러 번 내리자, 선생은 억지로 서울에 들어갔는데 옮겨 이조참의를 제수하고 은대를 하사하였다. 선생이 세 번 상소하여 사직하자, 본직本職을 체직하도록 허락하고는 그대로 경연에 입시하고 물러나 돌아갈 계책을 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이 문성공이 정사를 담당하여 중외의 축망을 받고 있어서 실로 국운을 만회할 기미가 있었으나 소인배들이 틈을 타 논죄하고 탄핵하여 지위에 편안

히 있지 못하고 떠나가게 하였다.

선생이 상소하여 그들의 모함과 날조를 밝히자, 소인배들은 더욱 노여워하여 선생까지 함께 탄핵하였다. 선생이 당일로 도성을 나와 파산으로 돌아오니, 이에 대학생 및 호남과 해서의 유생 수백천 명이 글을 올려 구원하였다. 이에 상은 칭찬하여 답하고, 또 하교하기를, “만일 군자라면 당黨이 있음을 걱정하지 않으니, 나는 이이와 성혼의 당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고는 마침내 간당奸黨 중에 심한 자를 배척하여 쫓아내고 특별히 이 문성공을 총재冢宰로 임명한 다음 다시 선생을 이조참의로 불렀다. 얼마 후 이조참관으로 승진되자 다섯 번 상소하여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니, 선생은 들어가 사은하였다.

갑신년(1584, 선조 17) 1월 이 문성공이 별세하자, 선생은 도가 행해지지 못할 줄을 알고 더욱 세상일에 뜻이 없어 연달아 글을 올려 해직을 요청하니, 상은 비답하기를, “새로 어진 재상을 잃어 잠을 자도 잠자리가 편안하지 못하다. 현재 경과 함께 국사를 다스릴 것을 도모하니, 이 어찌 물러나겠다고 아될 때이겠는가” 하였다. 몇 달 있다가 휴가를 받아 분황焚黃할 것을 청하자, 상은 하교하기를, “성모가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고 도를 지키며 은거하여 지조를 지켰는데, 내가 여러 차례 부름으로 인하여 마음을 바꾸어왔다. 내 잠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였는데 이제 해가 저물어가니, 마땅히 지방의 수령으로 하여금 안부를 묻게 하라” 하였다.

다음 해에 국국을 설치하고 『소학小學』을 교정校正하였는데, 선생을 부

를 것을 청하자 이를 윤택하였다.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으나 세 번 사은만 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이 문성공이 별세하자 세상일이 크게 변하였다. 여러 소인배들이 점점 등용되어 더욱 옛 원한을 갚으려 하였다. 이들은 선생이 다시 기용될까 두려워한 나머지 추악한 말로 모함하여 비방하니, 선생은 상소하여 스스로 탄핵하였다. 기축년(1589, 선조 22) 겨울에 다시 이조참판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때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이 일어나자, 상이 하교하기를, “국가에 큰 변고가 있으니, 경이 물러나 산중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였으므로 선생은 마침내 조정으로 달려갔다.

상이 직언直言을 구하므로 마침내 상소문을 초하여 앞서 말했던 백성을 잘 길러 나라를 보전할 계책을 아뢰려 하였는데, 마침 큰 병이 나서 다음 해 여름에야 비로소 이 상소문을 올리고는 인하여 시골로 돌아갈 것을 청하고 돌아왔다. 태학의 여러 생도들이 선생을 머물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은 답하지 않았다. 행상倖相이 궁중宮中과 결탁하여 유언비어를 선동하고 날조하였다. 신묘년(1591, 선조 24) 봄에 사화가 일어났는데, 이에 관련되어 귀양 가거나 폄출貶黜당한 자는 모두 선생의 친구들이었다. 여러 소인배들이 이때를 틈타 기어이 선생까지 함께 몰아넣으려 하니, 선생은 더욱 스스로 물러나 은거하였다.

임진년(1592, 선조 25)에 왜구가 깊이 쳐들어오자, 상이 장차 서쪽으로 파천播遷하려 한다는 말씀을 듣고는 도성으로 들어가 국난國難에 달려가려 하였으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본래 산야에서 일어나 봉당을 한다는 죄목

을 입어서 불원간에 장차 죄를 받을 것이니, 국가에 비록 위급한 일이 있으나 의리상 감히 가볍게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 대가가 만약 서쪽으로 행차하시게 되면 마땅히 길가에서 곡하며 맞이할 것이니, 만일 성상의 고문顧問을 입는다면 대가를 따라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오직 물러나 구학溝壑에서 죽을 뿐이다' 하였다. 그런데 뜻밖에 하룻밤 사이에 대가가 갑자기 출발하니, 선생이 거주하는 곳은 큰길과 수십 리의 거리였다. 대가가 임진 나루를 건너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이미 강나루에 배가 끊겨 통행하지 못하였고, 왜병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 선생은 마침내 통곡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산중으로 피난하였다. 광해군이 이천伊川에 머물면서 글을 내려 불렀으나 병환이 심하여 즉시 가지 못하고 차자箠子를 올려 군무軍務를 아뢰었다. 광해군이 편의대로 검찰사檢察使를 제수하고 말을 보내어 재촉하여 불렀다. 이때 왜적이 산골짜기로 두루 들어와 더욱 노략질과 살인을 자행하였다. 광해군이 급히 성천成川으로 옮기니, 선생은 어렵사리 성천에 도착하여 광해군을 뵈고 즉시 의주에 있는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갔다. 도중에 참찬에 제수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며, 다시 대사헌으로 바뀌었다.

선생은 상소하여 자신의 죄를 논열論列하고 인하여 장수를 선발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군량軍糧을 모으는 등의 계책을 아뢰었다. 그리고 또 아뢰기를, “적국敵國의 외환外患을 전적으로 천운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옛날 제왕들은 변고를 만나면 혹 조서詔書를 내려 자책하여 존호尊號를 삭제하고 혹 나라를 그르친 신하들을 처벌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개과천선하는 뜻을 분명히 알게 해서 국가의 흥복興復을 도모하
 였습니다. 이제 마땅히 큰 뜻을 분발하시어 통렬히 자책하며, 좌우에서
 모시는 자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일과 궁인宮人들이 정사에 관여하는 단
 서를 끊고, 정직한 선비를 등용하여 이목耳目의 임무를 맡기신다면 인심
 이 크게 기뻐하고 복종하여 원수인 왜적을 멸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보는 자들은 화의 짝이 이 상소문에 있을 줄을 알았다.

명나라 주사主事인 원황袁黃이 찬획贊畫으로 와서는 편지를 보내어 학
 문을 논하면서 오로지 아호鵝湖를 주장하고 낙민洛閩을 배척하였다. 그
 는 평소 뜻이 높고 거만하였으므로 제공諸公들은 그의 뜻을 거스르려 하
 지 않아 답장하는 것을 어렵게 여겼다. 그리하여 선생에게 맡겨 답서를
 쓰게 하자, 선생은 “소방小邦은 황조皇朝에서 반포해준 경서 전주經書傳
 註와 성리性理에 관한 책들을 외고 익혀서 이 학설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여깁니다” 하니, 원황은 다시 논란하지 못하였다. 여러 번 참찬과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나 번번이 사양하고 산반散班에 나아갔다.

왜적이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을 도굴하자, 명을 받들고 재신宰臣들과 봉
 심奉審하였는데, 일을 생각하고 의심스러운 것을 결정할 적에 모두 선생
 을 추존하였다. 선생은 해주海州에 복명復命하였다. 대가가 도성으로 돌
 아왔으나 선생은 병 때문에 남아서 중전中殿을 호위하였다. 호서湖西의
 토적土賊이 크게 일어나자, 선생은 병환을 무릅쓰고 상경하여 글을 올려
 대죄하였는데, 성상의 어찰御札에 변란變亂의 초기의 일을 들어, 말씀한
 내용이 매우 준엄하였다. 처음 상이 서쪽으로 파천할 때에 임진 나무에

이르러서 이홍로李弘老에게 “성모의 집이 먼가 가까운가?” 하고 물으니, 이홍로는 본래 행상倖相의 문객門客이었는데, 길가에 있는 정자와 집을 아무렇게나 가리키며 “저곳이 성모의 집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와서 나를 만나보지 않는가?” 하니, 이홍로는 아뢰기를, “이런 위급한 때에 어찌 그가 기꺼이 와서 뵈겠습니까?” 하였다. 그리고 의주에 있을 적에 선생이 분조分朝에서 행재소로 달려온다는 말을 듣고는 다시 모함하는 말을 올리기를, “성모가 이번에 오는 것은 세자를 위하여 내선內禪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였다. 상은 이미 여러 번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므로 이때에 이러한 분부가 있었던 것이다.

선생은 감히 스스로 변론하지 못하고 중한 처벌을 내리기를 원하였는데, 상은 다시 위로하여 타이르는 말씀을 내렸으나 선생이 진달陳達한 것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적이 영남의 10여 개 고을을 점거하고 소굴로 삼으니, 명군明軍은 오랜 전쟁에 지치고 피로하여 나아가 점령하지 못하였다. 일을 맡은 명나라의 여러 신하들은 뒷일을 잘할 계책이 없으므로 왜적이 화친을 청한다고 핑계 대니, 황제에게 올린 일 중에 황제를 속이고 은폐한 사실이 많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글을 올려 그 내용을 고발하자, 이 때문에 총독摠督 고양겸顧養謙은 크게 원한을 품고 자문참文을 보내어 우리나라로 하여금 자신의 뜻에 따라 상주奏하게 하였다. 상은 그들의 헐박을 받고는 진실로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하였으나 우선 이 일을 의정부에 회부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승 유성룡柳成龍이 국정을 담당하였는데, 뜻을 굽혀 고양겸의 자문

을 따르려고 하여 선생과 함께 들어가 상께 대답하기로 약속하였다. 선생은 ‘우리가 국가를 회복할 수 있는 큰 계책은 오직 중국 장상將相들의 마음을 잃지 않는 데에 달려 있으니, 그들의 뜻에 다소 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상의 앞에 이르러 이와 같이 대답한 것인데, 상이 매우 불쾌해하니, 유 정승은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다가 그대로 물러나왔다. 조정에서는 마침내 고양점의 지시에 따라 황제에게 글을 아뢰었으나 상의 뜻은 화의를 주장했다 하여 선생을 허물하였다. 삼사에서 서로 글을 올려 화의를 배척하니, 이는 그 의도가 선생에게 있었다. 선생은 마침내 죄를 이유로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왔다.

정유년(1597, 선조 30) 가을에 다시 왜적이 쳐들어오니, 도성이 위급하였다. 친구들이 대부분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어 국난에 달려갈 것을 권하였으나 선생은 나아가기 어려운 의리를 가지고 답하였으니, 이 내용은 본집本集에 자세히 보인다. 선생의 출처는 한결같이 도의를 따라 혹 부르는 명이 있어도 가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일찍이 부르는 명이 없이 스스로 간 적이 없었다.

무술년(1598, 선조 31) 여름에 병환이 위독하자, 아들 문준에게 유명遺命하기를, “내 군부君父에게 죄를 얻어 마음속의 일을 밝히지 못하니,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삼베옷을 입히고 종이 이불로 염습하여 소달구지에 싣고 고향에 돌아가 장례할 것이며, 묘 앞의 비석에 ‘창녕성모지 묘昌寧成某之墓’라고만 써서 자손들로 하여금 나의 무덤이 있는 곳을 알게 하면 된다” 하였다. 6월 6일에 파산서실坡山書室에서 별세하니, 향년

이 64세였다. 이해 모월 모일에 파산의 향양리向陽里에 있는 유향西向의 산 청송 선생의 묘소 뒤에 장례하였다. 선생이 별세한 뒤에도 소인배들은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기를 오히려 그치지 않았다. 신축년에 정인홍은 자기의 무리들을 시주하여 상소하여 선생이 최영경을 모함하여 죽었다고 무함하고 비방하게 하였다.

경인년에 최영경은 도신道臣의 은밀한 장계로 인하여 체포되었는데, 이때 선생은 조정에서 이미 물러 나와 있었다. 선생이 정승 정철鄭澈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가 평소 효도하고 우애하였으니 이러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자, 정 정승은 궁중에 들어가 선생의 말씀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에 성상의 뜻이 풀려 석방되었는데, 뒤에 탄핵하는 글을 만나 다시 옥에 갇혔다가 죽었다. 이때 여러 소인들은 도리어 선생이 최영경을 모함하여 죽었다고 말하니, 선조는 어필로 ‘모함하여 죽었다(構殺)’는 두 글자를 삭제하였으나 끝내 관작을 추탈追奪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유림의 사기가 크게 꺾였다.

금상이 즉위하자 오공吳公 윤겸允謙과 이공李公 정귀廷龜가 선생이 무함을 받은 내용을 아뢰었다. 상은 또한 평소에 선생이 대유大儒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즉시 관작을 복구하도록 명하였으며, 얼마 후 의정부 좌의정을 추증하고 문간文簡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제생들은 파산에 서원을 세워 청송 선생과 함께 제향하고 있다. 나는 늦게 태어나서 비록 미처 수업하지는 못하였으나 어릴 때부터 선생을 태산처럼 우러러 사모하였다. 삼가 선배와 장자長者에게 들으니, 선생은 효성이 천성에서 우러나왔다. 청

송 선생이 일찍이 병환이 위독하자, 넓적다리의 살을 베어 약에 섞어 올려서 몇 달 동안의 수명을 연장하였으며, 상을 당하자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고 상례의 절문을 모두 『소학』과 『가례』를 따라 행하였다.

선생은 평소 몸을 수렴하고 단속하여 말솜과 행실이 모두 모범이 될 만하였다. 학문과 실천에 있어서는 후학들이 엿보고 측량할 수 있는 바가 아니나 기상이 장중하면서도 편안하고 온화하여 바라보면 사람들이 도덕군자임을 알 수 있었다. 율곡과 사단칠정의 이기 선후에 대한 내용을 논변하여 왕복한 편지가 수천만 자에 달하는데, 선유先儒들이 미처 발명하지 못한 내용이 많다. 율곡은 일찍이 칭찬하기를, “견해의 도달한 경지는 내 다소 나은 점이 있으나 조행操行의 독실하고 확고함은 내가 미치지 못한다” 하였으며, 선생 또한 말솜하기를, “율곡은 참으로 나의 스승이다” 하였다. 선생은 평소 책을 읽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일삼았으며, 저술하고 글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집 안에 문집 약간 권이 보관되어 있으니, 행여 후세에 덕을 이는 선비를 기다리고 의심하지 않는다.

아, 선생은 스스로 산림山林을 지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는 뜻을 두지 않았으나 우리 선조宣祖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덕이 같은 현자가 서로 추존하므로 부득이 세상에 나왔는데, 평소의 포부를 펴지 못하고 여러 모함하는 말들이 집중되어 끝내 낭패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현명한 군주가 선행을 좋아하고 현자를 좋아하는 정성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세상을 경륜하고 백성에게 은택을 입히려던 본래의 뜻이 행

해지지 못하게 되었으니, 도가 장차 폐지되는 것이 천명이라는 말이 어찌 사실이 아니겠는가. 유현儒賢이 훌륭한 세상을 만남은 예로부터 보기가 드물었다. 우리 조선조에 기묘년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시기였으나 간신들이 모함하여 사림의 지극한 애통함이 되었는데, 선생이 만난 환경이 불행히도 이와 같았는바, 다만 화를 당함에 다소 경중輕重이 있을 뿐이다. 옛말에 ‘하늘의 인자하지 못함이 심하다’ 하였는데, 이 또한 이 때문에 이런 말을 하였는가 보다. 그러나 도맥道脈을 잇고 올바른 학문을 전수하여 드높이 백세百世의 훌륭한 스승이 되었으니, 등용되고 버려지며 휘방하고 칭찬함에 따라 더 보태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부인 고령 신씨는 군수 여량汝樑의 따님인데 2남 2녀를 낳았다. 문영은 일찍 죽었고 차남 문준은 현감이며, 장녀는 별좌 남궁명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대사간 윤희에게 출가하였으며, 측실의 아들은 문잠이다. 문준은 3남을 두었는데, 장남은 역이고 다음은 익과 직이며, 딸은 세 명을 두었다. 남궁명은 2남 3녀를 두었고 윤희는 5남 2녀를 두었는데, 내외의 손자가 매우 많아 다 기록하지 못한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도가 천하에 있어	道在天下
드러나고 은미함이 시기가 있네	顯微有幾
훌륭하신 청송 선생이여	思皇聽松
일찍 훌륭한 스승을 얻으셨네	早自得師
선생은 이를 이어	先生接之

올바른 학문을 들었다오	正學是聞
마음을 가리앉히고 힘써 구하여	潛心力求
하늘이 사문을 도왔네	天與斯文
덕은 반드시 이웃이 있으니	德必有隣
군자와 함께하였다오	君子同人
정밀하고 엄격하고 치밀하며	精嚴縝密
고명하고 통달하였네	高朗洞達
이기의 묘함을 연구하고	妙窮理氣
사단 칠정을 논하였다오	商論四七
은미함을 개발하고 지극한 경지에 나아가	發微造極
과녁을 깨뜨리고 얼음처럼 풀렸네	的破氷釋
이미 선현의 밝음을 이었고	既紹前明
또한 후생들의 몽매함을 열어주었다오	亦啓後蒙
구고에 명성이 알려지니	九臯聖聞
하물며 자기가 사는 고을에 있어서라	矧惟在邦
비록 맞이하여 등대함을 입었으나	雖被延登
때가 매우 어려웠네	孔艱厥時
아, 저 거짓말하는 간신들이여	嗟彼奸罔
참소하는 말로 비방하고 속였네	讒言詆欺
무릎에 올려놓을 듯 못에 빠뜨릴 듯하니	加膝墜淵
옛 현자들이 탄식한 바라오	昔賢所歎

사람이 죽고 도가 버려지니	人亡道廢
어찌 천운이 아니라고 말하겠는가	孰云匪天
운수가 다하면 이치가 돌아와	數窮理復
고리를 따라 돌 듯하니	若循環然
선생의 도가	先生之道
이제 빛난다오	於今有光
소자는 뜻은 크나 소략하여	小子狂簡
참람하게 명문銘文을 지었네	僭述銘章
큰 묘에 비석을 세워	碑于大隧
무궁한 후세에 밝히노라	用昭無疆

『선조실록』 8권, 선조 7년(1574) 2월 29일(갑술) 세 번째 기사

이이가 공안의 개정, 성혼의 인물됨, 현지를 격외로 대우해야 함을 아뢰다

상이 이이에게 이르기를, “한·漢 문제文帝가 어찌하여 가의賈誼를 쓰지 않았는가?”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한 문제가 비록 현명하기는 했지만 지취志趣가 고매하지 못했기에, 가의의 말을 듣고서 큰 의심이 나서 쓰지 않은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란 큰

뜻이 있는 다음에야 큰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주인은 두어 칸의 작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사工師는 큰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공사의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하고, 이어 이이가 아뢰기를,

“요사이 재변이 자주 일어납니다. 만일 지금이 무도한 세상이라면 성명聖明께서 위에서 항시 다스리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할 것이고, 만일 도道가 있는 세상이라면 민생의 곤궁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참으로 장차 어지러워지기 전에 다스려야 할 때이므로 단지 공구 수성恐懼修省한다고만 말하고 실상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요사이 전교가 참으로 훌륭하기는 하지만 실효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하면 실효가 있겠는가?”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상께서 매양 변통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시기 때문에 끝내 실효가 없었습니다. 경장更張하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종祖宗의 법이 아니라면 경장하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조종 이래의 법을 모두 고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안貢案 같은 것에 있어서는 곧 연산燕山 때에 늘려 정해 놓은 것이지 조종의 법이 아닙니다. 신이 경장하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들이 병든 것을 구제해주

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국정을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바로 잡지 않는다면 현명한 사람을 구한들 어디에 쓰겠습니까. 요사이 상께서 노수신에게 은총을 베푸시는데도 노수신이 병을 핑계하고 나오지 않으니 이는 역시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노수신이 젊어서부터 훌륭한 명성이 있어서 아직 정승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당시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이 정승이 된다면 태평한 세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었는데 정승 자리에 있으면서는 별로 건명建明한 것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직분을 다하지 못한다고 비웃게 되었습니다. 노수신이 건백하려고 하면 상의 마음은 변통하지 않으려고만 하시어 진퇴가 지극히 어려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물러나기를 청한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우스운 일이다. 이 사람이 건백한 것은 내가 들어주지 않은 것이 별로 없다.”

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

“이 사람이 경제經濟할 재주가 있는지는 신이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속雅俗을 진정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넉넉히 헤갈 것이니, 상께서는 그가 물러나는 것을 윤택하지 마소서.”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이속을 진정시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역시 학문이 있는 사람인데 임금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뿐이다.”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어찌 그런 것이겠습니까. 물리나는 것을 윤택하지 마시고 그의 말을 들어주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그의 뜻을 보니 역시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옛적부터 성현들은 때를 따라 변통해왔습니다. 천운天運으로 말하더라도 해가 오래되면 역수曆數가 반드시 바뀌는데 그때마다 사람이 나와 개정하였습니다. 만일 때에 따라 개정하지 않는다면 천상天象이 어긋나고 사시의 절서節序도 바뀔 것입니다.”

하였다. 이이가 상께 묻기를,

“전일에 경석經席에서 조정기趙廷機가 신의 말로 ‘성훈은 일동일정을 반드시 법도대로 한다’고 아뢰었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마침 물으려고 했다가 미처 묻지 못했다. 성훈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이 사람은 신이 익히 아는 사람으로 곧 성수침의 아들입니다. 일찍부터 가정에서 교훈을 받아 박잡한 말은 듣지 않았으며 자질이 순후하며 선함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학문에 힘쓴다고 한다면 괜찮지만 학문이 이루어지고 덕이 확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찌 일동일정이 법도에 맞을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다만 그가 병이 많아 지평의 직은 결

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마음을 다스리면 병이 없어진다고 들었다. 학문을 한 사람도 병이 있는가?”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비록 학문을 한 사람이라도 타고난 기질이 심히 박약하면 병이 없지 않습니다. 옛적에 백우伯牛가 병이 나자 공자가 명수이라고 한 것은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 아님을 밝힌 것입니다. 성혼은 타고난 기질이 박약한데다가 걸린 병이 매우 무거운 것이었는데도 그가 죽지 않은 것은 또한 마음을 다스린 공효이었습니다. 만일 마음이 방종한 사람이 성혼과 같은 병이 있었다면 어찌 일찍 죽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전하께서 반드시 이 사람을 보려고 하신다면 그의 관직을 체직하고서 올라오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저 선비를 대우하는 도리가 임용할 만하면 임용할 것이며 임용할 수 없다면 물러가 편히 있도록 허락하고 그의 절조를 포장하여 고매하게 산림에서 지내도록 하는 것이 또한 사기를 양성하는 한 가지 방도일 것입니다.”

하고, 김우옹金宇顥이 아뢰기를,

“성혼 같은 사람은 불러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이가 아뢰기를,

“출신出身하지 못한 사람에게 관직을 제수할 적에는 반드시 『대전』대로 한다’는 것은, 문음門蔭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만일 산림에 있는 현자

라면 마땅히 격외格外로 특별히 대우해야지 어찌 문음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자로써 불러놓고 문음으로 대우하는 것은 현자를 대우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경연을 겸대하는 것이 법에 벗어난 일이지는 하지만 또한 할 수는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근본을 세워야 하는 것이니 반드시 현명한 선비들을 널리 모아 임금의 덕을 보필하게 해야 합니다. 상께서는 성명한 자질을 지니셨는데 아래에 서로 다투아가며 보양할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신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말해보라. 나의 자품이 어떠한가?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니, 김우옹이 아뢰기를,

“기질氣質의 작용은 적고 학문의 공효는 큼니다. 진실로 학문만 잘한다면 천하에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성상께서는 자질이 영명하시어 역대의 제왕보다 뛰어나시니 학문을 겸하신다면 어찌하지 못할까를 걱정하겠습니까. 단지 하지 않으시는 것을 걱정할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그 말이 과분하다고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만일 역대의 제왕보다 뛰어나다고 하신다면 그 말은 과연 지나칩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영명하시고 욕심이 적으신 것으로 보아서 틀림없이 큰일을 할 수 있는 자품이시니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않아서 이지 자질 때문이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근본이 있고 말단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께서 학문을 힘쓰시어 사리에 밝고 인재를 알아 보시게 된 다음에야 현명한 사람을 임용하고 유능한 사람을 부리게 되어

민생에게 혜택이 미칠 것입니다. 요사이 신하들이 시급하게 향약鄉約을 행하자고 청하므로 상께서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마는, 신의 생각에는 향약을 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여겨집니다. 민생을 기르는 것이 먼저 할 일이고 민생을 교육하는 것은 다음에 할 일입니다. 민생들의 곤궁이 오늘날보다 심한 때가 없었으니 시급하게 폐해를 바로잡아 우선 급박한 상황을 해소한 다음에야 향약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덕으로 교화함은 곧 고량진미膏粱珍味와 같은 것입니다마는, 만일 비위脾胃가 극도로 손상되어 미음도 내려가지 않는다면 고량진미가 아무리 좋더라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유희춘이 아뢰기를,

“이이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나도 역시 어려우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이미 행하도록 명해놓고 중지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민생을 기른 다음에 향약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니 중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상께서 마땅히 몸소 솔선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자질이 거친 사람인데 어찌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매양 강론할 적이면 상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들의 생각보다 뛰어나시었는데 어찌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향약을 지금 중지하도록 명하는 것이 비록 물리어 거행하려는 것이기는 하지만, 백성들이 믿지 않을는지 어찌 알겠는가.”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향약을 중지해놓고 민생을 기르는 정책을 거행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이지만, 백성을 기르는 정책을 거행한다면 백성들은 반드시 믿을 것입니다.”

하였다.

『우계집』 제6권, 「잡저雜著」

스스로 지은 묘지墓誌 _ 정해년(1587, 선조 20) 7월

성은 그의 성이고, 혼은 그의 이름이며, 호원은 그의 자이고, 창녕은 그의 본관이다. 아버지는 청송 선생 휘 모某이고, 어머니는 파평 윤씨이며, 조고는 사숙공 휘 모이고, 증조는 판서에 추증된 휘 모이며, 외조는 판관 휘 모이다.

혼은 약관 시절에 병을 앓아 몸이 허약하고 정신이 어두웠는데, 이렇게 일생을 마쳤다. 어려서 가정에서 수학하였는데 언제나 옛사람들이 몸

을 닦고 학문한 내용을 들으면 개연히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을 읽고 이치를 궁구하여 은미한 뜻을 깊이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끝내 얻지 못하였으며, 마음을 잡아 지키고 함양하여 허물과 죄악을 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끝내 잡아 지키지 못한 채 병 때문에 스스로 폐하여 조금도 뜻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슬프다.

타고난 성품은 경박하여 착실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언제나 침착하고 굳세며 독실히 행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으나 또한 이에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였으며, 기질이 혼탁한 것이나 외물外物에 어지럽혀진 것에 이르러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또 남의 과실을 자주 지적하여 이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꺼리고 싫어하였다.

30여 세에 천거로 참봉에 제수되고, 다음 해에 또다시 천거로 6품직에 올랐으며, 또 몇 년 만에 천거로 대관臺官이 되었으나 모두 병 때문에 출사하지 않았다. 만력 경진년(1580, 선조 13) 겨울에 특별히 소명召命을 내리셨는데, 말씀한 뜻이 융숭하고 간절하였다. 황공하여 사양하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스스로 수레를 타고 서울에 왔다. 그리하여 신사년(1581, 선조 14) 2월 사정전思政殿에 등대登對하였는데, 상이 대도大道의 요점을 물었다. 물러 나와 만언萬言의 봉사를 올리니, 성상이 경연에 출입하라고 명하였는바, 이때 조정에서 대우하는 것이 매우 융숭하였다.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현자를 우대하는 예를 폐할 것을 많이 건의하여 예우가 특별하니, 혼은 더욱 놀라고 두려워하였으며 사람들도 또한 속으로 비웃었다. 얼마 안 되어 사직하고 돌아왔다.

계미년(1583, 선조 16) 여름 병조참지로 부름을 받았는데, 다섯 번 소장을 올려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혼은 다시 서울에 이르러, 군직軍職에 제수되고 또다시 이조참의로 옮겼으며, 서반직西班牙職으로 보내진 것이 모두 다섯 차례였는데,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제수하는 명을 받든 지 며칠 만에 삼사三司에서 “병조판서 이이가 국정을 제멋대로 전횡하고 교만 방자하여 성상을 무시한다”고 논핵하였다. 이에 혼은 글을 올려 “이이가 충성을 다하는데 삼사에서 봉당을 일으켜 참소하는 말을 한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삼사에서는 혼이 사람을 일망타진한다고 탄핵하였으므로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이해 가을 다시 이조참의로 불렀는데, 군이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고, 다시 대궐에 나아가 네 번 사양하였으나 또다시 허락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부득이 봉직한 지 반달 만에 이조참판으로 승진하였다. 또 다섯 번 사양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병을 무릅쓰고 사은숙배하니, 마침내 부모에게 자신과 같은 관직이 추증되었다. 재직한 지 한 달 뒤에 사직하는 상소를 올려 동지중추부사로 옮겼다가 갑신년(1584, 선조 17) 7월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조정에서 “혼이 외척의 간당奸黨으로 조정을 혼란하게 하고 나라를 그르친다”고 논핵하니, 조야朝野에서 소인小人이라고 지목하였는데 혹 소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도 있었다. 이것이 벼슬을 얻어 나아가고 물러난 대략의 내용이다.

혼은 어려서부터 병을 앓았는데 신병 때문에 과거에 응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과거를 일삼지 않는다”고 말하고, 몸이 쇠약하여 벼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영화로운 벼슬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파산에서 선영先塋의 여막을 지키고 있으면 사람들은 “은거하며 지조를 지킨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조정에 있는 자들이 번갈아 천거하여 점점 올라가 우연으로 무릅쓰게 되어 높은 관직에 이르렀으나 사실은 한 번도 관직을 소유한 적이 없었고 한 가지도 제대로 직임을 맡은 적이 없었으니, 모두 타인에 의해 억지로 이름이 붙여져 마침내 이 때문에 세상의 화를 취하였다.

훈은 일찍이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평생 동안 이름을 도둑질하여 국가의 은혜를 저버렸으니, 예로부터 신하가 은혜를 저버림이 누가 나와 같은 자가 있겠는가. 나의 죄가 크니, 나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너는 마땅히 나의 유지遺旨를 따라 국가에서 내리는 부의賻儀와 은수恩數를 사양하고 묘 앞에 ‘창녕 성훈묘昌寧成渾墓’라는 다섯 글자만을 써서 지손들로 하여금 묻힌 곳을 알게 하면 충분하다. 옛사람 중에 또한 묘 앞에 관직을 쓰지 말도록 명한 자가 있는데, 그는 깊은 뜻이 있어서였지만 나로 말하면 죄가 있으므로 스스로 폄하해서 성명만 쓰는 것이다. 일은 같으나 그 실체는 다르니, 옛사람에 견주어 함께 논할 수가 없다. 삼베옷을 입히고 종이 이불로 염습하여 소달구지에 싣고 돌아가 장례하여 나의 뜻을 어기지 말라” 하였다.

훈은 가정 을미년(1535, 중종 30)에 태어나 아무 해에 죽으니 향년이 약간인데, 청송 선생의 묘 아래에 장사 지냈다. 훈은 스스로 이 글을 써서

광중壙中에 넣어 묘지墓誌로 삼게 하였다.

묘 앞에 작은 돌을 세워 '창녕 성훈묘' 다섯 글자만을 새기고 돌의 후면에는 향리鄉里와 세계世系, 사망한 날짜와 장례한 날짜 및 자손의 이름만을 간략히 써서 새기도록 하라.

『선조수정실록』 32권, 선조 31년(1598) 6월 1일(갑인) 첫 번째 기사

전 의정부 우참찬 성훈의 줄기

전 의정부 우참찬 성훈이 즐하였다. 성훈의 자는 호원이니 성수침의 아들이다. 수침은 세상에 높이 뛰어난 지조가 있어 은거하면서 도를 강론하여 세상에서 칭송 선생이라고 일컬었다. 훈은 천성이 매우 고매하여 일찍 덕기를 이루어 어린 아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익혔고, 또 일찍이 이황을 존경하고 사모하여 사숙하였다.

그의 학문은 고정考亭을 기준으로 하여, 강론하여 밝히고 실천하는 공을 아울러 힘써 본원의 바탕에 더욱 독실하였다. 이이와 더불어 사단칠정과 이기의 선후에 대한 설을 수천 마디 주고받았는데, 선유先儒들이 밝히지 못했던 것이 많았다. 이이가 일찍이 '만약 견해의 우월을 논하자면 내가 약간 나을 것이나 행실이 돈독하고 확고한 것은 내가 따르지 못한다'고 하였다. 처음에 학문과 덕행으로 천거되어 여러 번 직을 내려 불렀

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으니, 상의 후대함이 더욱 중하여 부르는 것을 그
 만두지 않았었다. 혼은 힘써 사양하여도 되지 않아 간혹 서울에 왔으나
 항상 오래 머물 뜻이 없어 조정에 있는 날짜를 통산하면 1년도 채 되지
 않는다. 임진년 난리 때 이홍로의 모함을 받아 상의 우대가 쇠미해지자
 드디어 다시는 부름에 응하지 않다가 이때에 이르러 파산의 옛집에서 즐
 하였다. 학자들이 우계 선생이라 부른다.

『우계연보부록』

묘표 음기墓表陰記 _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옛날 우리 선조宣祖께서 문치文治에 뜻을 다하였는데, 이때 율곡 이 문성
 공이 몸소 경제제민의 책임을 맡고는 당대 제일의 인물을 얻어 등용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중외에서는 모두 우계 성 선생으로 명에 부응하였
 다. 선생은 휘가 모북이고 자가 호원이니, 청송 선생 수침의 아들이며 사
 속공 세순의 손자이다. 청송은 정암에게 배웠는데 선생은 가정에서 학문
 을 배웠으며, 또 퇴도退陶를 존모하고 율곡과 벗이 되어 산림에서 도를
 지키니, 명망과 실재가 더욱 드러났다.

선생은 처음 유일로 천거되어 여러 번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세상에 나
 오지 않았다. 계유년에 옛 제도를 복구하여 지평持平으로 발탁하니, 겸
 양하여 감히 감당하지 못하였다. 을해년에 부르는 명을 받고 억지로 처

음 나왔다가 얼마 안 되어 돌아갔다. 이후로 관직을 제수하는 명이 뒤따라 계속되었으나 번번이 질병으로 사양하였으며 글을 올려 선황을 따르고 학문을 주장하는 방도를 아뢰니, 상소는 가상히 여겨 받아들였다. 여러 번 장령掌筭에 제수하고 편안한 수레로 길에 오르도록 명하였다.

신사년에 편전에서 인대하여 대도大道의 요체를 묻자, 선생은 큰 강령을 제시하여 정밀하고 분명하게 아뢰었으며 물러 나와 봉사를 올려 이전에 등대對對한 뜻을 펴서 지극히 논하였다. 이 문성공은 이 글을 읽고 말 씀하기를, “세상에 이러한 의논이 없을 수 없다” 하였으며, 대신들은 선생의 말씀을 시행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은 오히려 어렵게 여겼다. 선생이 얼마 후 물러날 것을 청하고 교외로 나가자, 상은 어찰로 소환하여 접견하고 비로소 돌아가도록 허락하였다. 집의執義와 여러 시서의 정초를 제수하였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계미년에 특별히 병조참지를 제수하고 하교하기를, “병조판서가 그대의 친구이니, 마음과 덕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일이다” 하였다. 선생은 여러 번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자, 그제야 직책에 나아갔다.

이 문성공이 이때 병조의 장관이 되어 성상이 의지하고 믿으니, 진실로 특별한 대우였으나 여러 소인배들은 이를 시기하여 틈을 타 논죄하고 탄핵하였다. 선생이 상소하여 충성스럽고 간사함을 분별하여 아뢰자, 소인들은 더욱 노여워하여 마침내 선생까지 탄핵하였다. 선생이 당일에 파산으로 돌아오니, 상은 간사한 무리 중에 특별히 심한 자를 내치도록 명하고 특별히 이 문성공을 총재冢宰로 임명하였으며 재촉하여 선생을 불

리 아경亞卿으로 승진시켰다. 얼마 안 있다가 이 문성공이 별세하자, 선생은 도가 행해지지 못할 줄을 알고 마침내 결연히 돌아왔다. 을유년에 귀신과 물여우 같은 소인들이 뜻을 얻어 당고黨綱에 이름을 쓰고 아울러 선생에게까지 미쳤다. 기축년에 역옥逆獄이 일어나자, 상은 선생을 생각하여 다시 이조참판을 제수하고 부지런히 부르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선생은 마침내 서울에 들어갔으나 병으로 사무를 보지 못하고 상소하여 치도治道를 아뢰고 돌아왔다.

임진년에 왜구가 몰려왔는데 선생은 국난에 달려가지 않았으니, 이는 평소 마음에 정한 것으로 일찍이 우리 선친先親과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문답한 말씀이 있었다. 그러다가 세자世子의 부름을 받고 마침내 성천成川으로 달려갔으며 다시 대조大朝에 나아갔다. 승진하여 참찬에 제수되고 대사헌으로 옮겼는데, 시무時務를 조목조목 아뢴 말씀이 매우 간절하고 끝으니, 사람들은 선생을 위하여 두려워하였다. 상이 환도하였으나 선생은 병환으로 대가를 따르지 못하고 뒤에 들어와 대죄하니, 상의 분부에 불평하는 말씀이 있었다. 이는 전부터 참소하는 말이 쌓였고 뒤에 선위禪位를 요청하러 왔다고 말하는 자가 있어 전전하여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 이때에 이러한 분부가 있었던 것이다. 얼마 후 좌참찬에 제수되고 겸하여 비변사備邊司에 올라 군국軍國의 일을 살폈는데, 말씀을 올릴 적에 돌아보거나 꺼림이 없으니, 상은 마음에 더욱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고양점의 자문참문에 관한 일을 빌미로 허물하자, 선생은 즉시 물러날 것을 청하고 돌아왔다.

정유년에 왜구가 다시 쳐들어오자, 사람들은 국난에 달려가라고 권하는 자가 많았으나 선생의 뜻은 마침내 임진년과 다름이 없어 끝내 평소 정한 마음을 변치 않았다. 선생이 별세한 지 4년 만에 참소하고 모함하는 말이 더욱 심해져서 관작을 추탈追奪하기에 이르렀는데, 20년이 지나 공론公論이 크게 정해져서 좌의정을 추증하고 문간이라는 시호를 내리도록 명하였으며 청송을 모신 서원에 함께 배향되었다.

아, 선생은 학문의 적전嫡傳을 이어 문문이 이미 자신의 몸에 있었고 덕이 같은 분과 함께 나이가 나이가 거의 다스려지게 되었는데, 도는 사라지고 자랄 때가 있고 천명은 실로 하늘에 달려 있어 조짐이 충분히 도를 행할 만하였지만 끝내 행하지 못하였으니, 자못 기묘년의 현자賢者와 같다.

선생은 행하고 멈춤에 반드시 의리를 따르고 평탄하든 험하든 지키는 바를 변치 아니하여 출처의 올바름을 신명에게 질정할 수 있으니,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 문성공은 항상 칭찬하기를, “조행操行의 독실하고 확고함은 내가 미치지 못하는 바이다” 하였으며, “선을 좋아하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도 넉넉하다” 하였고, “경륜을 맡길 만하다” 하였으니, 오직 이 문성공만이 선생을 아신 것이다. 사람들이 비록 선생을 비방하였으나 선생의 도덕에 무슨 손상이 되겠는가.

선생은 가정 을미년에 출생하여 64세에 별세하였다. 향양리 선영先塋의 뒤에 장례하였는데, 짧은 묘표에 관직을 쓰지 않았으니, 유명遺命을 따른 것이었다. 선비先妣는 파평 윤씨이고 부인은 고령 신씨이다. 아들 문영은 일찍 죽었고 차자 문준은 현감이며, 장녀는 별좌 남궁명에게 출가하

였고 차녀는 대사간 윤희에게 출가하였으며, 측실의 아들은 문잠이다. 현감의 아들은 역·익·직이며, 사위는 신민일·안후지·윤정득이다. 별좌의 아들은 걸·우이며, 사위는 신협·김여옥·윤희은이다. 대사간의 아들은 훈거·순거·상거·문거·선거이며, 사위는 이정여·권준이다. 나머지 증손과 현손은 다 기재하지 않는다.

나는 일찍 선생의 문하에서 놀았으며 또 부친과 스승을 통하여 선생의 출처와 언행을 익숙히 들었으므로 위와 같이 간략히 쓰는 바이다.

『우계선생집』 6권, 「잡저」

서실書室에서 지켜야 할 예의 _신미년(1571, 선조4) 봄

1 入書室者 昧爽而興 親自整疊寢具

서실에 들어온 자는 먼동이 틀 적에 일어나서 직접 스스로 침구寢具를 개어 정돈하여야 한다.

2 少者操箒 淨掃室中

젊은 자는 빗자루를 들고 방 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以次盥櫛正衣冠

차례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바르게 해야 한다.

4 各就讀書處整冊對案 端肅危坐 從容讀誦 不得胡思亂想 不得顧眄

他事 不得與人雜設 不得出入起動

각자 독서하는 곳에 나아가서 서책을 정돈하고 책상 앞에 단정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조용히 읽고 외우며, 어지러운 생각을 하지 말고 탄 일을 돌아보지 말며, 남들과 잡담을 나누지 말고 제멋대로 출입하거나 일어나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5 食時就食 以齒而坐 從容整齊 不得戲嬉爭食

아침밥을 먹을 때에는 나이대로 앉아서 조용히 정돈할 것이요, 희롱하고 장난하며 음식을 다투지 말아야 한다.

6 食畢 以齒而出 逍遙于外 少時復入書室 整頓冊子 以俟招入授書

식사가 끝나면 나이대로 나가 밖에서 산보하다가 잠시 후에 다시 서실로 들어와 책자를 정돈하고 선생이 불러 책을 가르쳐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7 其間少隙 或間書寫字 不得亂草 必作端楷 或講論義理 不得怠惰放肆 任便自逸

이 사이의 여가에는 글씨를 쓰든지 —어지러운 초서草書는 쓰지 말고 반드시 단정한 해서楷書로 써야 한다— 의리를 강론하든지 해야지 게으르고 방자하여 제멋대로 안일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8 授書之後 分就讀所 兀然端坐 終日讀之 少有疑處 輒來質問 再三反覆 不得少有放過 不得少時閑懶

글을 배운 뒤에는 독서하는 곳에 각자 나아가 오똑하게 단정히 앉아서 종일토록 책을 읽으며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곧 와서 질문하되 재삼 반복할 것이요, 조금이라도 그대로 지나치지 말며 조금이

라도 한가롭거나 나태하게 하지도 말아야 한다.

9 夕食時就食如上儀訖 或出溪上閑步 或入書室中看書論文習字

저녁밥을 먹을 때에 식사하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하며 식사가 끝나면 시냇가에 나가서 한가로이 산보하거나 서실 안에 들어와서 책을 보고 문장을 논하고 습자習字를 한다.

10 既昏 張燈讀書 夜久而寢

날이 어두워지면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으며 밤이 깊어지면 취침한다.

11 寢時招婢布寢席就宿 齊手斂足 不作思惟

잠을 잘 때에는 계집종을 불러 잠자리를 마련하게 하고 취침하되 손을 가지런히 하고 발을 거두며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12 日間居處 須要恭敬 不得倨肆惰慢

날마다 거처할 적에 모름지기 공경할 것이요, 거만하고 방자하며 태만하지 말아야 한다.

13 言語須要諦當 不得戲笑誼諱

말하는 것은 모름지기 꼭 해야 할 때에만 하고 희롱하거나 웃고 떠들지 말아야 한다.

14 起居坐立 務要端莊整肅 不得傾倚昏怠

기거하고 앉고 서는 것을 되도록 단정하고 엄숙하게 할 것이요, 기대거나 태만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15 出入步趨 務要安詳凝重 不得跳走票輕

출입할 때에는 걸음걸이를 되도록 편안하고 진중하게 할 것이요, 뛰고

달려 가볍게 하지 말아야 한다.

16 出入時以齒而行 或比肩 不得疾行先長

출입할 때에는 나이순으로 걸어가되 혹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요,
빨리 걸어서 어른보다 먼저 가지 말아야 한다.

17 溫謙自牧 和敬待人

온화함과 겸손함으로 자처自處하고, 화목함과 공경함으로 남을 대하여야 한다.

18 無故不得出入

연고가 없으면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19 凡事切須謙恭謹勅 不得尙氣凌人

모든 일은 반드시 겸손하고 공손하고 신중하게 할 것이요, 기세를 올려 남을 능멸하지 말아야 한다.

20 早晚頻自點檢所習之業 思索義理 體認服行 不令心少有放逸

아침저녁으로 자주 자신이 익히는 학업을 스스로 점검하고 의리를 사색하며 체인體認하고 실천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방만하고 안일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切須服膺勤謹二字 造次不違

모름지기 근勤과 근謹 두 글자를 가슴에 새겨 잠시라도 어기지 말아야 한다.

22 冠者出入 少者皆起立

관을 쓴 어른이 출입하면 어린 자들은 모두 일어난다.

이상 22조항은 서실에 들어온 자가 서로 준수하여 각자 명심해야 할 것이니, 혹시라도 이 약조를 어기고 게으르고 방자하여 독서를 부지런히 하지 않거나, 떠들썩하게 남을 조롱하고 업신여겨 함부로 대하면서 자기를 잃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른과 봉우들을 공경하지 않고 남의 타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노여워하고 스스로 방자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고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제생들이 즉시 의논하여 와서 고하도록 한다.

『우계연보부록』 「제문祭文 · 축문祝文」

예관禮官 신정의辛廷懿를 보내어 치제致祭한 글

영령英靈이시여	惟靈
일찍 가학을 전하였고	早傳家學
만년에도 도에 매진하였네	晚猶耽道
깊이 은둔하고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나	深藏不市
명예가 일찍 드러났네	聲譽頗早
여러 번 부름을 받고 일어나	屢徵而起
만언의 상소문을 올렸다고	萬言具疏
조정에 있는 지 얼마나 되는가	立朝幾何
매번 병환으로 떠나갔네	每以病去

전후로 높이 승진함은	前後超陞
모두 여망興望에서 나온 것이었네	咸出衆望
갑과와 을과로 출신한 것은 아니나	科非甲乙
지위가 경상에 이르렀는데	位致卿相
물러나 산림을 지키니	退守丘壑
한 마음으로 나라를 걱정하였네	憂國一心
어찌 알았겠는가 이 병환으로	何期此疾
구름과 숲을 길이 하직할 줄을	永辭雲林
전쟁이 더욱 심해지는데	干戈益深
노성老成한 분이 모두 별세하니	耆舊皆凋
선인善人이 죽은 애통함에	殄瘁之痛
내 가슴 울렁거리노라	予懷搖搖
이에 예관을 보내어	茲遣禮官
하찮은 제수를 올리니	用寄菲薄
영령이여 만약 지각이 있거든	靈若有知
부디 와서 흠향하오	庶幾來格

제문 _윤근수尹根壽

아, 선생이여	嗟惟先生
좋은 옥처럼 하자가 없으니	良玉絕瑕
아름다운 자질 어찌 교정할 것이 있겠나	美質寧揉

내용누락

여러 의논이 분분하게 일어났네	群議紛拏
위인이 비방을 만나	偉人遭抨
험난한 길이 어려워지자	險道方巖
공은 모함을 해명하여	公疏其誣
정성을 다해 글을 올렸네	瀝血陳辭
성상의 마음은 비록 깨달았으나	淵衷雖悟
세상의 의논은 실로 어그러졌네	時論實左
모난 것과 둥근 것이 어찌 맞겠는가	方圓奚周
처음 살던 곳으로 돌아왔네	初服返我
뒤이어 예전의 관직을 제수하고	旋授前職
갑자기 이경으로 발탁하였네	倏擢貳卿
이조에서 인물을 전형함에	天官藻鑑
여망輿望에 보답하였다오	慰答衆情
양陽이 깎이고 회복함 일정치 않아	剝復靡常
향리로 돌아와 종적을 감추었네	還里藏踪
효상이 갑자기 변하여	爻象遽變
나라에 말이 다시 흥흥해졌네	國言再洵
형극의 길이 열리자	荊棘路開
선비들 물결에 휩쓸리니	搢紳奔波
백간이 날로 격해져	白簡日激
공더러 간사한 자의 당이라고 하였네	謂公黨邪

책을 펴고 성인을 대하였으나
 대궐에 계신 임금을 사랑하니
 임천에 있어도 즐겁지 않았고
 전원(田園)에 있어도 홀로 괴로웠네
 일찍이 얼마나 지났는가
 병란(兵亂)이 안으로 핍박하였네
 대가가 서쪽으로 파천하여
 일이 잠깐 사이에 벌어지니
 공은 궁벽한 골짜기에 거주하여
 이득히 알지 못하였다오
 천리 멀리 병든 몸을 이끌고
 먼 변방을 찾아왔는데
 도중에 품계를 더한다는 말 듣고
 새로운 명 강렬히 사양하였네
 우대하는 은혜에 응하지 않다가
 마침내 나라의 정사에 참여하고
 글을 올려 정성을 피력하니
 한 마디 말씀이 한 약석(藥石)이었다오
 대가가 옛 서울로 돌아왔으나
 공은 병환 때문에 남아 있었네
 자력으로 대궐에 달려오니

黃卷對聖
 魏闕戀主
 林泉非樂
 畎畝獨苦
 曾幾何時
 兵塵內逼
 大駕西遷
 事出晷刻
 公居窮谷
 茫未及知
 千里曳病
 追詣遐陬
 路聞增秩
 力辭新命
 優恩未允
 遂預邦政
 上章攄悃
 一言一砭
 駕還舊京
 公以疾淹
 自力赴闕

또 국가의 환난 때문이었지	又緣國患
군신 간에 서로 만나기 어려움은	際會之難
고금에 똑같이 한탄하는 바라오	古今所歎
일이 끝내 어그러져	事卒齟齬
몸을 받들고 돌아왔네	奉身而歸
백발에 단삼을 품고	髮白心丹
먼 앞날 염려하며 기미를 보고 처신하였네	慮遠識微
문 닫아걸고 세상일 잊고는	杜門却掃
더욱 성인의 학문을 탐구하였으나	益探聖涯
언제나 국가에 마음이 매여 있으니	興言繫心
어찌 감히 세상을 잊겠는가	豈敢忘時
평소 수양하여	居平頤養
행여 미수를 누릴까 하였으나	庶幾眉壽
말질이 있다는 말 들었는데	纔聞未疾
곧바로 구원하지 못함에 이르렀네	奄至不救
아, 슬프오	嗚呼哀哉
공이 학문에 힘씀은	繫公勉學
실로 가정에 근원하였네	實原家庭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깝고	天姿近道
또 육경에서 찾았으며	又求六經
널리 이택을 자뢰하여	旁資麗澤

날로 위를 향해 나아갔네	日尋向上
행실은 효도와 우애를 먼저 하고	行先孝友
덕은 시는 고장에 두루 미쳤다네	德被鄉黨
덕이 차츰 드러나	闡然而章
명성이 마침내 알려지니	名乃有聞
방 안에 홀로 있어도 마음에 부끄럽지 않아	詎愧屋漏
공경히 천군을 섬겼다오	祗事天君
응용에 적합하고 본체를 밝혀	適用明體
뿌리로부터 가지에 이르렀으나	由根及支
경제제민의 포부를	抱負經濟
일찍이 한 번도 시험하지 못하였네	曾未一試
공이 기약한 바는	惟公所期
자득을 위주로 하였으니	自得爲主
후학들의 계제階梯요 항구였으며	末學梯航
제멋대로 흐르는 물속의 지주였네	橫流砥柱
이 도가 어둡고 적막한데	此道寥寥
선정들이 모두 별세하였으나	先正凋零
공이 홀로 산림에 거주하여	公居林下
샛별처럼 찬란하였네	爛若晨星
선생이 이제 별세하니	今其已久
후생들이 누구를 의지한단 말이오	後死疇依

선인善人이 별세하였다는 한탄이	殄悴之歎
마침내 위태로운 때에 있게 되었네	乃在時危
아, 슬프오	嗚呼哀哉
지난번 겸직이 체직되어	頃遞兼銜
마침 한가로이 거처하기에	適值居閑
선영先塋에 참배하고	展拜先墓
사림문을 두드리니	歷扣松關
병을 무릅쓰고 나를 만나주셨는데	力疾見我
호흡이 이미 위태로웠으나	氣息已殆
간곡히 말씀하여	諄諄語言
정신이 조금도 어지럽지 않았네	不爽精采
신이 붙들고 보호하여	神所扶持
약을 쓰지 않고도 낫기를 날마다 바랐는데	日望勿藥
어찌 알았겠는가 이 작별이	孰謂此別
아득히 영결이 될 줄을	永隔冥漠
홀륭한 가르침 듣지 못하니	鏞誨莫聞
나라가 잘못되지 않을까 크게 두렵네	大懼淪墜
맡은 직책이 있어	職事有守
장례에 몸소 참여하지 못하고	窆不躬視
서쪽을 바라보며 길게 부르짖으니	西望長號
생전을 돌이켜보매 부끄럽기만 하네	媿負平素

한 잔 술을 올림에	一觴之奠
손자를 대신 보내오니	俾孫代赴
부디 밝으신 정령은	冀格精爽
와서 흠향하시오	庶其來享

제문 _이해수李海壽

일찍 영특한 정기를 받아	夙稟精英
덕성이 중화하였네	德性中和
명성이 유래가 있으니	風聲有自
시례의 가학家學을 이었네	詩禮承家
박문약례博文約禮의 공부가 깊고	功深博約
깨끗이 닦아 절차탁마하였다오	澡雪琢磨
이락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溯源伊洛
퇴락한 물결 속에 지주가 되었네	砥柱頽波
비단옷을 입고 홑옷을 더하며	衣錦而綱
독에 넣어 깊이 감추었네	蘊櫝而藏
속에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법	有中形外
이미 쌓여 더욱 빛났네	既積彌光
문명의 좋은 시절을 만나	際遇文明
예로 부름이 빈번하였네	禮召頻繁
명예와 지위가 몸에 가까웠으나	名位逼身

공이 생각하는 것 아니었네	匪公思存
봉황의 높은 반열에 오르니	鳳儀鸞行
조야에서는 크게 기대하였네	朝野攸屬
몸에 질병이 떠나지 않아	疾病沈綿
다시 산중으로 돌아오니	返于初服
작은 집에 한가로이 거처하며	棲遲衡宇
유유자적하였다고	聊以自適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	遭世喪亂
중도에 쓰러졌네	委頓中路
십생구사로	十生九死
임금님 계신 곳에 도달하니	達于王所
정성은 하늘을 땀질할 정도로 깊었으나	誠深補天
난을 다스릴 힘이 없었네	撥亂無力
뜻이 일과 어그러져	志與事乖
진퇴유곡에 빠졌다고	進退維谷
전원에서 석고대좌하니	席藁田園
충성스러운 마음 드러낼 수 없었으나	忠赤莫白
군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함은	愛君憂國
하늘이 실로 굽어보았다고	天實臨之
뜻을 품고 지하로 들어가니	齎志沒地
눈을 감을 기약이 없네	瞑目無期

사문이 불행하니	斯文不幸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네	士林咸悲
나는 공보다 다소 나이가 많지만	長余一日
벗이 아니요 스승이었네	匪友伊師
공과 같기를 바랐으나 미치지 못하니	企而不及
안으로 살펴봄에 참으로 부끄럽네	內省忸怩
높은 산처럼 우러러보며	高山仰止
영원히 의귀하였다오	永言依歸
공의 모습 눈에 선하니	儀形在目
눈물이 줄줄 흐르네	有涕淫淫
영혼이 남아 있거든	不亡者存
부디 작은 정성 굽어 살피시오	庶鑑微忱

제문 _오윤겸吳允謙

아, 선생이시여. 평소에 비록 병환이 있으셨으나 저의 망녕된 생각에는 타고난 기품이 정精하고 강剛하며 오랫동안 수양하시어 반드시 장수하시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오늘 갑자기 이처럼 별세하실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시운이 다하고 우리 도가 장차 땅에 떨어져 하늘이 한 노인을 이 세상에 남겨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법문法門은 어느 곳에 의뢰하며 후생들은 어느 곳에 귀의하겠습니까? 반드시 불들어주고 계발시켜주는 도움을 받지 못해 무너지고 미혹될 것이니, 아,

애통합니다.

스스로 생각건대 불초한 제가 외람되이 이끌어주심을 입어 문하에 출입한 지가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선생의 밝으신 지혜로 저의 재질이 용렬하고 낮아서 가르침을 베풀 곳이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간곡히 타일러주시며 우매하다 하여 버리고 끊지 않으시니, 혹은 덕스러운 모습을 우러러보고 흠모하여 감동하였으며 혹은 가르침을 받들어 마음속에 깨우쳤습니다. 그리하여 효제충신孝悌忠信이 근본이 됨과 사우師友 간에 강습하는 즐거움을 알았으며, 인애仁愛하고 공평한 도리와 왕도王道와 패도霸道, 의義와 이례의 분별에 있어서도 또한 일찍이 참여하여 듣고 항상 뜻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마음과 기운이 어둡고 태만하며 사육에 빠져서, 집에 거처하고 홀로 있을 때와 벼슬살이하고 일을 처리하는 날에 실로 들은 바를 높여 따르지 못해서 우리 선생께서 권면하신 뜻을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면 유명幽明의 사이에 저버린 것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오히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었으므로 비록 강석講席을 멀리 떠나고 오랫동안 외로이 있었으나, 간사한 생각이 싹트고 망령된 행실을 할 때마다 일찍이 되돌아보고 놀라며 선생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로는 제 마음이 날로 더욱 방탕해지는데도 경계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 아, 애통합니다.

부음을 받든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으나 관리의 일에 얽매여 이제야

비로소 와서 곡하니, 묘 옆에 여막을 짓고 거처한 옛사람에게 깊이 부끄럽습니다. 아, 파산은 옛 모습 그대로이고 우계의 시냇물도 전과 같으나 아름다운 모습을 접할 길이 없고 경계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 책을 끼고 누구에게 물으며 의심스러운 것을 누구에게 질문하겠습니까. 작은 집에 홀로 서서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십니다. 아, 슬프옵니다.

파산서원에 위판位版을 봉안한 제문 _ 이정귀李廷龜

우리 도가 동쪽으로 와서	吾道之東
진유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眞儒繼作
하늘이 열어 인도해주시고	惟天啓迪
오악五嶽이 정기를 모아	惟嶽鍾毓
세상에 뛰어난 명현이	間世名賢
한 가문에 모이시니	萃于一門
하남의 세가요	河南世家
수사의 연원이었습니다	洙泗淵源
깨끗한 높은 풍도요	洒落高風
침잠한 깊은 학문이었습니다	沈潛邃學
문로가 이미 바르고	門路旣正
실천이 돈독하였습니다	踐履斯篤
무너진 풍속을 일으켜 세우고	砥礪頽俗
여러 몽매한 자들을 개발하였으며	開牖群蒙

출처의 바름이	出處之貞
시종 똑같았습니다	一其初終
돌아보건대 저 파산은	瞻彼坡山
고반한 옛터로	考槃之墟
남은 향기 없어지지 않으니	遺芳不昧
지나는자들 마을에 경례합니다	過者式閭
엄숙한 이 사당은	有儼斯堂
많은 선비들이 우러러보고 의지하는 곳	多士瞻依
백어(伯魚)가 뜰을 지나가는 듯 완연하고	宛見庭趨
중점(會點)의 비파 소리를 듣는 듯합니다	如聆瑟希
거문고 타고 글 외는 곳에	絃誦有所
제기를 진설하여	俎豆斯陳
한 번 밝은 제사를 올리오니	一瓣明禋
만고에 깨끗한 정신이 이어지이다	萬古精神

파산서원의 사액제문 _지제교(知製教) 이시해(李時楷)

백옥과 같은 훌륭한 자질로	圭璋令質
한 치와 한分寸 공정을 쌓았네	銖寸積功
일찍 성과 경에 종사하여	早事誠敬
중용을 선택하였네	擇乎中庸
가정에 아름다운 자취를 이어	趾美家庭

멀리 끊어진 전통을 찾았다고	遠尋絕緒
낙담에 마음을 두고	潛心閩洛
자나 깨나 수사를 생각하였네	寤寐洙泗
한순간에도 마음을 보존하여	瞬息有存
언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았네	弗得不措
구사에 정신을 두고	留神九思
사물에 종사하였다오	從事四勿
털끝을 나누고 가는 것을 분석하여	毫分釐析
만 가지 다른 것이 하나로 돌아왔네	萬殊歸一
떡줄처럼 곧고 바르게 행동하였으며	繩趨規步
안이 곧고 외면이 방정하였네	直內方外
실천이 독실하니	踐履斯篤
삼백 가지 예를 지켰다고	三百其禮
전일한 마음으로 정하게 연구하여	專精鑽研
잠자고 밥 먹는 것도 잊었네	忘寢與食
못에 뛰는 물고기의 이치를 연구하여	妙契淵魚
활발한 뜻을 간직하였네	游意活潑
제자들 함장에 옷자락을 잡고 나아가니	攜衣函丈
가르쳐주기를 간절히 하였네	誨示諄切
의심스럽고 어려운 것 묻고 변론하느라	質疑辨難
문밖에 신발이 가득하였는데	戶外屨滿

칼날로 대나무를 쪼개듯 황하가 터져 흐르듯	迎鋒河決
몽매함을 개발하여 얼음이 풀리듯 하였네	發蒙氷渙
한 세상을 훈도하여	薰陶一世
후진들을 양성하였다오	埏埴後進
요순 같은 성군은 자리를 비우고	舜殿側席
부지런히 예물을 보내어 초빙하였네	禮勤玉帛
밝은 조정에서 봉황과 같이	羽儀明庭
여러 공경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며	矜式百辟
강연에서 절차탁마하여	講筵切磋
날로 바로잡고 유익한 말을 아뢰었다오	日進規益
왕도王道의 계책 빛나니	王猷載煥
다스리는 방도를 아름답게 꾸몄네	治道賁飾
고요와 설이 함께 조정에 있어	臯雋同寅
행여 당우의 정치를 기대하였는데	庶幾唐虞
벗이 별세하여 도가 외로워지니	朋亡道孤
현자의 길이 기구하였네	賢路崎嶇
날이 개면 가고 비가 내리면 멈추니	霽行潦止
전철들과 궤도를 함께하였네	前哲同軌
나라의 어려움을 거듭 만나	荐丁邦難
참소하는 말이 곧바로 이르니	翩緝旋至
위학이라는 비방	僞學之謗

또한 고정에게도 미쳤네	亦及考亭
비방하는 말 홍수처럼 하늘에 이르렀으나	洪流沃霄
해와 별에 무슨 손상이 되겠는가	何損日星
구원이 오랫동안 비니	丘園久空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였네	士林戚戚
이에 사당을 열기를	爰闢廟貌
저 파산 기슭에 하니	于彼坡麓
서산의 부자가	西山父子
대대로 학문을 이었네	世紹其學
고요하고 엄숙한 사당에	有儻有儼
합하여 제향하니	合堂而享
사문의 사모하는 마음을 붙여	寓慕斯文
호를 내리고 편액을 걸었네	錫號揭榜
예관이 제문을 가지고 가	禮官銜辭
깊은 정성을 바치니	轉致深誠
부디 맑은 술잔을 흠향하여	庶歆潤酌
후학들을 계도하여 광명하게 하오	啓佑光明

소현서원에 배향한 제문 _송시열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선생은	恭惟先生
학문에 연원이 있었습시다	學有淵源

저 옛날 정암이	惟昔靜庵
덕이 순수하고 도가 높았는데	德純道尊
청송이 인정을 받으니	松翁見知
문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文獻于徵
올바른 학맥을	有正其脈
선생이 계승하시니	先生是承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슴속에 새겨	潛心服膺
독실히 수행하였습니다	篤修勉行
깊은 이치를 연구하여	探頤釣深
정주를 조종으로 삼았는데	宗朱祖程
진실되게 오랫동안 학문을 쌓아	眞積力久
마침내 전형이 되었습니다	聿成典刑
덕은 반드시 이웃이 있으니	德必有隣
훌륭한 문성공이 계셨습니다	有卓文成
마음이 합하고 도가 같아	心諧道協
함께 밝게 비추시니	照以同明
사문이 다시 떨쳐져	斯文復振
귀먹은 자가 듣고 눈 어두운 자가 깨어	聵聽昏醒
큰 도가 장차 오르게 되었으므로	大猷將升
사람들이 태평을 기대하였습니다	人期泰平
훌륭한 군주와 백성들을 만들려던 뜻이 어그러지니	志乖君民

각기 처음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各尋初服
이곳 석담은	惟此石潭
문성공이 점치신 곳이니	文成所卜
여기에서 도학을 강명하며	於焉講道
숨어서 정도를 평탄히 행하였습니다	坦履幽貞
옆에 서실을 짓고는	築室于傍
선생을 맞이해 오려 하였습니다	擬延先生
남산에서 함께 책상을 대하니	南山對床
거의 선철들의 자취를 따르려 하였습니다	庶追前哲
얼마 후 일관봉日觀峯이 무너지니	日觀俄摧
밝은 별이 외로이 비쳤습니다	曙星孤揭
국가가 상란할 때를 당하여	時丁喪亂
비로소 유적을 찾으니	始尋遺蹟
낙수의 물결이 차갑고	波寒洛水
운곡의 시냇물이 오열하였습니다	澗咽雲谷
이치와 운치 곱곰이 생각하며	沈思理韻
우러러보고 굽어보매 서글픈 생각만 들었습니다	俯仰悽惻
지팡이를 짚고 한가로이 거닐어	杖屨婆娑
남은 향기를 계속하여 전파하였습니다	繼播餘馥
우뚝한 사당은	有翼明宮
구곡의 중간에 있는데	中半九曲

회옹을 오로지 높이고	晦翁專尊
우리나라 선현을 배향하니	邦賢以侑
정암이 왼쪽에 계시고	靜庵在左
퇴도가 오른쪽에 계셨네	退陶居右
왼쪽 자리의 다음은	左位之次
실로 문성공의 자리이니	寔文成座
예로부터 엄숙히 받들어	在昔嚴奉
깨끗한 제사를 태만히 함이 없었는데	精禋罔惰
이제 선생을	今以先生
퇴도 아래에 배향하였습니다	配退陶下
우리 도가 동방으로 옴으로부터	自吾道東
전통이 확실하니	統緒端的
함께 고정을 높여	同尊考亭
학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學無殊轍
규범을 후세에 보여주어	垂規示準
계도하기를 무궁하게 하였습니다	啓佑無極
제사를 올리는 초기에	卽事之初
이것을 가지고 밝게 고하오니	將此昭眡
행여 우리들의 정성을 돌아보시어	庶顧我誠
영원히 의지하고 높이게 하소서	永依崇勿

춘추春秋 석채釋菜 축문

공정이 엄밀하였고

功程嚴密

도덕이 순수하게 갖추어졌습니다

道德純備

이에 춘정(추정)을 만나

茲值春(秋)丁

이 보답하는 제사를 올리웁니다

薦此報祀

작품 세계



『우계집』 제1권

퇴계 선생이 벼슬을 버리고 도산陶山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다

기사년(1569)

기사년 늦은 봄에	己巳春暮月
퇴계께서 호연히 고향으로 가셨다네	退溪浩然歸
서울에는 우리를 분 적어지고	京城少宗仰
선비들은 의지할 곳 잃었어라	士子失所依
대로가 복이 없으시니	大老也無福
천운이 쇠미한 때를 당하였네	皇天時運衰
산중에 부질없이 홀로 탄식하며	山中空竊歎
한밤중 눈물만 줄줄 흘리노라	中夜涕漣漣

송강 정철의 시운에 차운하다

저 아름다운 송강의 물	彼美松江水
가을 되니 바닥까지 맑으리라	秋來徹底清
탕반에 공급하여 날마다 목욕하니	湯盤供日沐
마음속 씻어 깨끗하겠지	方寸有餘醒

옥 같은 시운에 공경히 차운하여 말하고 싶은 소회所懷를 펴니, 졸렬하다 하여 버리지 않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우계牛溪의 물도 송강松江의 물처럼 똑같이 맑으니, 또한 어찌 멀리 한 잔을 떠와서 남은 맑음을 나누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계의 물은 항상 맑지도 않고 또한 항상 흐리지도 않으니, 어찌 감히 스스로 이 맑음을 믿고서 맑히는 공부를 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송강의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탕반湯盤과 함께 날로 새로워져서 외물外物의 혼탁함이 그 사이에 조금도 끼지 않기를 바라니, 이것을 지극히 축원하고 지극히 축원합니다. 백 리 먼 길을 말에 멩에 메어 멀리 궁벽한 골짜기에 찾아주시니, 은혜롭게 사랑해주시는 수고로움과 보살피주시는 소중한 뜻은 어리석고 비루鄙陋한 소생이 감히 받들어 받을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이미 만나 말을 나누니 더욱 기쁘고 위로되며, 이틀 밤을 묵으면서 간곡히 말씀하여 가르쳐주시니 마음이 감동되어 감사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간 세상에 홀로 있어 외로운 그림자뿐이요. 짝이 없으므로 항상 외로운 생각이 들어 말년의 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는데, 이

러한 후의厚意를 입으니 더욱 강개慷慨한 마음이 일어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낮은 선비라서 외면外面에 힘써 본말本末을 모르므로 언제나 자신의 잘못은 버려두고 남을 걱정하며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남을 논평하는 것만을 힘쓰니, 옛 사람이 이른바, 남의 논평은 잘하나 자신을 살피는 데에는 소홀하다는 말에 더욱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구구한 마음에 충성을 다함은 깊지 않다고 이룰 수 없습니다. 작별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바,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은 양립兩立할 수 없으니, 전일專一한 마음으로 의리義理를 독실히 좋아하여 마음속에 흠족하게 한다면 저것들은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진다’고 한 것을 더욱 체찰體察하고 체험하여 그 맛을 알아 접속接續하시기를 더욱 바라는 바입니다.

아이가 초한 시권에 제題하다 _경오년(1570)

너의 나이 이제 열두 살에	汝年十二歲
새로운 시구 잘 지으니	能好新詩句
오히려 도씨 집안의 아이들이	猶勝陶家兒
배와 밤 입에 물고 있는 것보다 낫구나	梨栗長在口

달밤에 홀로 읊다

은 산에 가득한 송리松蘿의 달 깊이 창문에 들어오니	滿山松月入窓深
시원한 밤 상쾌하여 이 마음 알아주는 듯	清夜欣然會此心

다시 폭포 소리 먼 골짜기에서 울러오니
마치 깊은 숲 속에서 비바람 몰아치는 듯하여라

更有飛泉鳴遠壑
杳如風雨在深林

친구와 함께 운계사雲溪寺에 노닐다

(이 절은 감악산紺嶽山 청학동靑鶴洞에 있다)

야외의 깨끗함을 구경하려고
그윽한 청학동 함께 찾아왔네
두 절벽은 먼 산에서 뻗어왔고
한 물은 중류에 쏟아지누나
밭 아래 돌길에서 구름이 생기고
소나무 행랑에선 이슬이 갓옷 적시네
다시 백련사白蓮社의 모임 기약하니
높은 흥취 또 가을에 마땅하리
우거진 등리藤蘿 운계사를 뒤덮는데
바위 위에 가부좌하여 석양에 이르노라
차 마시고 다시 방장을 찾아 유숙하니
석림의 송월 밤에 더욱 쓸쓸하네

野外同清賞
來尋鶴洞幽
雙崖開遠峽
一水瀉中流
石磴雲生屐
松廊露濕裘
更期蓮社會
高興又宜秋
深深蘿薜掩雲蹊
趺坐寒巖到口西
茶罷更尋方丈宿
石林松月夜淒淒

천마산天磨山에서 놀다

십 년 동안 그림의 떡처럼 이름은 들었는데
오늘 아침 이 몸 이 산중에 와 있노라

十載聞名畫餅同
今朝身在此山中

참으로 앓은 정신이 합하는 곳에 있으니	眞知自在神融處
만 사람에게 말해주어도 뜻이 통하지 않는다오	說與傍人意不通

정송강鄭松江의 모친에 대한 만장挽章

인자한 얼굴 봄바람과 같으셨는데	慈顏如春風
도리의 열매 보지 못하고 떠나셨네	不見桃李實
어진 아들 효심이 무궁하니	賢子孝無窮
종친의 피눈물 울어 다하였네	泣盡終天血
진실로 아노니 증민의 마음	固知曾閔心
효도하려 해도 미칠 수 없으리라	欲孝有不及
이내 인생 영감의 슬픔 안고 있으니	吾生抱永感
이 슬픈 마음 어찌 차마 말할까	此意那忍說
두 번 절하고 만장을 써 올리니	再拜寫薤章
서글픈 마음에 부질없이 눈물 흘리네	情動空掩泣

서울에서 해 저물 무렵 눈을 맞으며 파산으로 돌아오다

구름이 짙으니 강 하늘 캄캄하고	雲暗江天黑
바람이 많으니 저녁 눈이 수북하네	風多暮雪深
멀리서 헤아리니 오두막집에	遙知衡宇在
돌아가는 길 숲 속에 있으리라	歸逕入疎林

승려에게 써서 주다

(승려가 전한典翰 정철의 상려喪廬로부터 왔으므로 이 시를 지어주었다)

중양절 가까운데 비바람 몰아치니	風雨近重陽
산중의 집에 새벽 기운 시원하네	山齋曉氣涼
승려를 만나 안부를 물으니	逢僧問安穩
소련처럼 집상執喪을 잘한다네	小連善居喪

울곡의 시인에 차운하다

시끄러운 진세塵世 밖에 작은 집 지으니	小築塵囂外
호수와 산 안팎으로 열려 있네	湖山表裏開
정자는 큰 평야에 임하였고	軒臨平野大
물은 저녁 하늘에 멀리 들어온다	水入暮天廻
마을의 손님과 처음 손을 잡고	村客初携手
밤새도록 화룻불 헤치며 고상한 담론하였다오	高談夜撥灰
정신이 맑아 잠 못 이루는데	神清不可寐
밝은 달 사람에게 비추어 오네	明月照人來

안씨安氏의 야정野亭에 제하다

석양에 외로운 연기 피어오르고 물결은 잔잔한데	孤煙落日淡滄浪
은 가을 멀리 바라보니 들빛이 썰렁하네	極目清秋野色涼
한 정자에 앉아 온갖 경치 구경하니	坐俯一軒收拾盡

구름 낀 산은 끝없고 물은 아득히 펼쳐 있네

雲山無際水茫茫

마을 사람이 율곡에게 술을 보내오다

깊은 신중에 가을비 창랑에 걷히니

窮秋山雨捲滄浪

찬 울타리에 지는 잎 석양을 가리누나

落葉寒籬掩夕陽

어느 곳에서 백의의 사람 술을 보내와

何處白衣人送酒

국화를 띄우니 한 잔 술 참으로 향기롭고야

黃花來泛一盃香

시냇가에서 작은 술자리를 벌이다

시냇물 흘러 옥소리 울리는 데

溪流鳴玉處

밤비에 떨어진 꽃잎 떠내려오네

夜雨泛花來

꽃다운 풀 위의 봄바람

芳草春風意

훈훈하게 술잔 속에 들어오누나

薰然入酒盃

우연히 읊다

병 많은 서생이 한 시골을 지키고 있으니

百病書生守一鄉

임금께 바칠 만한 재주와 학식 없어 부끄럽네

愧無才學獻吾王

세 번 불러도 군신의 사귄 이루지 못하니

三徵未遂君臣契

부질없이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그리워한다오

空有葵心戀太陽

울곡과 함께 시냇가에 앉아서

높은 나무 시냇가에 둘러 있으니	溪上圍高樹
맑은 그늘 낚시터에 흠어들어	清陰散釣磯
흐르는 냇물은 원래 쉬지 않고	川流元不息
물고기와 갈매기는 절로 기심機心을 잊는다오	魚鳥自忘機
풀 가에는 풍광이 연하고	草際風光嫩
이끼 낀 냇가에는 들길이가늘구나	苔邊野逕微
한가로운 사람 손에 책을 펴 보며	閑人書在手
서로 마주하여 돌아갈 줄 모르네	相對淡忘歸

부질없이 짓다

울곡은 세상 걱정애 옛 은거하던 곳 하직하고	栗谷憂時辭舊隱
풍애는 부모 봉양 위해 재랑이 되었다오	楓崖爲養作齋郎
오직 우계의 늙은 거사만이	惟有牛溪老居士
눈 내린 초가집 아침 햇살에 누워 있다네	雪邊茅屋臥朝陽

남의 시운에 차운하다

북풍한설의 산중에서 화롯불 끼고 앉아	風雪擁山爐
외로이 시 읊으니 이는 사람 적어라	孤吟相識稀
뜬 이름은 고요한 뜻에 해롭고	浮名妨靜意
말로는 침착한 기지機智가 드무네	末路少沈幾

밝은 달은 숲 언덕에 성글고
 사립문에는 흰 돌의 낚시터 있다오
 이곳에 그윽한 취미 가득하니
 백년토록 이 소원 이루기 바라노라

明月疎林岸
 柴門白石磯
 於焉有幽趣
 百歲願無違

산중으로 돌아오다

궁궐에서 처음 배알한 초야의 신하
 궁문을 나오는 즉시 야인이라오
 나리를 올리는 효험이 없음 스스로 부끄럽고
 게로기를 먹으며 남은 봄이 있음을 아노라
 산에는 가을 단풍이 깊어 사랑스럽고
 사립문에는 달빛이 새로워 기쁘고야
 동자가 옷자락을 끌고 와서 말하기를
 시냇가의 고사가 웃고 또 찡그린다네

天墀初拜草萊臣
 纔出脩門卽野人
 自愧獻芹無寸效
 也知啖薺有餘春
 遙憐嶽面秋容老
 猶喜柴門月色新
 童子牽衣前致語
 隔溪高士笑還噉

(송·宋대의 시에 '시냇가 고사의 비웃음을 면치 못한다' 하였다)

가을에 우연히 읊다

늦은 가을 서산의 해 숲 속으로 사라지니
 낙엽이 쌓여 가는 길을 덮고 있네
 아내 신세 송옥과 같지 않으니
 어이하여 이 쓸쓸한 마음 남들을 감동시킬까

窮秋山日下西林
 落葉蕭蕭行逕深
 身世未應同宋玉
 如何慄慄感人心

선고先考께서 제題한 승려의 시축詩軸 뒤에 쓰다

옛집에 승려가 찾아왔으나	故宅僧來訪
산인은 이미 예전에 돌아가셨다오	山人已昔時
은근히 외로운 마음 위로하며	慇勤慰孤露
옛날 쓰신 시 보여주네	出示舊題詩

산중으로 돌아오다

외로운 몸 시냇가로 돌아와 낮에도 사립문 닫고 있으니	隻影歸溪掩畫扉
종남산 돌아보매 더욱 아련하네	終南回首轉依依
동쪽 울타리에 다행히 국화꽃이 피어 있어	東籬賴有黃花在
가을 향기 풍기며 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누나	留得秋香待我歸

회포를 쓰다

거친 쌀로 밥을 짓고 종이로 옷을 지어	麤疎爲飯紙爲衣
(선생은 평소 항상 종이옷을 만들어 추위를 막곤 하였다)	
백수에 산중에 사니 세상 생각 적어지네	白首山中世慮微
다행히 창문 앞 서가에 책이 가득하니	賴有窓前書一架
옛사람의 심사와 다르지 않기를 바라노라	古人心事願無違

곽의직郭宜直 희온希溫의 시운에 차운하다

(곽의직이 파산의 절정絶頂에서 독서하므로 감동하여 그의 시운에 차운하다)

관녕^{管寧}의 평상^{平牀}에 잠심하여 돌아갈 줄 모르는데 潛心管榻坐忘歸

(잠심이 어떤 본에는 공심^{功深}으로 되어 있다)

악사에는 겨울 깊어 눈발이 날리누나 嶽寺窮冬雪正飛

오늘 아침 옛날 배우던 일 백수에 회상하니 舊學今朝回白首

사십구 년 동안 잘못된 것 너무나 많구나 悠悠四十九年非

도성에서 나오던 날에 감회를 읊다

올 때에는 눈발 날리더니 갈 때에는 얼음이 어니 來時見雪去時冰

한번 궁궐 문에 들어오매 병이 날로 더하였네 一入脩門病日增

외로운 신하 서울을 떠나던 날에 堪恨孤臣去國日

종로 종소리와 북소리 새벽을 알리던 것 한스럽다오 天街鍾鼓報晨興

이공저^{李公著} 성중^{誠中}이 부쳐준 시운에 차운하다

상주^{相州} 사람들 함께 치규가 오기를 바라니 相人共望稚圭來

주금의 높은 정자에 언제나 돌아오나 畫錦高軒幾日回

(기일^{幾日}이 어떤 본본에는 미기^{未幾}로 되어 있다)

다시 한천에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니 重到寒泉應有日

촌늬은이와 술잔 나눌 생각이 없는가 可能無意野翁盃

심방숙^{沈方叔} 의겸^{義謙}에 대한 만사

떠 세상에 떠나가고 남는 것 무엇이 참일런가 去留浮世定誰眞

객사에서 서로 만나면 이것이 친구라오	逆旅相逢是故人
오늘날 문에 기대어 한 곡조 노래하며	今日倚門歌一曲
봄철에 옛 산으로 돌아가는 그대 전송하네	送君歸臥舊山春

안생安生 소邵의 시문에 차운하다

옛 선비들은 세 가지 바람이 있었다는데	舊聞志士有三希
나는 백수 되어 아득히 시골의 사립문에 기대어 있네	白首茫然依野扉
학문의 힘 배양하지 못하니 실제 얻음을 근심하고	學力未培愁實得
헛된 명성 세상을 놀라게 하니 참으로 위기라오	虛名驚世足危機
비 갠 뒤에 산 빛은 더욱 푸르고	山含霽色添新翠
가을 하늘의 달빛은 밝은 빛 드날리네	月映秋空揚素輝
오늘밤에 그대의 시 손에 놓고 읊으니	此夜吟君詩在手
잠 깨어 말하지 않으면 그 누가 이것을 알런가	寤言弗告有誰知

머리를 빗고 우연히 제하다_계미년(1583)

나이가 어언 마흔아홉이 되니	行年四十九
흰 머리털 온 머리에 생기누나	白髮滿頭生
오히려 잘 늙어감이 기쁘지만	猶喜吾能老
학문이 이루어지지 못함 부끄러워라	還慙學未成
푸른 산 빛은 사방 자리에 들어오고	青山入四座
푸른 물은 앞 가등을 돌고 흘러가네	綠水繞前楹

애오라지 편안하고 한가로운 곳에서
 넉넉히 놀며 성품과 마음 수양하리라

聊可安閑地
 優游養性靈

율곡에 대한 만사_갑신년(1584) 봄

벼슬 없는 것이 어찌 좋지 않으랴
 몸이 한가롭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다네
 산과 들이 어찌 넓지 않으랴
 한가로이 내 집에 살 수 있다네
 어이하여 서울을 떠났다가 다시 와서
 말년의 길 주저하였나
 지사도 성공하기 어려우니

無官豈不好
 身閑且讀書
 山野豈不寬
 居然着吾廬
 云胡去復來
 末路仍躊躇
 志士亦少成

(왕개보王介甫의 시에, '지사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고 중간 정도의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세상을 따르면 공명을 이룬다' 하였다)

하늘의 마음 끝내 어떠한가
 대도가 마침내 어두워지니
 생민들 농토를 잃은 듯하네
 기심機心 없음이 뛰어난 지혜이니
 공교로운 생각은 도리어 시끄럽기만 하다오
 가슴에 서린 한 다 말할 수 없으니
 나의 노랫소리 어이 이처럼 슬픈가
 인생살이 참으로 괴로우니

天心竟何如
 大道終晦蝕
 生民失菑畲
 無機是獨智
 用巧還紛挐
 有恨不可窮
 有歌何太歎
 方知有生苦

하늘로 돌아감이 즐거운 것 비로소 알겠네
 모름지기 구천九泉 아래에서 만나
 우리들의 뜻 천추에 길이 이루리라

樂哉歸太虛
 會須泉下逢
 千秋長遂初

파산으로 돌아오다 _갑신년

첩첩산중에 온갖 병을 앓는 이내 몸
 옛터에 돌아오니 들의 정취 새롭구나
 군주의 은혜 갚으려 해도 길이 없으니
 타생에서 결초보은하는 사람 되리라

萬疊山間百病身
 歸來依舊野情新
 君恩欲報知無路
 應作他生結草人

남쪽 물가에서 저물녘에 거닐다 _갑신년

물을 건너고 숲 속을 지나 평평한 들 바라보니
 산 끝에는 새가 날아오고 저녁 구름 피어오른다
 전원은 참으로 한가로운 곳인데
 무슨 일로 인간에 부질없이 이름을 얻었는가

度水穿林野望平
 鳥歸山際暮雲生
 田園箇是真閑處
 何事人間浪得名

울곡의 시운에 차운하다 _정해년(1587)

명아주와 콩잎도 굶주린 배 채울 만한데
 시원한 바람 작은 방에 불어오네
 새로 자란 연한 잎 사랑스러워
 뜰 앞에 자라는 풀 베지 않노라

藜藿足充飢
 清風來斗室
 愛此新葉嫩
 庭前草勿伐

고요히 이 소원 이루기를 원하니
전전공공하여 작은 일도 삼가리라

靜言願無違
戰兢防眇忽

오윤겸과 황신 두 문생에게 써 보여주다_병서并序, 정해년 8월

10년 전에 율곡이 나를 찾아와 함께 시냇가 집에서 유숙하였는데, 이때는 중추仲秋라서 창 밖에 온갖 풀벌레들이 울어 대어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잠시도 쉬지 않고 다투어 울었다. 새벽이 되자, 그 울음소리가 더욱 높아져 스스로 제 낙樂을 즐겨 수고로운 줄도 몰랐다. 나는 감탄하기를, “저 미물微物도 오히려 그 직분을 다함이 이와 같구나” 하였다. 이에 율곡이 또다시 감탄하여 말씀하기를, “지각知覺이 많은 인간은 이해利害를 잘 알아 이로운 것을 택하고 편안한 곳에 나아가므로 게을러져 날로 야박해지니, 이 때문에 사람은 본성을 다하지 못한다. 그러나 미물들은 천기天機가 스스로 움직여 굳이 닦지 않고도 천직天職을 다하는 것이다” 하였다. 나는 그의 초월超越한 견해를 좋아하여 일찍이 잊은 적이 없었다. 오늘 새벽에 감회가 일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풀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일어나 완연히 예전의 가을과 똑같았다. 스스로 생각건대 잔약한 나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율곡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어리석고 못난 나는 처음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날로 더욱 어둡고 누추해지니, 매우 미물에 게 부끄럽다. 옛날 주 부자朱夫子가 운당포篋筥舖에서 유숙할 적에 벽 위의 시에,

휘황한 영지는	煌煌靈芝
일 년에 세 번 빼어나네	一年三秀
나 홀로 무슨 일로	予獨何爲
뜻이 있으나 이루지 못하는가	有志未就

라고 한 것을 보고는 깊이 스스로 감탄하여 시를 써놓고 떠나갔다. (그 시에, “정정한 백 년 열마를 사는가. 영지는 세 번 피었는데 무엇을 하려는가. 금단은 일 년 이 다 가도록 소식 없으니, 부질없이 운당의 벽 위에 있는 시 보고 탄식하네[鼎百年能幾時 靈芝三秀欲何爲 金丹歲晚無消息 空歎簞簞壁上詩]” 하였다)

아, 나는 오늘날 옛사람에게 감회가 있고 풀벌레 소리에도 부끄러움이 있으니, 느낌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인하여 졸렬한 시구를 써서 받들어 두 현자에게 화답해줄 것을 요구하듯이 하였으니, 한편으로는 뜻을 말하는 방법을 요청한 것이요, 한편으로는 서로 개발하는 뜻을 바라서이다. 이것이 비록 한가로운 말이긴 하나, 잘 배우는 자가 물건을 관찰하여 자기 몸을 살피고 가까이에서 취하여 스스로 기른다면, 반드시 감동하여 분발하는 공부에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풀뿌리 먹고 햇빛으니 바람과 이슬의 냉기 침노하는데	草根風露冷侵身
풀벌레 소리 밤새도록 울어 새벽에 이르네	勤苦聲聲夜向晨
하찮은 저 미물도 본성을 다하는데	感爾微蟲能盡性
가장 영특한 인간 백두에 더욱 부끄럽네	白頭重愧最靈人

세상만사 이루지 못하고 온갖 병을 앓는 몸	萬事空餘百病身
풀벌레 소리 속에 앉아 새벽에 이르렀네	候蟲聲裏坐侵晨
가을바람 부는 정경 옛날과 똑같은데	秋風情境依然在
지는 달 무단히 옛사람에게 비추누나	落月無端照舊人

피꼬리 우는 소리를 듣다

새벽 창문에 또렷한 피꼬리 노랫소리	曉窓鶯語轉分明
동풍에 꿈 깨니 두세 소리 들려오네	夢覺東風三兩聲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시 읊으며 돌아오는 흥취 생각하니	忽憶詠歸沂上興
온갖 꽃 활짝 피었는데 봄옷이 가벼워라	百花深處袂衣輕

안응휴安應休 천서天瑞에게 주다

한 구역 물 맑고 구름 흘러가는 곳에서 밭 갈고 우물물 마시니	一區耕鑿水雲中
세상일에 관심 없는 백발의 늙은이라도	萬事無心白髮翁
몇 마리 산새들의 노랫소리에 잠을 깨고는	睡起數聲山鳥語
청려장靑藜杖 짚고 산보하며 꽃떨기를 맴도누나	杖藜閑步邁花叢

가을에 산에서 거처하는 안응휴를 방문하다

늦게 핀 국화 노랗고 연한테	黃嫩香宜晚
-----------------	-------

빨강게 물든 단풍잎 붉은 비단과 같구나	紅酣錦已齊
문을 두드리고 찾아온 들 손님	敲門來野客
술에 취하여 해가 저물도록 누워 있네	酩酊欲鷄棲

산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석장군石將軍을 읊다

(석장군은 일명 쌍미륵雙彌勒인데 파주의 길옆에 있다)

푸른 절벽이 석장군으로 변하니	蒼崖化出石將軍
만고의 것 모두 사라지고 너만 홀로 남았구나	萬古銷沈獨有君
부러워라 너는 진세의 일에 생각이 없어	却羨無心塵世事
산머리 지는 해에 한가로운 구름과 짝하고 있으니	山頭斜日伴閑雲

산중에서 생활하며 즉흥적으로 읊다_무자년(1588) 봄

삼월이라 차가운 바위에 핀 꽃 처음 보니	三月寒巖初見花
외로이 활짝 피어 산굽이에 비추누나	繁英寂寞照山阿
천연적인 봄빛 절로 피었다 지니	天然春色自開落
주문에 가무歌舞 소리 많음 상관하지 않네	不管朱門歌舞多

사암思菴 박상공朴相公 순淳에 대한 만사

세상 밖의 운산 깊고도 깊은데	世外雲山深復深
시냇가에 초가집 이미 찾기 어렵네	溪邊草屋已難尋
배견와 위에 삼정의 달	拜鵲窩上三更月

(배견외는 상공相公이 영평永平의 산속에 마련한 서재의 이름이다)

응당 선생의 일편단심 비추리라

應照先生一片心

시냇가에서 봄날에

오십 년 동안 푸른 산 아래 누웠는데

五十年來臥碧山

어인 일로 시비가 인간에 이르는가

是非何事到人間

작은 집에 봄바람 무한히 불어오니

小堂無限春風地

꽃은 피고 버들은 조는 듯 한가롭고 또 한가롭네

花笑柳眠閑又閑

감악산紺嶽山에서 노닐다 _경인년(1590) 가을

깨끗한 시냇물 두 산 가운데에 쏟아지는데

一溪清瀉兩山中

두메산골의 단풍 숲 밖에까지 비추어 붉구나

峽裏楓林分外紅

다시 취미봉 아래의 절에 들어가

更入翠微峯下寺

푸른 절벽 굽어보며 낙락장송에 의지하노라

步臨青嶂倚長松

금강사金剛寺에서 독서하는 제생諸生들에게 부쳐주다 소서小序를 아 울러 쓰다 _경인년 11월

큰비로 시냇물이 불어나 도보徒步로 건널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여러 친구들과 며칠 동안 떨어져 있으니, 참으로 매우 염려스럽다.

요즈음 열심히 독서하고 있는 제군들의 형편은 어떠한가. 내 시구가 매우 누추하여 본래 줄 수가 없으나, 다만 각기 화답하여 내가 제군들의

뜻을 볼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한다.

세모에 서생들이 경전을 읽고 있으니	書生歲暮抱遺經
고요한 자리에 차갑고 긴 밤 어떻게 견디는가	靜榻那堪霜夜永
서산에 게로기 먹음은 이 어떤 사람인가	西山啖齋是何人
이에 탄식하며 깊이 반성하노라	歎息於焉發深省

서산西山 선생 채계통蔡季通이 서산의 절정에 올라가 책을 읽을 적에 굶주림을 참느라 게로기를 캐어 먹곤 하였다. 게로기는 산나물인데 그 뿌리가 사삼沙蔘(더덕)과 비슷하다. 이는 식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게로기를 캐 먹으면서 독서한 것이었다. 제군들은 밥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또 장차 산사山寺에서 고기를 먹을 것이니, 옛사람이 굶주리고 곤궁한 것과 는 매우 다르다. 또 어찌하여 책을 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유씨柳氏의 시냇가 정자에 쓰다

(적성積城의 감악산紺嶽山 북쪽 산중에 있다)

세상 밖에는 운산이 아름답고	世外雲山好
시냇가에는 초가집이 새롭구나	溪邊草屋新
서로 만나도 전혀 알지 못하니	相逢渾不識
진나라를 피해 온 사람인가 의심스럽네	疑是避秦人

5월 7일 암천사巖泉寺에 오르다 _임진년(1592)

(암천사는 안협현에 있다)

난리란 말 일찍이 책 속에서 보았더니	亂離曾見史書中
침통함이 오늘 아침 이내 몸에 이르렀네	沈痛今朝着我躬
서쪽으로 취화가 있는 곳 멀리 바라보려	西望翠華天極目
높은 곳에 오를 적마다 하염없이 눈물 흘리노라	每登高處泣無窮

안협 후포後浦에서 전전하며 우거하다 _임진년 여름

두메산골이라 백성들의 집 절반은 산중에 있는데	峽裏民居半在山
맑은 강물 한 띠처럼 산 사이를 감고 도네	淸江一帶繞山間
푸른 나무 무성한 모랫가 밭에	白沙翠樹溪田畔
한가로이 문 닫고 있으니 뽕나무와 삼만 자리누나	門掩桑麻盡日閑

승려가 시축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는데, 시축에 율곡의 시가 있었
다 _계사년(1593)

(석담서원에서 우거할 때이다)

지음이 이미 떠나가 붉은 줄 끊기니	知音已去朱絃絕
산 달 외로이 비추고 시냇물 구슬피 울며 흘러가네	山月孤來溪水悲
우연히 노승을 만나 옛날이야기 하니	偶與老僧尋舊話
천애 멀리 눈물 떨구며 홀로 머뭇거리노라	天涯垂淚獨躊躇

신광사神光寺의 승려에게 주다 _계사년 가을

한 지팡이에 운납雲衲으로 가을산을 내려오니 一筇雲衲下秋山
 난세에는 세상을 벗어난 한가로움보다 더 좋은 것 없다네 亂世無如出世閑
 차가운 시내에 낙엽이 쌓여 길 희미한데 寒磧落葉迷行逕
 오직 성긴 종소리에 따라 스스로 오고 가네 唯趁疎鍾自往還

조여식趙汝式 헌憲을 애도하여 이대중李大仲 해수海壽의 시운에 차운하다

삼강을 지탱한 큰 공 그 누가 짝하랴 撐挂三綱匹似誰
 만 번 죽음 앞에 당하여도 마음 변치 않았네 萬死當前志不移
 시퍼런 칼날 무수히 있어도 평지처럼 밟으니 白刃如麻踏平地
 왜적들도 오히려 그의 성명 알고자 하였네 賊奴猶欲姓名知

석담에서 이대중의 시운에 차운하다

서문을 지나오니 슬픈 마음 견딜 수 없어 路出西門不勝悲
 나그네 고인을 조문하고 사당 곁에 섰노라 客來弔古傍遺祠
 맑은 시내에 나뭇잎 떨어지고 산중의 집 조용한데 清溪木落山樊靜
 깨끗한 풍경 오곡의 가사와 흡사하네 風景依稀五曲詞

(옛날 주자의 무이산武夷山 은병정시隱屏精舍가 시냇가 다섯째 굽이에 있었는데, 도가 십절棹歌十絶이 있었다. 석담서원 역시 다섯째 굽이에 있었으므로 을곡 선생이 은병시隱屏

禰라고 편액하고 주자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하여 우러르는 뜻을 붙였다. 울곡이 별세한 뒤에는 울곡을 이 사당에 배향하였다)

윤생尹生 기현耆獻의 시문에 차운하여 서울로 가는 그를 송별하다

(석담서원에서 우거할 때이다)

바닷가에 가을 깊은데 돌아가는 그대 전송하니	海城秋晚送君歸
한번 작별하면 다시 만날 기약 없네	一別重逢未有期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신하 눈물이 흘러 가슴을 적시니	流落孤臣淚沾臆
남쪽으로 서울 하늘을 끝없이 바라보노라	南天目極望京師

윤생 기현의 시문에 차운하다

(이때 석담에서 우거하였는데 옆에는 울곡의 고택이 있었다)

옛 자취 모두 없어져 찾을 수 없는데	舊迹都迷不可尋
나 홀로 산자락에 올라와 있네	我來山際獨登臨
석양에 저녁연기 피어오르는 아련한 곳에	孤煙落日依稀處
당년에 세상 구제하려던 그 마음 누가 알까	誰識當年救世心

신광사 시축의 시문에 차운하다 _갑오년(1594) 봄

바닷가라 봄이 일찍 이르니	海國春生早
산중의 사립문에는 시냇물이 가득하네	山扉水滿溪
꽃 피는 아침 자갈길 걸으면서	花朝行犖确

운넙과 함께 손잡고 가노라

雲衲共提携

제군과 작별하다 _갑오년 9월

세상이 혼란하여 작별을 자주하니

世亂易爲別

남은 인생 모두 백발이 되었구나

餘生俱白頭

나그네 태운 배가 오늘에 출발하니

客舟今日發

맑은 한강 또다시 서쪽으로 흐르리라

清漢又西流

처음 삼각산에서 우거하며 감회를 쓰다 _갑오년 9월

배 한 척에 병든 몸 싣고 대궐을 하직하니

一舸載病辭丹闕

가을 구름 적막한 가운데 눈물 뿌렸네

淚灑秋雲寂寞中

어느 날 고향에 봄비가 흠족하여

何日故山春雨足

들밭 초가집에서 풍년을 축원할까

石田茅屋祝年豐

외로운 마을 문 밖에는 파란 물 하늘과 연하였는데

孤村門外水連空

세모에 관하에는 소식이 끊기었네

歲暮關河信不通

멀리 바라보니 구름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極目歸雲何處是

서울은 바로 바다 하늘 동쪽에 있구나

神京正在海天東

송운장宋雲長 익필翼彌이 작별할 때에 지어 준 시운에 차운하다

(소서小序를 아울러 쓰다 _갑오년 9월)

서강西江에서 작별할 때에 도보로 십 리를 걸어와 멀리 교외郊外에서

전송하니, 이 지극한 마음 감사하여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소.

더구나 소매 속에서 주옥같은 시를 꺼내 주었는데, 뜻이 깊고 진중하
므로 보배처럼 여기고 세 번 외우며 끝없이 가상히 여깁니다.

감히 졸렬한 시구를 엮어서 고상한 시운에 따라 화답하는 뜻을 다소
퍼니, 누추하여 제대로 시가 되지 못함은 부끄러워할 겨를이 없습니다.

위급한 때에는 세상을 구제할 계책이 있어야 하는데 扶危須用濟時籌
간사한 말만 늘어놓으니 참으로 부끄럽네 邪說營營有足羞
(이때 주본奏本의 일로 '간사한 말로써 세상을 미혹시킨다'는 전교가 있었다)

끝내 너그러운 은혜로 강해로 떠나오니 終荷寬恩江海去
백구가 부침浮沈하는 고깃배에 부끄럽네 白鷗波上愧漁舟
쓸쓸한 옛 서울 반가이 찾아주니 舊京寥落喜知音
한번 흔쾌히 웃으며 이 마음 터놓았네 一笑欣然契此心
봉래도蓬萊島에서 요초를 캐자고 약속하였는데 蓬島相期拾瑤草
단정에 단약丹藥이 이루어지면 그 누가 금할까 藥成丹鼎有誰禁

박수경朴守慶에게 주다

(소서小序를 아울러 쓰다)

정유년(1597) 봄 2월에 도로道路에 전하는 말들이 매우 황급하였는데,
박군朴君이 시냇가로 나를 찾아와 이미 강동江東과 삼등三登의 사이에 집
터를 정하였다고 말하였다. 내가 그를 부러워하여 마침내 단구短句를 써

주는 바이니, 후일 다시 서로 만나기를 바란다.

오시의 문 앞에 있었던 일	吳市門前事
오히려 천박한 세속의 말 전해오네	猶傳淺俗言
어찌 처자를 모두 태우고서	還如載妻子
무릉의 도원으로 떠나가는 것만 하겠는가	去入武陵源
산 밖에는 고깃배 있으니	山外漁舟在
복숭아꽃 물결 따라 흘러오네	桃花逐水流
나루터 물어 나도 찾아가려 하니	問津吾欲往
그대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다오	遮莫掉君頭

동은峒隱이 와서 문병하므로 시를 지어 영결하다

(동은은 이공李公 의건義健의 별호이다. 무술년 5월 이것이 절필絶筆이다)

한번 그대를 보고픈 생각 간절하였는데	思君一見意淒淒
무궁한 속으로 떠나가면 온갖 형상 공허하겠지	去入無窮萬象虛
오직 상상하건대 해마다 산 달이 아름다워	惟想年年山月好
깨끗한 빛 예전처럼 우계를 비추리라	清光依舊照牛溪

『우계집 속집』 제1권

정계함鄭季涵 철澈에게 답하다 _신유년(1561, 명종 16) 봄

나그네 생활 한가로운 몸이 소요할까 걱정하여	只愁客味擾閑身
집에 돌아가길 바랐는데 이제 열흘이 못 되었네	長願歸家未一旬
이제는 청산 속에 한가로이 앉아	如今却坐青山裏
다시 성안을 향하여 옛 친구 생각한다고	還向城中憶故人

선고先考께서 써 주신 승려의 시축 끝에 쓰다 _갑술년(1574, 선조 7) 5월

유편을 한 번 읽어보니 감개가 새로운데	一讀遺篇感慨新
이제 손꼽아 헤어보니 십오 년이 되었구려	如今屈指十五春
남은 인생 외로운 마을에서 병을 앓고 있으니	餘生抱病孤村裏
오고 가는 산사의 승려만이 구면이러오	來往山僧是舊人

선고의 시운으로 삼가 차운하여 승려의 시축에 쓰다 _병자년(1576, 선

조9) 여름

앉아서 설악산을 구경하니 십 년도 잠깐이요	坐觀雪岳十年輕
처음으로 세상에 내려오니 도기가 깨끗하네	初下遊方道氣清
다시 우계를 건너 옛 뜻을 찾으니	重渡牛溪尋舊意
고로의 여생을 말로 다할 수 없구려	不堪孤露說餘生

이몽응李夢應 제신濟臣에게 답하다 _기묘년(1579, 선조 12)

산중이라 진세의 일 적으니	山中少塵事
내가 한 골짜기를 독차지하였네	我來專一壑
더구나 만물이 자라나는 시절을 당하여	況當長養節
봄바람 들관 너머에서 불어오네	春風野外發
골짜기 어귀에는 복사꽃 붉게 피었고	谷口桃花紅
냇시터 가에는 방초가 푸르누나	磯邊芳草綠
산책하며 오랫동안 한가롭게 거니니	散策久伊猶
어느덧 차츰 자득한다오	於焉稍自得
누가 알라 삼베옷 입은 늙은이가	誰知被褐翁
이미 가슴속의 의혹 깨우쳤음을	已辨胸中惑

이몽응에게 주다

천심을 닦아 이 인을 본성으로 간직하니	克肖天心性此仁
몸에 가득한 것은 모두 살리기를 좋아하는 봄뜻이라도	滿腔都是好生春
벽에 써 붙인 여상의 글자 보기 부끄러우니	壁間愧視如傷字
서를 미루어 가려면 우선 차마 못하는 마음 가져야지	推恕須從不忍人

안경용安景容 창庵에게 주다 _갑신년(1584, 선조 17) 가을

가슴속에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있겠는가	方寸何曾有不平
분수에 따라 청빈하게 사니 나의 삶 즐겁구나	淸貧隨分樂吾生

만약 아름다운 이름 세상에 남기려고 한다면	若要留得佳名在
풍진에 명예를 좇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	何異風塵故逐名
혼탁한 세상에 부귀 추구하는 마음 쉬이 없앨 수 없으니	濁世營營未易平
너무 번거롭게 꾸짖은 장생이 참으로 우습구나	太煩呵叱笑莊生
다만 자신을 위한 참다운 공부 쌓을 뿐이니	只應爲己眞功積
인을 당하여 구차히 이름을 피해서야 되겠는가	何必當仁苟避名

**율곡의 묘소에 가서 곡한 다음 분묘를 지키는 승려의 시축에 율곡의
시가 있는 것을 보고 그아래에 쓰다**

세태는 사람을 따라 바뀌고	世態隨人轉
시름은 늙을수록 더욱 새로워라	憂端老更新
어찌 이 몸이 뒤늦게 죽어	那知作後死
시축을 펴보고 한 번 서글프게 될 줄 알았으랴	披讀一傷神

**최시중崔時中 운우雲遇의 향포서실香浦書室에 부치다 _병술년(1586,
선조 19) 7월**

향포의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니	占得幽居香浦村
무궁화 울타리의 초가집 도원과도 같구나	槿籬茅屋似桃源
책 읽는 소리 속에 꽃그늘 돌아가는데	讀書聲裏花陰轉
한가로이 유경을 펴 지손들 가르치네	閑把遺經教子孫

전명석全命碩에게 주다

늙은 사람의 세상살이 꺼진 재보다도 쓸쓸하니
탄식하며 그대 그리워함 하루에도 몇 번인가
낮잠에서 막 깨어나니 동자들 말하기를
서쪽 이웃에서 빗속에 술을 보내왔다 하네

殘年人事冷於灰
嘆息思君日幾回
午睡初醒童子語
西隣送酒雨中來

분분한 세상일은 나무 끝의 비와 같고
야박한 인정은 바람에 날리는 버들개지라오
임천에 높이 누워 아이들 노는 것 구경하니
사내 너머 어디에선가 노쇠한 늙은이 비웃겠지

紛紛世事林梢雨
薄薄人情柳絮風
高臥林泉看兒戲
隔溪何處笑衰翁

전원의 흥취 _ 경인년(1590, 선조 23) 겨울

전원에서 헛된 명성으로 늙어가니
백발에 청산을 대하는 것 부끄럽네
도연명의 집에 국화가 피었으니
고상한 풍류 고금이 일반이라오

老閱虛名咲畝間
羞將白髮對青山
黃花故在淵明宅
輸與風流作一般

안습지安習之 민학敏學에게 답하다

찬이슬 내려 옷이 모두 젖었는데
저녁 산모퉁이에 홀로 서 있노라
부질없이 세 오솔길 열림을 기뻐하나

滿衣零露濕
獨立暮山隈
謬喜開三逕

어찌 팔애시를 읊을 수 있겠는가	那堪詠八哀
시냇물 소리는 밤에 절로 들려오고	夜溪聲自度
가을이라 나뭇잎이 먼저 쌓이누나	秋樹葉先堆
천 리 먼 곳에서 편지가 오니	千里書來日
시름겨운 간장 이미 아홉 굵이랴오	愁腸已九廻

석담에 우거하다 _계사년(1593, 선조 26) 겨울

육십 세의 늙고 병든 이 몸	六十老病翁
생애가 굴러다니는 쭉대와 같구나	生涯作轉蓬
저녁 눈 내리는데 돌아가고픈 마음 간절하나	歸心暮雪外
어지러운 산속에 외로운 그림자만 남아 있네	孤影亂山中
병화가 남쪽 변방을 휩쓰니	兵火迷南徼
고향 소식 듣고자 북풍을 향하누나	鄉音遡北風
태평성세의 좋은 운이 열릴까 하여	泰來開景運
아름다운 상서로 풍년을 징험하네	嘉瑞驗年豐

정자신鄭子慎 지승之升에게 주다

정자신이 깊은 산중에 집을 짓고는 거문고를 타며 책을 읽었다. 그리하여 외물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그 뜻이 호걸스럽고 초일하며 그 격조가 깨끗하고 웅장하여 측량할 수 없으므로 내 지금껏 공경하고 감탄한 나머지 줄구拙句를 써서 주는 바이다. 시는 다음과 같다.

시공에 빠지지 아니하여 기개가 절로 호걸스러우니 不坐詩窮氣自豪
 흥이 일자 붓을 잡고 도도히 흐르는 물처럼 글을 쓰네 興來拈筆水滔滔
 능운의 시구를 지을 길은 없으나 無由咀破凌雲句
 신선이 되어 지위가 높다오 參得仙山地位高

이경로李景魯 회참希參에게 주다 .

호해에 삼 년 동안 헤어져 있으니 湖海三年別
 슬프고 기쁨에 눈물 흐르려 하네 悲歡淚欲垂
 생활은 가난하고 또 병들고 爲生貧又病
 신세는 죄를 짓고 또 잘못을 저질렀노라 身世罪兼非
 멀리 동심의 교분을 생각하고 遠摶同心契
 대아의 시를 공경히 받았네 欽承大雅詩
 길게 시 읊으며 기쁨에 잠 못 이루니 長吟喜不寐
 산에 뜬 달이 소나무 사립문에 들어오네 山月入松扉

세상 밖 한가로운 곳에 살고 있어 世外身閒地
 구름긴 산 홀로 친할 수 있다오 雲山獨可親
 푸른 소나무는 굳은 절개를 나타내고 蒼松爲節苦
 밝은 달은 이 마음의 참됨이라오 明月此心眞
 말년의 계획은 세 오솔길에 있고 晚計存三逕
 남은 인생 한 티끌처럼 살겠노라 餘生寄一塵

지금 다소 자득할 수 있으니 如今稍自得
하필 위천의 물가에서 낚시질할 것이 있겠는가 何必渭川濱

석담정사의 제현들에게 화답하다

난세에 유리하여 좋은 마을에 들어오니 世亂流離入里仁
한 고을의 현자와 준걸들 반갑게 대하네 一邦賢俊喜相親
온 산에 눈보라 몰아치는 차가운 밤 서재에서 滿山風雪寒齋夜
학문을 논하니 의미가 새로움 비로소 알겠구려 論學方知意味新

절차탁마하여 시를 지어 자신의 뜻을 말하니 切磋到底能言志
마음속의 회포 털어놓아 말이 더욱 참되네 輸寫心肝語益眞
병통을 다스릴 방법을 이미 알았으니 治疾既知能去藥
종래의 옛 습관 부디 따르지 마오 從來舊習勿因循

나는 존선생尊先生을 30년 동안 스승으로 여기고 벗으로 사귀어왔는데, 병든 몸으로 선생보다 오래 살아 난리를 만나 이리저리 유리하다가 이곳에 와서 강학하던 곳을 보니, 유적이 매몰되어 거의 찾을 수가 없었소. 다행히 문하의 제현들이 책을 읽고 진리를 탐구하여 장차 자신을 위하고 실제에 힘쓰는 학문에 종사하려 하니, 유풍 여운遺風餘韻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말할 만하였소. 그러나 반드시 학문에 종사하여 날마다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니, 이른바 ‘마음이 청명淸明하고 전일專一하며 침잠

沈潛하고 완색玩索하여 실제로 체행한다'는 공부를 단 하루도 해이하게 하지 말고 부지런히 힘쓰고 힘써서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진실로 제현들이 뜻을 세우고 나아가서 얼마나 견고하게 쌓아가는가 여하에 달려 있을 뿐이요. 아, 선명한 말을 듣고 감발感發하는 한때의 의기意氣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겠소. 이익과 녹을 탐하고 도의를 탐하지 않으며 귀한 사람이 되려 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 것은 풍속과 습관이 밤낮으로 앞에서 해치기 때문이니, 뜻을 세우지 못하고 학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모두 이 때문이요. 주 부자朱夫子는 “병통이 생겨난 곳을 찾아 곧바로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곧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약이다”라고 하였으니, 주 부자의 가르침에 대해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소.

윤생 기현에게 답하다

옛날 동로에 참다운 학자가 있었으니	昔年東魯有眞儒
그대야말로 당에 오른 옛 학도라오	君是升堂舊學徒
고고한 의표 두 번 다시 얻기 어려우니	孤介風標難再得
한가로이 세월을 보내어 중도에 그치지 마오	莫教悠泛止中途

매번 원옹元翁이 맑은 시를 멀리 부쳐왔으나 나는 시를 잘하지 못하여 화답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공자孔子께서 남과 함께 노래하다가 그가 잘 부르면 반드시 다시 부르게 하고 뒤에 따라서 화답하였다”

는 말씀을 생각하고는 두려운 생각이 들기를 “성인은 보답하는 예에 있어서 그 공손함이 이와 같았으니, 내 어찌 감히 소홀하고 태만히 하고 말아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이에 아름다운 시운을 따라 줄구를 엮어서 부끄러워하고 감사하는 정성을 펴는 바이다.

정군정鄭君敬 작礎에게 답하다 _갑오년(1594, 선조 27) 가을

노 하나를 저어 바다 멀리 떠나가니	一棹滄溟遠
돌아가고픈 마음에 백발이 되었다오	歸心白盡頭
지기인 고옥을 만나니	知音逢古玉
형산荊山의 박옥璞玉처럼 눈물 함께 흘리네	荊璞泣同流

이대중 해수에게 화답하다

매년 이날이면 춘대에 모여	每年今日會春臺
장의문 앞에서 달빛 구경하며 돌아왔네	藏義門前帶月回
가절은 절로 오나 인사는 흘러가니	佳節自來人事去
국화는 어느 곳에 누구를 향하여 피었을까	菊花何處向誰開

관련 유적



파산서원

- 지정번호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호
- 지 정 일 : 1983년 9월 19일
- 시 대 : 선조 1년(1958)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늘노리 235
- 소 유 자 : 파주유림
- 규 모 : 사당 12평

이 서원은 조선 중기 학자인 청송 성수침과 그의 아들 우계 성혼, 아우 절효공 및 휴암 백인걸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을 올리며 후학을 양성하던 곳이다.

선조 원년(1568) 율곡 이이, 휴암 백인걸 등 파주 지역 유생들의 주창

으로 창건되었고, 효종 원년(1650) 사액을 받았다. 조선 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시에도 존속되었던 전국 47개 서원 중의 하나로 중요시되던 곳이다.

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그 뒤 다시 복구하였으나 한국 전쟁 때 다시 불타 1966년 서원 본전인 사당만 복원하였다. 사당 주위로 는 방형의 담장을 돌리고 정면 중앙에 솟을삼문을 두었다. 사당은 이별 대의 기단 위에 전돌을 깔고 원형의 초석과 원기둥으로 되어 있다. 건물 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전면칸은 퇴칸退間으로 개방되어 있고 각 칸 에는 2분합의 띠살문을 달아놓았다. 지붕은 맞배지붕에 겹처마를 이루 고 있다. 기둥머리에는 보 방향으로 2단의 촛가지를 결구한 이익공二翼 工의 공포栱包 형식을 이루고 있다. 내부의 바닥은 우물마루로 짜여 있 다. 이 건물의 초석과 기단석 등은 건립 당시의 것으로 추정된다.

묘소

- 지정번호 : 경기도 기념물 제59호
- 지 정 일 : 1981년 4월 17일
- 시 대 : 조선 중기 선조 31년(1598)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산 8-1
- 소 유 자 : 창녕 성씨 종중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가인 성혼 선생의 묘이다. 선생의 지는 호원, 호는 우계, 또는 묵암, 시호는 문간이다. 파평 우계 옆에 살았으므로 학자들이 우계 선생이라 불렀다. 성혼은 명종 6년(1551) 생원·진사의 초시에 모두 합격하였으나 복시에는 응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휴암 백인걸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고, 명종 9년에는 같은 고을의 이이와 사귀게 되면서 평생지기가 되었다. 이황의 학설을 이어받아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지지하여 이이와 선조 5년(1572)부터 6년간에 걸쳐 사단칠정에 대한 논쟁을 벌여 유학계의 큰 화제가 되었다.

선조 초부터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다가 이이의 권유에 의해 이조참판에 특배되고 임진왜란 중에는 우참판에 오르고 선조 27년 좌참판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영의정 유성룡과 함께 일본과의 화의를 주장하다 선조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고향인 파주로 돌아왔다. 그가 죽은 뒤 선조 35년 기축옥사己丑獄事와 관련하여 삭탈 관직되었다가 인조 11년(1633) 복관되어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묘역은 사성으로 둘러져 있고 봉분을 중심으로 우측에 묘비가 세워져 있으며 봉분 정면에 상석과 향로석이 배치되어 있다. 상석 앞에는 장대석으로 계단을 쌓았으며 좌우에 문인석을 배치하였다. 묘소 입구 우측에는 신도비가 있는데 비문은 김상헌이 짓고 김집이 썼으며 전액篆額은 김상용金尙容이 썼다.

우계기념관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390-57

우계기념관은 선생의 묘역 아래인 파주읍 향양리 마을회관 옆에 조성되어 2011년 11월 16일 개관하였다. 철근콘크리트의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진 우계기념관은 학문과 교육에 힘썼던 성훈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기념관이다.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승인과 경기도 계획에 따라 실시된 우계 성훈 선생 묘역 정비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파주시의 협조로 2009년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 대지 1,776㎡, 건물 면적 238㎡ 규모로 지었으며, 준공 후 파주시에 기부 채납되었다.

기념관에는 우계 성훈 선생의 학문적 연원과 우계학, 우계의 학파, 우계의 나라사랑 정신, 우계의 후학 양성을 주제로 한 상세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 기념관은 외부 공간에 자연석 담장과 자작나무, 회화나무, 매화나무 등을 심어 선비정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내부 공간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예에 관한 의식을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설계하였다.

특히 기념관 개관과 함께 새롭게 우계 성훈 선생의 영정이 봉안 전시되어 특별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우계 성훈 영정은 2009년 8월부터 자료 수집과 고증 등에 의한 제작 방법으로 완성하였다.

성훈 영정의 용모는 성훈 직계 후손들의 얼굴에서 우성표준용모를 도

출하고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성혼 선생 용모 특징을 찾아내어 성리학자로서의 품격을 담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성혼 영정의 복식은 이재 영정, 이채 영정 그리고 심의를 착용한 조선 중기 영정들을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성혼 영정의 표현 기법은 조선시대 전통 영정 기법을 충실히 따라 제작하였는데, 비단(畫絹)이라는 독특한 재질을 살려내는 배채법(背彩法)과 피부 질감 표현법인 육리문법(肉理紋法) 그리고 적선법(積線法) 등을 활용하여, 얼굴 표정에서 배어나오는 전신사조(傳神寫照)와 정치하고 뽀진한 초상화 품격을 살려내는 데 주력하였다.

영정의 표정과 자세는 이을곡과 양대 학맥을 이루며 활발하게 학문을 연구했던 60대의 풍모로 제작된 반신좌상자세. 작품 크기는 가로 83cm, 세로 130cm 크기의 견본채색 작품이며 석천(石川) 윤여환(尹汝煥)의 작품이다.



2부

파산의 학자들

여 백

청송 성수침
聽松 成守琛

생애



1493(성종 24)~1564년(명종 19).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창녕. 자는 중옥(仲玉), 호는 청송(聽松)·죽우당(竹雨堂)·파산청은(坡山淸隱)·우계한민(牛溪間民). 한성부윤 득식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현령 충달이고, 아버지는 대사헌 세순이다. 어머니는 강화부사 김극니(金克悝)의 딸이다.

아우 수종과 함께 조광조의 문인으로 1519년(중종 14)에 현량과(賢良科)에 천거되었다. 그러나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와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처형 또는 유배당하자 벼슬을 단념하고 청송이라는 편액을 내걸고 두문불출하였다. 이때부터 과업(科業)을 폐하고 『대학』과 『논어』 등 경서 공부에 전념하였다.

1541년 유일로 후릉참봉(厚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처가가 있는 우계에 은거하였다. 1552년(명종 7) 내자시주부內資寺主簿·예산현감禮山縣監·토산현감兔山縣監·적성현감積城縣監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1564년 사지司紙에 임명되었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사퇴했으며, 죽을 때에는 집안이 가난하여 장례를 지낼 수가 없었다. 이에 사간원의 상소로 국가에서 관곽棺槨과 미두米豆와 역부役夫를 지급해주고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에 추증하였다.

조선 초기 성리학의 토착화는 조광조를 중심으로 하는 도학사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의명분과 요순堯舜의 지치至治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묘사화로 불가능하게 되자, 은일隱逸(초야에 묻혀 학자로서만 활동)을 일삼고 산간에 묻혀 자기수양에 힘써 이러한 학풍을 몸소 실천하였다. 그의 문하에서 아들 혼을 비롯한 많은 석학들이 배출되었다.

좌의정에 추증되었으며, 파주의 파산서원과 물계勿溪의 세덕사世德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저서로는 『청송집聽松集』이 있으며, 글씨를 잘 썼는데 「방참관유령묘갈方參判有寧墓碣」이 대표적이다.

문헌 자료



『연려실기술』 제11권, 「명종조 고사본말故事本末」 명종조의 유일

성수침은, 자는 중옥이며, 호는 청송이요, 본관은 창녕이다. 대사헌 세순의 아들이다. 계축년에 나서 신축년에 유일로 천거되어 참봉을 제수하고, 임자년에 주부를 제수하였으나 매번 나아가지 않고 파평 산중에 은거하다가 갑자년에 죽으니, 나이 72세였다. 집의를 증직하고 시호는 문정이다.

○공이 나면서부터 비범하였는데, 어려서 장난을 즐기지 않아 어른과 같았고, 천성이 효성스러워 어려서부터 효성스러운 아이라 불리었다. 부친상을 당하여 3년을 죽만 마시고 제수를 친히 장만하였으며 새벽에 일어나서 산소를 쓸고 향을 태우며 절하기를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꺾이지 않았다. 아우 수종과 함께 일찍이 조광조 문하에 출입하여 모두 명망이 있었으니, 식자들이 영특함은 아우가 낮고, 돈후하고 화하기는 모두 공

을 칭찬하였다. 『월정별집月汀別集』·『명신록』

○중종 기묘년 당시에 선비들의 명성이 너무 성하므로 공이 근심을 하고, 또 친상을 당한 뒤로 몸이 쇠약하여 세상에 나아가 활동하지 못할 것을 스스로 깨달아 마침내 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며 과거 준비도 아니하였다. 집이 북악산 기슭에 있었는데 송림 속에 서당 두어 칸을 지어 ‘청송’이라 이름하고 홀로 그 가운데에 거처하면서 학문으로 낙을 삼았다.

○태학의 선비들이 공의 거상한 효행을 들어 조정에 아뢰려 하니, 공의 친구 상진이 말하기를, “성수침 형제는 학문에 힘쓰는 선비라 장차 대성할 것이 기대되는데, 한 가지의 착함을 들어 일찍 이름이 세상에 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신축년에 조정에서 유일을 뽑아 쓰려 하니, 김안국이 장차 공을 천거하려 하여 홍봉세洪奉世에게 묻기를, “자네는 성군의 절친한 친구이니 이 사람의 경지를 논할 수 있겠다” 하니, 봉세가 말하기를, “자질이 높고 학문이 성취되었으니, ‘죽으므로 도를 잘 지킨다’는 옛말은 이 사람이 해당할 것이다” 하였더니, 안국이, “이에 그칠 뿐인가” 하였으니, 그 신망을 받음이 이와 같았다. 안국이 비록 실지로 천거하지는 않았으나 조정에서 후릉참봉을 제수하였다.

○여러 차례 벼슬을 제수하였으나 사은만 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혹 물으면 말하기를, “나는 대대로 벼슬한 신하이니 왕명을 받고 태연히 있을 수는 없지만, 병으로 능히 벼슬을 살지 못할 것만은 이미 결정되었다” 하였다. 경신년에 특명으로 사지司紙를 제수하니, 영상 상진이 편지로 나

을 것을 힘써 권하였는데, 공이 답하기를, “예전에 문립文立이 정경程瓊
 을 천거하지 않았음은 정경의 천성이 평탄하지 않고 늙어서 다시 세상에
 뜻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니, 공은 나를 아는 이가 아닌가” 하고 마침내
 나아가지 않았다. 그가 죽으니 원근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림이 비었다”
 하였다. 시간원에서 아뢰기를, “전 현감 성수침은 병으로 사절하고 벼슬
 하지 않고 문을 닫고 옛 도를 힘써 행하여 검약하게 몸을 마쳤으니, 참으
 로 한 나라의 착한 선비요 당대의 일민입니다. 바라건대 그 상장喪葬에
 특전을 베푸시어 성스런 조정에서 어진 이를 높이고 노인을 존경하는 뜻
 을 밝히소서” 하였다. 임금이 즐거이 좇아서 곽擲 한 벌을 주고 경기감사
 에게 명하여 쌀과 조를 부의하였으며, 또 사헌부 집의를 증직하였다. 『동
 각잡기』 「행장」

○공이 파주 우계에 집을 정하고, 그 서실을 ‘죽우竹雨’라 이름 지었으며,
 집 가에 뽕나무를 심어 숲을 이루고 누에를 치지 않으니, 혹 그 까닭을
 물으면, “내가 그 아래에서 거닐 적에 푸른 잎은 그늘을 지우고 맑은 바
 람이 솔솔 불어오니 이만 하면 족하다” 하였다. 『해동잡록海東雜錄』 「행장」

○천품이 매우 높아 중후하고 충신하며 키가 크고 골격이 빼어나서 형
 상이 매우 홀륭하고, 기빠하고 성냄을 함부로 나타내지 않고, 때에 맞게
 말하고 웃으니, 바라보면 엄연히 그 덕스러움을 알 수 있었다. 본래 뜻이
 담박하여 세속 밖에 멀리 뛰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리를 초개
 만도 못하게 여겼고, 그 학문은 자신을 반성하여 몸을 닦는 데 힘을 써서
 성誠으로 주장을 삼고, 일찍이 사람들에게 가벼이 말하지 않았다. 『율곡집』

○공이 일찍이 배우는 이에게 말하기를, “도는 큰 길과 같고 성현의 가르침은 해와 별처럼 밝아서 알기에 어렵지 않으나, 요는 힘써 행하여 그 앎을 채우는 데 있으니 말로만 하는 학문은 전혀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하였다.

○그 필법은 아름다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매우 예스럽고 노색창연함을 주로 하며, 득의할 때는 묘하기가 하늘이 빗어낸 것 같았으니, 이는 비록 말단적인 유희이나 그 풍격이 세속에 뛰어남을 짐작하게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선조의 비문 글씨를 청하니, 그 글은 이계전李季甸이 지은 것이었다. 공이 한참 보다가 말하기를, “자네가 이계전이 한 일을 이는가” 하니,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공이, “남추강南秋江이 지은 「허후전許詔傳」에 이 사람 일이 적혀 있다” 하고 다시 말하지 않으니, 그 사람이 그 뜻을 깨닫고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였다. 「행장」

○성운成運이 속리산 아래에 살며 초당을 짓다가 끝을 못 냈더니, 성제원成悌元이 보은현감으로 있으면서 관청의 목수를 보내어 그 일을 마치니, 공이 이를 듣고 사람에게 말하기를, “현감이 관청의 목수를 시켜 사가의 일을 하게 하고, 사가에서도 태연히 이를 받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였다. 그 사람이 주회암朱晦庵(주희의 호)이 정사를 지을 때에 관청의 도움을 거절한 일을 말하니, 공이, “반드시 그런 온당치 않은 점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옛날 주회암이 정사를 지으려는데 안무사가 이를 듣고 관의 힘으로 세우려 하니, 회암이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내가 차라리 정사를 세우지 않겠다” 하였으니, 공의 이 말이 이 일과 정히 합하나 안무사는

지금의 관찰사이니, 한 도의 주인으로서 한 도의 힘을 움직이어 한 정사를 지음은 참으로 온당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수령은 규찰을 맡은 관찰사에 비할 것이 아니니, 그 남은 힘으로 초당 하나 짓는데 도왔다고 의羲에 해될 것이 무엇이리오. 그러나 공이 의를 편안히 하여 비록 일호의 주고받는 것이라도 구차한 근심이 있을까 염려하였으니, 이것이 곧 성현이 조심조심하여 사욕을 극복하고 덕을 온전히 하는 일이다. 참으로 보통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니니, 후학은 마땅히 공경하여 지켜서 잃지 말아야겠다. 『전언왕행록』

○공이 스스로 찬을 짓기를, “그 모습이 말랐으나 그 모양은 또한 예스럽다. 나이 40세에 아직도 한 포의로다. 처음에 먹은 마음 변하지 않으니, 시종 어김이 없네” 하였다.

○성운이 일세의 인물을 논하면서 청송을 제일이라 하였다. 『대곡행장大谷行狀』

『해동잡록』 4, 「본조本朝」

성수침

본관은 창녕으로 지는 증육이며 대사헌 성세순의 아들이다. 집이 백악산 기슭 소나무 숲 속에 있었으며, 서당 몇 칸을 지어 ‘청송정’이라 편액을 쓰고, 평생 과거를 보지 않고 영달을 구하지 않았다. 여러 번 벼슬을 주

려고 불렀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그의 필법은 한때 매우 중시되었으며 죽은 후에 사헌부 집의를 증직하였다.

○청송이 집가에 뽕나무를 심어 숲이 되어도 누에를 치지 않아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으니, 답하기를, “내가 지팡이를 짚고 그 밑을 거닐 적에 푸른 잎이 그늘을 지어주고 맑은 바람이 불어주니 이것만으로도 만족하다” 하였다. 『행적行迹』

『명종실록』 33권, 21년(1566 병인) 7월 19일(무신) 첫 번째 기사

이조서 민기 등이 성수침 등 유일의 추천에 대해 아뢰다

전에 경연관經筵官이 아뢰 성수침 : 자는 중옥이고 본관은 창녕으로 고대사헌 성세순의 아들인데, 그 아우 성수중과 함께 높은 이름이 있었다. 수중은 영발상특英發爽特하고 수침은 혼후천성渾厚天成하며, 그 용모와 사기가 평후관완하므로 바라보면 그가 성덕군자成德君子임을 알 수 있었다. 그 효우孝友의 절의와 순실純實한 덕은 한 세상에 높았으므로 조야가 그를 우러러 보았고, 어진 이나 어리석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를 마치 태산북두泰山北斗를 보듯 하였다. 소시에는 과업科業에 독실히 마음을 기울여 당세에 출세할 뜻을 가지더니, 기묘년에 착한 사람들이 일망타진되는 것을 보고서 다시는 명예를 구하지 않고 모친을 시봉侍奉하며 파평의 산 밑에서 뜻을 길렀다. 중종조에서 일찍이 참봉을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때 주부로서 초빙하니 조정에 와서 사은하였고 두
 고을의 원을 제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그 뒤에 상이 또 특별히 불
 뵈으나 나이는 많고 병은 깊어서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72
 세에 죽었다.

『명종실록』 29권, 18년(1563, 계해) 12월 26일(경오) 두 번째 기사

징사 성수침의 즐기

징사徵士 성수침이 즐하였다.

자는 중옥으로 창녕인이다. 이름다운 자질을 갖고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마치 어른처럼 의젓하였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사람들은 그를 ‘효
 이孝兒’라고 불렀다. 글을 읽을 줄 알면서부터는 과정을 정하여 뜻을 독
 실히 하고 밤낮으로 깨우치지 않았으며, 부친의 상을 당하여서는 아우
 성수종과 함께 애회哀毀하기를 예절에 지나게 하였고 죽을 마시며 삼년
 상을 마쳤다. 어떤 나그네가 그 여막廬幕을 지나다가 효성에 감동하여 시
 를 지어 던져주고 갔는데, 이 시에는 이르기를,

성씨 집안 두 아들이

가룩한 그 효행 가군을 이었네

미음만 마시는 그 정성 해를 가로지르고

분향 뒤의 곡성이 구름을 뚫었다네.
 아침저녁으로 신주에 상식上食을 올리고
 새벽 되고 황혼 되면 분묘를 알현하여
 한결같이 주자朱子 법제 따르다니
 오늘날 이에서 처음 들어보았네.

라고 했는데, 끝내 그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다. 삼년복을 다 마치고 난 뒤에도 언제나 기일忌日을 당하면 열흘 전부터 재계齋戒하였으며 초상 때처럼 애통해하였다. 아침저녁으로 사당에 배알하였으며, 출입할 때도 반드시 고하였다. 그의 형제가 조광조 문하에서 배워 모두 명성이 대단했는데, 수종은 청결 영특하였으나 악한 것을 지나치게 미워한 데 반해 수침은 혼후渾厚 독실하며 침중沈重 강의剛毅하면서도 온화하고 순실純實하였다. 태학의 생도가 그의 효행을 상소하여 조정에 알리려 하자, 영의정 상진이 그들 형제와 같이 공부했던 벗으로 그때 당시에 상서上序에 있었는데 이를 저지하면서,

“아무 형제는 학문에 힘쓰는 선비다. 앞으로 원대한 경지에 이를 것인데 한 가지 선행善行을 가지고 너무 일찍 세상에 알려지게 해서는 안된다.”

하여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 기묘년간에 조정에서 지치를 일으킬 무렵 상종하던 선비 중에 명성이 너무 큰 자가 있어 수침이 유독 그를 먼저 우려하였다. 명류名流들의 화가 발생하자 그는 세상과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없음을 스스로 헤아리고 드디어 과업科業을 버리고 백악산 아래 집 뒤에 두어 칸 집을 짓고 ‘청송당’이란 현판을 달고는 문을 닫고 출입도 하지 않고 혼자 그 속에 앉아서 날마다 성인聖人の 교훈을 외우며 태극도太極圖에서부터 정주서程朱書에 이르기까지 손수 다 베껴가면서 의리를 탐구하되 속된 생각으로 마음을 쓰지 않았다. 종종 신축년에 유일에 천거되어 후릉참봉에 제수되었지만 사은만 하고 사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리고는 파평산 아래 우계 부근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갔는데, 식량이 떨어지는 등 극히 가난하였으나 모친 봉양에는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다. 금상수소 임자년에 조식曹植 · 이희안李希顔 · 성제원成佛元 · 조옥趙昱과 함께 다시 불러 특별히 6품 벼슬을 주어 모두 지방 고을에 보직補職되었는데, 수침이 실상 천수薦首에 올랐다. 조정에서는 그가 관직에 나오기를 바라서 세 번이나 고을을 바꾸어가며 임명했지만 끝내 모친 병환을 이유로 나아가지 않았는데, 그해에 모친이 세상을 떠나니 당시 수침의 나이 육십이었다. 애환하여 병을 얻은 그는 발병만 하면 기절하곤 하였지만 그래도 3년의 여묘살이를 마쳤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풍습 중에 묘제墓祭의 규례는 사당 종법祠堂宗法의 제도만도 못하여 절기 때 자손들이 둘러가며 마련하는 전구奠具가 간혹 정결하지 못하며 세대世代가 점점 멀어지면 그 제사는 그냥 폐지하게 된다’ 하고는 그 선영에 토지와 사람을 넉넉히 두게 하고 묘소 아래에 집을 지어 그릇 두는 방과 곡식 두는 창고와 음식 마련하는 청廳을 설치하고 또 재계하는 방을 마련하는 등 모든 기용을 몸소 계획하여 묘제의 범식을 세웠다. 어떤 사람이 너무 후

하게 하여 앞으로 헤이해져서 폐지되거나 않을까 염려된다고 하니, 답하기를,

“나로부터 하는 일이라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하였다. 경신년에 상의 특명으로 사지司紙에 제수되었다. 당시 수상首相이었던 상진이 그에게 나와서 사은하도록 권하며,

“은명恩命이 상의 충심에서 나온 것이니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하였으나, 당시 수침은 이미 늙고 병들어 있었다. 답서에,

“정경程瓊이 문입文立을 천거하지 않은 것은, 그가 성품이 겸손한데다 나이가 팔십이나 되어 당세의 기대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대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하고,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이르러 병이 위독해지자 그의 아들에게 훈계해 타이르고 또 염습 치상斂襲治喪에 대한 예절을 일러주고 나서는,

“죽고 사는 것은 하나의 상리常理이다. 한번 돌아감을 만난다는 것은 실상 쉬운 일이다.”

하고, 드디어 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더니 그대로 졸하였다. 집이 가난하여 장사를 치를 수 없었는데 때마침 간원이 아뢰기를,

“성수침에게 처음에 유일로 관직을 제수했으나 병을 핑계하여 사양하였고, 끝까지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는 문을 닫고 평소 자신이 지켜온 도를 찾으며 옛 도를 힘써 행하다가 72세의 나이로 끝내 곤궁과 검약 속에 죽었으니 이는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이며 당대의 일민逸民이라고 하겠 습니다. 마땅히 훈전恤典을 베풀어 국가의 어진 이를 높이고 노인을 존경

하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 말을 가상하게 받아들여 곧바로 꼭 1부를 하사하고 이어서 본도에 명하여 쌀과 콩도 필요한 만큼 지급하게 하고 역꾼도 내어서 장례 제구를 갖추어 돕게 하였다. 병인년에 상이 경륜에 밝고 품행을 잘 닦은 선비를 불러들이려고 할 때 수침을 생각하고 특별히 추장追獎케 하여 중직대부中直大夫 사헌부집의를 중직하니 모두 근세에 없었던 은전恩典이었다. 그는 사람 됨됨이가 타고난 재질이 매우 높았으며 성실하고 중후하고 너그러운데다 현철한 키에 풍골風骨이 빼어나고 풍격 또한 우뚝하여 보기도 충만한 데가 있어 누구라도 덕성 있는 군자임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뜻은 충담沖澹함을 숭상하고 기호嗜好하는 것이 없었으며, 그의 학문은 자기 몸을 돌이켜 가장 절실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급무를 삼았다. 일찍이 학자들에게 이르기를 ‘도란 큰 길과 같다는 성인의 가르침이 분명한데 어찌 알기 어렵다 하겠는가. 가장 고귀한 것은 힘써 배워 그 지식을 실행하는 것이다. 언어만의 학문은 일을 이룰 수 없다. 공자의 문하에 충명하고 영특한 사람이 많았지만 끝내 그 도를 전한 이는 노둔한 증자뿐이었다’ 하고, 또 항상 『소학小學』을 사람들에게 권하며,

“수신修身의 대요가 모두 이 책에 있다. 이 글을 읽지 않으면 집에서 어떻게 아버이를 섬기며 조정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임금을 섬기겠는가?” 하였다. 평상시 일용 사물에는 담박한 풍모로 자신을 지키고 비단옷 같은 것은 몸에 걸치지도 않았으며, 보통 사람의 심정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것도 그는 또한 낙으로 삼았다. 친척 중에 곤궁한 자가 있으면 재산을

기울여서 구원해주었고 벗과 형제들에게 노비까지 나누어주면서도 조금도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남의 한 가지 선한 일을 들으면 언제나 감탄하고 사모하며 잊지 않았고, 남의 과실을 보면 곧바로 배척하지 않고 은미한 뜻만을 보여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하였다. 언어나 처사에 있어서 규각圭角이 드러나게 하지 않았지만 의리로 결단하는 데 이르러서는 극히 엄격한 바가 있어서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어떤 서생書生이 자기 선조의 묘갈을 써달라고 청하자 수침은 잠자코 훑어보더니 얼마 후에,

“이것은 이계전이 지은 것이다.”

하였다. 그가 ‘계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니, 수침이 답하기를,

“허후許詔의 전기傳에 있는 사람이다.”

하니, 그 서생이 비로소 깨닫고, 감히 다시 청하지 못했으니 그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엄격함이 이와 같았다. 그의 미간眉間만 바라보면 비린鄙吝한 마음이 자연히 사라지는지라 어진이나 불초한 사람이나 간에 그를 공경하고 사모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도서圖書가 가득한 방에 우뚝하게 혼자 거처하면서 세상일에는 아무 뜻이 없는 것 같았지만 시사에 대한 격분과 나라에 대한 걱정은 모두가 그의 진정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성격상 술을 좋아하지는 않았으나 약간 취하면 언제나 높이 읊조렸는데 맑음 음운音韻이 집안에 가득하여 화기가 감돌았다. 문장을 경시하고 뜻을 두지 않았으나 신중 생활을 읊조려 묘사하면 그 시의 뜻이 유원幽遠하여 조전彫篆이나 일삼는 자들의 미칠 바가 아니었다. 평소에도

정절陶端節의 사람됨을 열모悅慕하여 그의 시를 즐겨 보았으니, 시대를 초월하여 뭔가 서로 느끼는 뜻이 있는 듯하였다. 일찍이 자찬自贊하기를,

야윈 그 얼굴에
 풍모 또한 고고高古하다
 마흔이 넘도록
 아직 한 포의
 순수한 그 본심
 평생 어김없어라

하였다. 김안국이 어떤 사람과 수침의 사람됨을 논할 때였다.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바른 도를 지킨다[守死善道]는 말에 해당할 것이다.”

하니, 안국이
 “그뿐이겠는가.”

하였고, 상진은 항상 사람들에게
 “중옥은 덕을 갖춘 선비다.”

하였다. 명나라 급사중給事中 위시량魏時亮이 본국의 조서詔書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나라 인물에 대해 듣고 싶어하자, 수침의 행의行義를 조목조목 써주었다. 이렇듯 그는 일세에 추중推重을 받았고 아무도 이에 이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일민이라 일컬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 그는 젊었을 때 조식과 벗이었는데, 그가 올린 사직소의 말씨가 너무 격

렬한 것을 보고,

“오랫동안 건증建仲을 만나지 못하였는데 이미 원활해졌는가 했더니 지금 이 소에 가시가 너무 드러난 것을 보니 아직도 그 공부가 원숙하지 못한 듯하니 실천의 진도를 알 것 같다.”

하였다. 파평 땅에 살았기 때문에 호를 파산청은이라고 했다가 그 뒤 우계한민이라고 고치고서,

“나를 청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사림에서 그래도 청송 선생이라고 불렸다. 그의 필적 또한 고아古雅하여 세상에서 진귀하게 여겼다. 아들 성혼은 가훈을 받아 선친의 뜻을 잘 이었고 학문에 힘써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효행도 있어 지금 행의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관련 유적



묘소

- 시 대 : 조선 중기 명종 19년(1574)
- 소재 지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산 8-1
- 소유 자 : 창녕 성씨 종중

청송 성수침의 묘소는 아들 우계 성훈 선생 묘소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묘역은 원형 봉분 2기와 묘비 1기, 문인석 1쌍, 상석, 향로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비는 옥개석이 없는 갈뿔의 형태로 규모는 비신 135×57×18cm, 대석 39×95×59cm이다. 문인석은 웃고름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고 둥근 얼굴과 옆으로 길게 새겨진 눈이 해학적인 느낌을 준다. 묘갈비는 묘역 아래에 아들 우계 성훈의 신도비와 나란히 비각 안에 세워져 있으며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옥개석 70×134×75cm, 비신 187×

94×29cm, 대석 28×162×98cm의 규모이다.

물계서원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군 대지면 모산리 79
- 문화재 지정
 - 물계서원 소장 책판 :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266호(1990년 1월 15일 지정)
 - 물계서원 원정비 :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제366호(2005년 1월 13일 지정)
- 지정번호 : 1712년(숙종 38)
- 향사일 : 2월 중정中丁

물계서원勿溪書院은 창녕 성씨 시조 인보의 아들 송국을 비롯하여 총절을 지킨 성씨문중 21선생을 봉안하고 향사하는 곳이다.

이 서원은 1710년(숙종 26) 유촌공柳村公 환환의 발의發議로 1712년(숙종 38)에 맥산麥山 북쪽 물계 위쪽에 사우祠宇를 건립하고 고려 문하시중門下侍中 송국을 봉향하는 창효사彰孝祠로 현판懸板하였다가 1719년(숙종 45) 세덕사로 개칭하고 매죽당梅竹堂 삼문三間, 문두文斗 담수聃壽, 청송수침, 대곡大谷 운運, 동주東洲 제원佛元, 판곡板谷 윤해允諧, 우계 혼을 배향하고 문하시중 송국을 주벽主壁으로 모시고 향사하였다. 1729년(영조 5) 10월 16일에 8위의 위패를 봉향하고 유림의 건의로 물계서원으로 편액

하였다. 경종 때 우상을 지낸 학암鶴岩 조문명趙文命이 초대원장으로 추대되어 손수 물계서원 현판을 써서 걸고 서원입규書院立規를 제정 계판揭板하고 백록동서원의 제도를 따라 서원의 모든 규정을 법도法度에 맞게 제정하였다. 1787년(정조 11) 10월에 절효 수종을 추향하였다. 1790년(정조 14) 10월에 원정비院庭碑를 세웠다. 이 비는 대광보국승록대부 행 판중추부사大匡輔國崇祿大夫 行 判中樞府事 이복원李福源이 찬찬하고 통훈대부 행 가평군수通訓大夫 行 加平郡守 조윤형曹允亨이 썼다. 1797년(정조 21)에 정절貞節 사제思齊, 충숙忠肅 승勝을 추가 배향하였다. 1808년(순조 8)에 이헌怡軒 여완汝完, 인재仁齋 희燴, 판서判書 수경守慶, 청죽聽竹 람攬, 부사浮査 여신汝信이 추가로 배향되었다. 1814년(순조 14)에 부용당芙蓉堂 안의 안羲를 추향하고 1857년(철종 8)에 동고東臯 준득準得이 추향되었다. 1997년에 독곡獨谷 석린石璘과 가정稼亭 언충彦忠을 추배追配하여 현재 21위를 봉안하고 매년 2월 중정일中丁日에 유림봉사儒林奉祀로 춘향대제春享大祭를 봉행하고 있다. 이 서원은 1866년(고종 3) 조령朝令에 인하여 훼손된 것을 1995년 복원하여 제향과 강학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지 4776평(경내면적 3025평, 경외면적 1751평), 건물 14개 동, 연건평 206평, 승덕사(구 세덕사), 현도문顯道門 또는 신삼문神三門, 강당, 물계서원, 중부당中浮堂, 동재東齋, 서재西齋, 전곡청典穀廳, 영보각永寶閣, 무변루無邊樓, 원정비각院庭碑閣, 및 고직사庫直舍 등 부속건물이 있다.

청송당 터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길 136(청운동 89-3번지) 경기상업고등학교 내

기묘명현己卯名賢이며 이이와 절친한 친구이자 대학자로 널리 알려진 우계 성혼의 아버지인 청송 성수침이 백악 즉, 북악산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 부친 성세순 때부터다. 이것은 성혼이 지은 「성세순 행장」 가운데 “백악산 아래 집을 정하였는데 숲이 깊고 땅이 외져 자못 산수의 멋이 있었다. 공무를 마치면 지팡이를 들고 신발을 끌며 왕래하였다. 계곡마다 두루 찾아다니며 시를 읊조리고 돌아갈 줄 몰랐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성수침은 기묘사화 때 스승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선비들이 화를 당하자 벼슬을 포기하고 북악산 기슭의 집 뒤에 지은 서실 청송당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성수침의 문집인 『청송선생집』에는 청송당 이름을 높재訥齋 박상朴祥이 중종 21년(1526)에 붙여준 것으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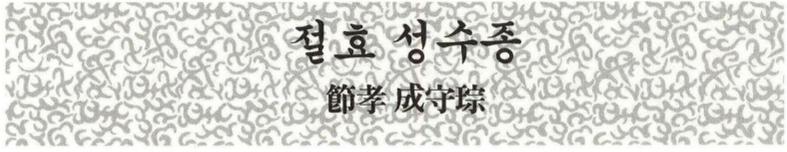
임억령林億齡은 「청송당기」에서 “(성수침은) 새둥지 같은 집에서 약초를 캐어 달이면서 몸을 보양하였다. 의롭지 않은 명성과 공명, 부귀 따위는 썩은 쥐나 똥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하였다. 고고하게 누워 몸을 일으키지 않고서 이곳에서 10년을 살았다. 낮은 담을 두르고 소나무, 잣나무, 단풍나무, 대나무, 매화나무, 국화, 두충 등을 심어놓았다. 담 밑에 구멍을 내어 산속의 샘과 통하게 하고 앞뒤에서 굽이 돌아 버드나무가 있는

개울로 흘러들게 하였다. 그 위에 다리를 놓아 청송당으로 가는 사람들이 건너다닐 수 있게 하였다”라고 성수침의 청송당 생활 모습을 잘 소개하고 있다.

성수침이 죽은 후 청송당이 폐허로 변하자 성수침을 흠모하는 사람들, 특히 후학들은 이를 중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수침과 절친하였던 조식의 제자 정인홍은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가 중건을 위해 모았던 사람들을 헐뜯는 상소를 올리자 중건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청송당은 폐허로 변하였다.

그 후 청송당은 50여 년 동안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가 현종 9년(1668) 외손 윤순거와 윤선거 등이 뜻을 합하여 중건하였는데, 이때 송시열이 기문을 지었고, 송시열과 윤순거, 윤선거, 남구만 등은 이 일을 기념하는 시회를 열었다. 이처럼 성수침이 절의를 지키며 제자를 길러낸 청송당은 이이, 성혼의 학풍을 계승한 후학들에게는 대대로 하나의 성지로써 인식되었다.

『동국여지비고』에 청송당의 규모는 몇 칸에 그치는 서당으로 기록되어 있다. 19세기경 청송당은 사라졌고, 지금과 같이 ‘청송당유지’ 각자만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청송당유지’ 표석을 1961년 9월에 세웠으며 글은 서울상업고등학교 교장 겸 청운중학교 교장 맹주천孟柱天이 지었다.



생애



1495(연산군 1)~1533년(중종 28).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창녕, 자는 숙옥叔玉. 한성부윤 득식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증이조판서 충달이고, 아버지는 대사헌 세순이며, 어머니는 김극니의 딸이다. 수침의 아우이다. 조광조의 문인이다.

1519년(중종 14)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는데, 이때 남곤南袞·김구金絿·김식金湜 및 조광조 등이 시관試官으로 있었다. 문장이 뛰어나고 학문이 깊어 장래가 촉망되었으나 그해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가 물러나자, 그의 문인이라 하여 대간의 탄핵을 받아 과방科榜에서 삭제되었다.

그 뒤 다시 과거에 응시하여 초시에 여러 번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뜻을 버리고 청빈하게 살았다. 그러나 1566년 그의 아들 이퇴가 삭방의 역

율함을 호소하여 명종의 특명으로 홍패를 받고 방목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기질이 영특하고 기골이 장대하였다.

효성이 지극하여 19세에 부친상을 당해서는 3년 동안 시묘를 하면서 자신은 죽을 먹으면서 매일 세 번씩 상식上食(음식을 올림)하였다고 한다. 사후에 직제학에 추증되었고, 선조 대에 기묘명인己卯名人으로 추복追復(명예를 회복함)되었으며, 물계의 세덕사, 파주의 파산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절효이다.

문헌 자료



『해동잡록』 4, 「본조」

성수종

본관은 창녕으로 자는 숙옥이요 성수침의 아우이다. 높은 재주와 탁월한 행실이 있었다. 시상詩想도 맑고 건전하여 정암(조광조)이 한 번 보고는 교제하였으며, 당세의 인물을 논할 때에 반드시 공공을 첫째로 꼽았다. 기묘년 가을에 급제하였으나 얼마 안 되어 사화가 일어나, 정권 잡은 이들이 그도 같은 부류라고 지목하게 되어 유적儒籍에서 이름을 삭제해버렸다. 이때부터 세상일에 의욕을 잃고 유람하면서 늙었다. 모재慕齋(김안국)가 그의 신도표神道表를 써서 절효 성군의 묘[節孝成君之墓]라고 하였다.

『연려실기술』 제8권, 「중종조 고사본말」, 기묘당적

성수종

성수종은 지는 숙옥이며, 본관은 창녕이요, 수침의 아우이다. 아래 유일편에 있다. 재주가 뛰어났으며 뛰어난 행실이 있고, 시와 글이 또한 맑고 건실하였다. 조광조가 한 번 보고 시귀기를 약속했고 당세의 인물을 논할 때 반드시 공을 들어 첫 번째로 꼽았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침은 학鶴과 같고 수종은 매鷹와 같다”고 했다.
 ○성수종은 그 형 수침과 함께 재주와 행실로 사람 간에 추앙과 존중을 받았다. 정덕正德 기묘년 가을에 성수종이 급제할 때, 남곤·김구·김식 및 조광조가 시관이었는데, 화가 일어나자 이항李沆 등이 앞장서서 말하기를, “수종의 대책문對策文은 문리文理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조·김 등이 사정을 써서 취하매 남곤이 어쩔 수가 없었고 게다가 합격한 사람들이 모두 그의 문인들이었다”고 하니, 사헌부와 시간원에서 교대로 상소하여 그 과거를 무효로 하기를 청했다. 임금이 어렵게 여겨 남곤에게 물어 성수종의 이름만을 삭제했다. 그 후 다시 과거에 응시하여 초시에 여러 번 우등으로 합격했으나 급제는 하지 못하고 죽었다. 선조 병인년(1566)에 그 아들이 원통함을 호소하였으므로 복과復科를 명했다.

○공이 평생에 다시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일찍 죽었는데, 사람들이 절호 선생라고 일컬었다. 후에 복과를 청하려는 자가 있자 공의 어머니가 듣고 말리며 말하기를, “설령 복과된다고 해도 땅 속에 있는 내 아들의

혼이 반드시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하였다. 세간에, “과방된 뒤에 여러 번 과거에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했다”는 말이 있으니, 공을 모르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기재잡기寄齋雜記』

○과거에서 제명된 뒤에 세상일에 뜻이 없어 한가로운 나날로 여생을 마쳤다. 김안국이 그 신도비에, ‘절효성군의 묘節孝成君之墓’라고 썼다. 『해동잡기海東雜記』

○별과천목別科薦目에, “지조가 있다”고 하였는데, 현량과에는 급제하지 못하였다. 10월 별시別試에 안당安瑯이 남곤·조광조와 더불어 있었는데, 한 시권試券을 보고서 서벽西壁이 이중二中을 매기려 하자 동벽東壁이 난색을 보이면서 삼중三中이라고 썼다. 조광조가 말하기를, “이러한 글은 성수종이 아니면 지을 수 없다” 하였다. 화가 일어나자, “조광조가 출제 내용을 미리 알려준 것이다” 하고 허물을 돌리고, 글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사정을 해서 합격시킨 것이라는 이유로 삭과했으니 이는 남곤 등을 거슬러서 배척당한 것이다.

『기재잡기』2, 「역대 조정의 옛 이야기[歷朝舊聞]」2, 중종

○절효 선생 성수종은 충숙공 세순의 아들이다. 일찍이 기묘년의 가을 과거를 보았는데, 정암이 대사헌으로서 시관에 임하여 있었는데 그 시권을 보고 병과에 합격시켰다.

그 뒤에 남곤이, ‘이는 정암이 사사로운 청탁으로 합격시켰을뿐더러, 그 대책문도 문리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이름을 삭제해버렸다. 그는 드디어 그의 형 청송 선생 수침과 함께 숨어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며, 평생 다시는 과거보러 가지 않다가 일찍 죽으니, 사람들이 절효 선생이라고 불렀다. 후에 복과를 청하려는 사람이 있었으나, 공의 어머니가 듣고서 말하기를,

“설령 복과가 된다 하더라도 땅속에 있는 내 아들의 넋이 반드시 부끄러워할 것이니 그러지 말라.”

하였고, 모재慕齋 선생이 그 묘비문을 지었다. 세간에는 그가 파방된 뒤에 여러 번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화閑話 속에 서술해놓은 사람까지 있으니, 그 전문이 고루하여 진실로 한번 웃을 만한 것도 되지 않는 것으로, 선생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겠다.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 권상

성수종전

성수종은 을묘생이고 자는 숙옥이다. 기묘년에 급제하였으나 미움을 받아 방목榜目에 이름이 삭제되어 과거에 떨어졌다.

보유 : 국조 이래로 범죄자를 공신적功臣籍에서 삭제하고, 『선원록璿源錄』에서도 삭제한 일이 있었으며, 문·무과에 공평하지 못한 시취試取가

있으면 파방하는 일은 있었으나 방목에 명자名字를 삭제하는 일은 없었다. 과거에 응시한 사람 중에 성수종이란 자가 기묘년 별시에 합격하였는데 논의하는 자가 대책對策의 문리文理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목에서 삭제하도록 하였는데,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보유 : 별과천목에는 지조가 있다는 것이었다. 천과薦科에 응했으나 낙제하였다. 10월 별시 전시殿試에 안당이 공거貢擧를 영솔하면서 남곤·조정암과 함께 시소試所에 있었다. 한 시권을 보고 서벽에서는 이중으로 매기려고 하였는데, 동벽에서는 주저하면서 삼중으로 적었다. 정암이, “이와 같은 문조文藻는 성성모가 아니면 능히 짓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마침 삼중으로 과거에 참여하였다. 사화가 일어나자 잘못을 정암에게로 돌리면서, ‘미리 과거 제목을 알렸고, 글뜻도 연속되지 않는 것을 사정私情으로 시취試取했다’는 구실로 방목에서 삭명削名하였다. 대개 미워서 물리친 것이었다. 지금 임금 병인년에 공의 아들 성이威耳가 글을 올려서 원통함을 아뢰었더니 특명으로 홍패紅牌를 주고 방목에도 이름을 쓰도록 하였다.

『상촌선생집』 제60권, 「청창연담晴窓軟談」 하

성수종의 시

성수종은 바로 청송 선생의 아우로서 기묘사화 때의 명류이다. 일찍 문

과에 합격했으나 과방에서 삭제당한 뒤 한거하였는데, 그의 시 가운데

저자 거리 변두리에 뚝 떨어진 몇 겹 청산	數疊青山落市邊
해 저물녘 성안에선 연기가 흩어지는구나	層城日暮散風煙
사는 곳이 토굴 같아 별로 사람도 안 오는데	幽居近壑人來少
혼자서 국화 따다 돌밭에 앉곤 하네	獨採黃花坐石田

이라고 한 하나의 소절小絶을 읊어보면 그 사람됨을 상상할 수 있다.

『중종실록』 37권, 14년(1519, 기묘) 12월 25일(을유) 세 번째 기사

비현합에 나가 좌의정 남곤, 우의정 이유청을 보고 일변에 대해 이르다
 임금이 비현합조顯閣에 나아가 좌의정 남곤, 우의정 이유청李惟淸, 좌참
 찬 한세환韓世桓 등을 불러보고 이르기를,

“근자에 일변日變이 거듭 나타나, 지난달 그림에 일변이 있었고 이달
 23일에도 있었는데, 재변은 함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일변은 더욱
 놀라운 것이니, 내가 매우 놀랍고 두렵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신이 『문헌통고文獻通考』를 두루 상고하니, 겨울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은 제철에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송宋 고종 때에도 곡홍曲虹의 변이

있었는데, 근일의 무지개가 이것과 같았습니다. 대저 재변은 헛되이 생기지 않으나, 이것이 어느 일의 잘못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 모르니 어느 일이 잘못되어 어느 재변이 응하였다고 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상하가 서로 닦으면 또한 재변을 상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근일 죄 받은 자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 대간이 또 김정국金正國 등을 말하였으니, 무슨 일 때문에 말한 것인지 모르겠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종족宗族이 동류를 창술唱率하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이유청도 ‘부당하다’고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김정국·이청李淸을 귀양 보낸다면 지나친 것이다.”

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이제 다시 추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르면 역시 옳지 않다. 대신의 뜻은 어떠한지 모르겠다.”

하매, 한세환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이 저들을 따랐더라도, 이제 추론하여 죄다 내쫓는다면 옳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을 내쫓는다면 옳지 않겠으나, 고신告身을 빼앗을 수는 있다. 이 두 사람을 버린다면 그 재주가 아깝겠으나, 그 잘못을 논하여 후인을 징계해야 한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이 사람을 죄 주더라도, 이 밖에도 많이 있으면 어떻게 처치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간이 어찌 헤아리지 않았겠는가? 이 사람들이 정죄定罪된 뒤에야 다시 다른 사람을 거론하여 아뢰지 않을 것이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그렇게 하며 의구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병조에서 직첩職牒을 거둔 인원이 매우 많은데, 늦추고 결단하지 않으면 뒤에 쌓여 밀리는 것이 많을 것이니, 대신이 그 경중을 의논하여 결단해야 한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천도天道도 10년이면 변하는 것이니, 죄 받은 지 오랜 자는 임금도 관용해야 하나 죄가 중한 자는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 하매, 남곤 등이 추안推案을 상고하여 그 경중을 의논하여 황지黃紙를 붙였다. 별시를 혁파해야 할 것인지를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남곤이 아뢰기를,

“파방罷榜은 중한 일입니다. 성수종이 공정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니 삭제해야 합니다.”

하고, 이유청이 아뢰기를,

“삭제해야 하고 혁파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공정하지 않은 자를 삭제하고 분관分館시키도록 하라.”

하고, 파릉군巴陵君 이경李暉은 먼 지방에 부처付處하고 김정국·이청은 고신을 빼앗고, 성수종의 이름을 파방에서 삭제하라고 명하였다.

『국역 비변사등록』

영의정 김재로가 입시하여 고 절효처사 성수종을 파산서원에서 제 사자내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_ 영조 16년(경신 10월 17일)

○또 아뢰기를

“파주유생 이명익李明翼 등의 상소는 비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 절효처사 성수종을 파산서원에 배향을 간청한 장계입니다. 이 일은 의례 해당 조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 임금은 이르기를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므로, 김재로金在魯는 아뢰기를

“이 사람은 즉 청송 성수침의 아우이며, 성수침은 즉 선정신先正臣 성혼의 아버지입니다. 성추침은 참으로 명현名賢이자 고사高士이며 성수종의 절행節行도 매우 높으므로 선배들이 그를 하남河南의 두 정재[兩程]에 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공 김안국이 찬한 묘문墓文과 고 명신名臣 이제신李濟臣과 고 상신相臣 이정구李廷龜의 서독문자書牘文字를 보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배향을 하는 것은 너무 시기가 늦었다고 할 것입니다. 단, 유생들이 문숙공 백인걸의 전례를 잘못 인용하여 먼저 성상에게 보고하지 않고 곧바로 배향하였으니 이것이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하자, 임금은 이르기를

“이 사람은 청송의 아우인가? 이 일은 당연히 그 조로 이관하여 그곳에서 비국으로 내려 보내면 비국에서는 임금께 아뢰는 조항을 지어내어 그 조로 보내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2권, 1년(1568, 무진) 6월 6일(갑신) 두 번째 기사

조광조와 연루되어 삭탈당한 성수종에게 홍패를 환급하다

지난 기묘년 가을 별시에 성수종이 응시하였는데 시관이었던 조광조가 그의 문장을 보고 ‘성수종이 아니고서는 이처럼 짓지 못한다’고 칭찬하였

다. 그 뒤 권간權奸이 조광조를 미워하여 성수종의 과제科第까지도 삭탈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그의 아들 성이가 진소하여 예조가 억울하다는 것으로 아뢰니 상이 흥패를 환급하라고 명하였다.

『광해군일기』 110권, 8년(1616, 병진) 12월 18일(갑인) 세 번째 기사

예판 이이침이 형효갑의 일로 올린 상소

예조판서 이이침이 아뢰기를,

“신은 질병과 비방이 모두 극심하여 사직하여 면직을 빌었는데, 윤희를 하지 않으시니, 일이 낭패스럽게 되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침을 맞으시는 거동이 있으시기에 허둥지둥 대궐에 나와 입시하는 반열에 억지로 참여하였습니다. 전최殿最가 앞에 닥쳐 다시 사직하지도 못하고 뻘뻘스레 행공을 하자니 더더욱 미안합니다.

신이 삼가 들건대, 원이곤이 형조에서 공초하면서, 그의 상소 안에 있는 많은 말들을 모두 길에서 들은 것이라고 핑계대고 권의權誼에 대한 일은 스스로 망령되어 진달하였다고 하면서 도리어 형효갑邢孝甲의 책두策頭에 있는 정운定運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는 오로지 고관考官을 공격할 계책을 삼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터무니없기가 이와 같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신의 생각은 고관들의 계사에서 대략 진달하였으니, 단지 형효갑의 일을 가지고 우러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생으로서 정운定運·원종原從에 참여한 자가 무려 수백 명이나 되니, 이것을 가지고 혐의를 삼아서 뽑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혹 말하기를 ‘거자擧자가 또한 주상周庠이나 노반魯泮 등의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니, 스스로 생진生進이라고 했다고 해서 혐의를 삼아 뽑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신이 이에 여러 사람들의 의논을 듣고 뽑았던 것입니다. 신이 끝까지 그 사이에 사사로운 뜻이 조금도 없었음을 참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이곤이 계책이 다하고 말이 궁색해지자 이에 이것으로 고관을 포함할 바탕을 삼았으니, 헤아릴 수 없는 해괴한 행동이 어찌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신이, 전대의 고관으로서 비난을 받았던 자들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종 때에 남곤이 당시의 대현大賢들과 함께 전시殿試의 고관으로 있을 때에, 거인 성수종의 대책對策이 대현들의 대단한 칭찬을 받아 급제하였는데, 남곤이 사류들을 무함하고 난 뒤에 성수종이 급제한 것은 아무개가 사심을 부린 것이라고 하며, 드디어 대관을 사주하여 논계하여 박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안국은 한 시대의 유종儒宗으로서도 억울하게도 옛 친구를 위해 사심을 부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광한申光漢이 이원록李元祿을 뽑을 때와 박순朴淳이 황혁黃赫을 뽑을 때에도 모두 사심을 부렸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만, 이원록이 마침내 사장詞章으로 이름이 드러나자 사람들이 비로소 그가 권간들의 무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으며, 황혁은 비록 하고下考로 거수屈首를 차지하였으나 그는 글을 잘 지었으니 꼭 사심을 부린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 이이가 박점朴漸을 뽑을 때에, 소리素履라는 두 글자로 표식을 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이가 탐전에서 아뢰기를 ‘과연 박점의 작품인 줄을 알았습니다만 인물이 쓸 만하기 때문에 뽑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속임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정귀가 여러 차례 고관이 되자, 사람들이 자기 과당만 치우치게 뽑는다고 하였고 심지어 ‘자기 집 문 담장에 방을 붙였다[門牆題榜]고 비난을 하였습니다만, 이는 오랫동안 문병文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지 어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비방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정사룡鄭士龍이 이헌국李憲國과 신사헌愼思獻을 뽑았는데 이헌국은 한림翰林的 탄핵을 받았고 신사헌은 삭직당하고 연좌되어 귀양을 갔습니다. 그 뒤에 마침내 복과復科되었으나 물의는 흔쾌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희수沈喜壽는 신해년 별시 때에 오로지 한쪽의 사람들만 뽑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임숙영任叔英의 글은 유분劉蕡에다가 견주면서 뽑았습니다. 성영成泳이 송상인宋象仁을 뽑았을 때에는 자표字標를 서로 통하였다는 말이 있었고, 최천건崔天健이 유영경柳永慶의 아들과 조카 세 사람을 뽑자 책두策頭를 써서 들였다는 말이 있었으며, 박이서朴彝敘가 정문익鄭文翼을 뽑았을 때에는 제목을 내어 미리 글을 지었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관들 가운데에는 혹 사실과는 다르게 무함을 당한 자도 있고 혹 실제로 그런 일을 하여 비방을 들은 자도 있습니다. 참으로 잘못을 한 바가 없다면 사람들의 말을 돌아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형편없는 신이 오래도록 이 직임을 맡고 있으니, 어찌 이러한 무함을 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원이곤은 어리석고 글을 못하는 사람으로서 감히 이 상소를 올렸으니, 온 나라의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으며, 본 자는 모두 그 상소의 글이 그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압니다. 형조에서 공초를 받음에 미처서는 문리가 이어지지 않고 언어가 뒤죽박죽이 되어 무감無憾의 감憾 자를 감感이라고 썼으며 김원金愿의 원愿 자를 언言 자 아래에다 심心 자를 썼으니, 그가 문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극건李克健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하였고 하는 말이 이극건과는 아주 서로 달랐는데, 조관曹官과 이서吏胥들도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가 남의 사주를 받아 사람들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한 자취는 환히 드러나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극건 등의 상소에는 또 ‘이번의 전시殿試에 고관考官이 자제子弟들을 많이 뽑았다’고 하였는데, 예로부터 전시에는 상피相避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고관의 자제들이 참방參榜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허엽許曄이 허봉許篈을 뽑을 때와 윤두수尹斗壽가 윤양尹陽을 뽑을 때에 과연 자제라는 혐의를 피하여 뽑지 않았더라는 말입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출방할 때마다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극건 등은 원이곤이 한 여러 가지 말들을 모두 부박한 무리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원이곤 등이 성상을 속인 죄와 큰 간인奸人이 몰래 사류士類를 해치려 한 것은 이미 안율按律을 의논할 때에 드러났으니, 무슨 끝까지 조사하여 실정을 캐낼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묻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들어보건대 신은 평생 동안 못사람들의 참소를 자초하여 누차 위대한 함정에 빠졌습니다. 칼을 품고 그림자를 쏘는 무리들이 반드시 잇따라 일어날 것이니, 신이 보전하기 어렵다는 것은 신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듣건대, 사학(四學)의 유생들이 글을 올려 원이곤의 처벌을 청하였다고 하니, 이는 신을 신구(伸救)하고자 한 것이나, 한갓 신을 원망하는 자들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이것이 어찌 유생들이 저를 위하여 쟁변할 일이겠습니까. 비방을 그치게 하고 화를 면할 계획은 오직 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과 같은 재주 없는 자가 오랫동안 문형(文衡)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양 과거를 당할 때마다 참소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것이 이토록 망극한 것입니다. 아, 형효갑을 과방에서 빼지 말라는 논계를 정지하지 않으면 자기 파당을 비호한다는 말이 그치지 않을 것이며 신의 문형의 직임을 체차하지 않으면 사주하는 사람의 상소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우신 성상께서는 신의 간절함을 굽어 살피시어 신의 본직과 견대를 모두 개차하소서. 그러면 공사 간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뢰운 말은 모두 잘 알았다. 이러한 때의 사람들의 말을 무슨 마음 쓸 것이 있겠는가. 경은 다시 사직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조리하며 직무를 보도록 하라.”

하였다.

『영조실록』 53권, 17년(1741, 신유) 2월 5일(경자) 여섯 번째 기사

고 정사 성수종에게 관직을 추증하도록 명하다

고 정사 성수종에게 관직을 추증하도록 명하였다. 영의정 김재로가 아뢰기를,

“성수종은 뜻이 높고 행실이 깨끗하여 기묘사화가 일어나던 해에 과거에 합격하였는데, 남곤의 무리가 문리가 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핑계대어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뒤에 비록 복과시키도록 명하였지만, 성수종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직명職名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합격하고서도 관직을 제수받지 않고 죽은 자에게는 모두 관직을 내려준 전례가 있는데, 더구나 성수종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마땅히 포장褒獎하여 추증하는 전례典禮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의 대답이 그대로 허락하였다. 그리고 선정신 박세채의 자손을 녹용하도록 명하였다.

『정조실록』 19권, 9년(1785, 을사) 2월 25일(을사) 세 번째 기사

증 직제학 성수종을 파산서원에 배향하게 하다

파주의 유학 조중길趙重吉 등이 상소하여 증 직제학 성수종을 파산서원에 다시 배향할 것을 청하였다. 성수종은 문정공 성수침의 아우인데 기

묘명현이었다. 영조 경신년에 많은 선비들이 글을 올려 호소하여 이 서원에 배향하도록 하였는데, 신유년에 갑오년 후에 사적으로 배향한 것을 모두 철폐하라는 조정의 명령으로 인하여 예조의 당상관이 잘못 알고 아울러 철폐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조중길 등이 다시 배향할 것을 청하니, 예조에서 복주覆奏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정조실록』 29권, 14년(1790, 경술) 2월 13일(갑자) 여섯 번째 기사

파주의 유생 정재간이 백인걸 · 이이 · 성혼 등의 사당 문제를 상소하니 비답하다

파주의 유생 정재간鄭在簡 등이 상소하기를,

“선정신先正臣 충숙공 백인걸과 문성공 이이와 문간공 성혼, 이 세 현은 같은 세상에 함께 태어났고 이미 죽은 뒤에는 각기 두어 칸 되는 사당이 건립되었습니다. 충숙공을 제사하는 곳은 월룡산月籠山 휴암休巖 아래에 있습니다. 문성공은 여러 선대의 묘소가 자운산紫雲山 자락에 있고, 문간공은 일생 동안 은거하던 곳이 곧 파산촌 안이었습니다. 이에 각기 그들이 살았던 곳에다가 높여 제사하는 도리를 다하고 있었는데 사당의 기둥이 세워진 후에 일부 선비들이 중간에 새로운 의견을 제기하면서 ‘청송 · 휴암 · 율곡 · 우계 네 선생이 훌륭한 덕망을 지니고 같은 고을에서 함께 태어난 것은 우연치 아니한 일이다. 한 사당에 합사하는 것이

예법에 맞는다'고 하여, 마침내 본주本州에 있는 호계虎溪의 한 구역을 잡아 사당을 세우고 차례대로 모실 계획으로, 월룡산에 별였던 역사役事를 중지하고 서원을 호계로 옮겨서 지었습니다. 그때 문성공과 충숙공은 호계서원에 합사하기로 하였으나, 문정공 부자父子의 사관祠版에 대해서는 자손들이 의논하기를, '파산은 바로 생전에 살던 곳이므로 옮겨 모실 수 없다'고 하여, 마침내 함께 제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호계서원이 무너지게 되자 사론士論이 '네 선현을 이미 함께 제사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각기 옛터에 짓는 것이 낫다'고 하여, 문성공의 위판位板은 자운산에 있는 사당으로 옮겨가고, 충숙공은 예법상 월룡산의 옛터로 옮겨가야 했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여 우선 임시로 파산서원 안에 봉안하였습니다. 이에 청송과 동서로 마주앉아 빈주賓主의 위치를 이루었으니, 이것이 바로 선정신 송시열이 정한 예법입니다.

충숙공을 처음에 호계에서 제사하다가 나중에 파산으로 옮긴 것이, 비록 한 고을의 선현을 함께 제사하는 의리에 해롭지는 않지만, 옛날에 살던 자운산과 파산 두 서원에다 따로따로 모시는 것에 비하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난 을사년에 성 문정공의 아우인 절효공 성수종을 파산서원에 추배할 때에, 그 새로 제사하는 서열로 보자면 응당 청송의 다음 자리에 있어야 하였으나, 그 위판을 배정할 때에 가서는 이내 충숙공의 윗자리에다 올리어, 빈주와 사우의 좌차座次를 거꾸로 두어 문정공이 정한 예법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소를 올려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윤희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목을 대략 모아 월

봉月峰 아래의 옛 터에다 두어 칸의 집을 짓고 선생의 사판祠板을 옮겨 모시고자 춘조春曹에 글을 올렸더니, 춘조에서도 아주 합당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명聯名으로 호소하는 바이니, 부디 유사有司에게 명하시어 특별히 두 글자의 현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중건重建하는 것은, 처음 창건創建하는 것과는 다른 법이다. 합사하던 것을 어째서 갑자기 갈라서 설치하였으며, 위치位次 또한 어찌 지레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한편으로는 이미 반시頒示한 수교受教를 어긴 셈이 되고, 한편으로는 이미 정해진 정론正論이 아니다. 원우院宇를 제멋대로 뜯어 고친 두 서원 유생들의 일은, 모두 분수에 지나친 죄과罪科를 범한 것이다. 해당 수창首昌 유생은 모두 정거停擧하고, 충숙공 백인걸은 이전대로 합사하되, 위치는 종전처럼 하라.”

하였다.

관련 유적



묘소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조선 중기의 학자인 절호 성수종 선생의 묘로 파주읍 향양리 우계 성훈 선생 묘역에서 마을 안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간 북서쪽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본관은 창녕. 자는 숙옥. 한성부윤 득식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증이 조판서 충달이고, 아버지는 대사헌 세순으로 청송 성수침의 아우이다. 조광조의 문인이기도 하다.

효성이 지극하여 19세에 부친상을 당하여서는 3년 동안 시묘를 하면서 자신은 죽을 먹으면서 매일 세 번씩 상식하였다고 한다. 사후에 직제학에 추증되었고, 선조대에 기묘명인으로 추복追復되었으며, 물계의 세

덕사, 파주의 파산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절효이다.

묘역에는 참봉을 지낸 첫째 형 수근의 묘역이 상단에 위치하며 선생의 묘는 그 아래에 위치한다. 묘소는 원형 봉분에 호석을 둘렀으며 좌측에 묘비가 위치하고 우측에는 선생의 묘갈비가 세워져 있다. 봉분 중앙 전면에 상석과 향로석, 장명등이 조성되어 있는데 원래의 것이 아니고 새로 설치한 것이다. 장명등 좌우로 문인석 한 쌍이 조성되어 있다.

휴암 백인걸

休菴 白仁傑

생애



1497(연산군 3)~1579년(선조 12). 조선 중기의 학자·문신.

본관은 수원水原. 자는 사위士偉, 호는 휴암休庵. 서울에 거주하였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효삼效參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참교參校 시수思粹이고, 아버지는 왕자사부王子師傅 익견益堅이다. 어머니는 사직司直 우종은禹從殷의 딸이다.

조광조의 문인으로 김안국에게서도 학문을 배웠다. 송인수宋麟壽·유희춘柳希春·이이·성혼 등 당대 사림계 인물들과 널리 교류하였다. 김식이 대사성이 되어 새로운 학풍이 일어나게 되자 구도의 뜻을 세워 학문에 전심하였다. 특히 조광조를 존경해 그의 집 옆에 집을 짓고 사사하였다.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비분강개해 금강산에 들어갔다가 돌아와 1531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53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러나 기묘사림의 일원으로 지목되어 오랫동안 성균관에 머물다가 이듬해에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이때 예문관 관리가 이조의 인사 행정의 잘잘못을 기록하던 옛 관습을 복구해 실행하였다.

예조좌랑을 거쳐 남평현감南平縣監이 되었는데 이때 학당學堂을 세우고 학장學長을 두어 자제들의 교육에 힘쓴 공로로 품계가 높아졌다. 1541년에는 홍문록弘文錄(홍문관의 수찬·교리 등을 선발하기 위한 제1차 추천 기록)에 올랐다. 1545년(인종 1) 지평을 거쳐 호조정랑이 되었으며,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을 겸하였다.

같은 해 명종 즉위 뒤 윤원형尹元衡 등이 대비인 문정왕후文定王后를 등에 업고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尹任·유관柳灌 등을 제거할 때,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으로 있으면서 극력 반대하다가 파직되고 옥에 갇혔으나 정순봉鄭順朋·최보한崔輔漢 등의 도움을 받고 풀려났다.

그 뒤 1547년 문정왕후의 수렴청정과 이기李芑 등의 농권을 비난하는 양재良才의 벽서를 기화로 소윤小尹 세력이 대윤大尹의 잔존 세력과 사림계 인물들을 재차 축출할 때 연루, 안변安邊에 유배당하였다. 1551년 사면되어 고향에 돌아간 뒤, 『태극도설太極圖說』과 정주학程朱學의 서적들을 깊이 연구하였다.

1565년(명종 20) 윤원형이 몰락하자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로 등용, 이듬

해 사도시침정司禦寺僉正·선공감부정繕工監副正을 지냈다. 1567년 양주 목사가 되었을 때 공납의 폐단을 개혁하는 치적 등을 쌓아 고을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웠다. 선조가 즉위한 뒤 1568년(선조 1) 기대승의 건의로 특별히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공조참의·대사헌을 역임하고 뒤에 병조참관이 되었다. 이 밖에 공조참판 등을 지냈다. 그리고 1568년에는 인순왕후仁順王后的 수렴청정에 반대하는 소를 올려 오래지 않아 철렴撤廉(수렴청정을 그만둠)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망할 때까지 조광조를 문묘에 배향할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다.

그러나 선조가 아버지 덕흥군德興君을 추존하는 작업을 추진할 때 일반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와는 달리 임금의 처지를 두둔해 사림의 탄핵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갔다.

조정에 분당의 조짐이 나타나자 이준경李浚慶의 의견을 좇아 당론을 잠재우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선비들을 해하려 한다는 사림의 의심을 받아 1571년 파주로 퇴거하였다. 그 뒤 우참찬으로 징소되었으나 치도治道를 논하는 소를 올리고 나아가지 않았다.

1579년에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있으면서 이이와 함께 다시 동서분당의 폐단을 논하고 진정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서인西人을 편든다는 공격을 받았다. 그 밖에도 국경의 상황을 논하고 군비를 닦을 것을 주장하는 등 국정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로 『명종실록』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선조 초에는 많은 정치적 문제에 연관되었고 매우 연만해 많은 시간을 파주에 퇴거해 있었다. 이에 선조는 대사헌·우참찬 등의 관직을 내려 부르거나 식량을 내리기도 하고, 1569년의 경우와 같이 직접 편지를 보내 부르는 파격적인 대우를 베풀기도 하였다.

나이가 든 뒤에도 성리학에 대한 탐구를 열심히 했으며 이이·성혼 등과 더불어 학문을 익히고 토론하였다. 기묘사화 뒤 명종 대까지 계속되는 훈구 세력의 발호에 맞서 사림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특히 1545년 을사사화 때 일신을 돌보지 않고 윤원형의 음모에 대항한 것은 후대에 길이 칭송되었다.

선조 때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청백리에 뽑혔다. 파주의 파산서원과 남평南平의 봉산서원蓬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휴암집休菴集』이 전한다. 인조 때 충숙忠肅의 시호를 받았으나, 뒤에 문경文敬으로 고쳐졌다.

문헌 자료



『기묘록보유』 권하

백인걸전

백인걸은 정사생이며 자는 사위이다. 신묘년에 생원이 되고 정유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을사년에 헌납獻納이 되었다. 이때에 대사간 김광준金光準·대사헌 민제인閔濟仁이 윤원형·이기의 사주를 받아, 임금의 뜻을 받았다고 칭탁하고 유관 등을 근거 없이 무고하였는데 대간의 의견이 같지 않았다. 이튿날 양사兩司가 임금을 보였는데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여 물러나왔으나, 공이 홀로 남아 아뢰기를, “대저 대간이라는 것은 널리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광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므로 공론公論이라고 합니다. 혹시 불가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공론이 아닙니다. 김광준과 민제인이 밀지密旨가 있다는 말을 듣고 여러 재상 집을 뛰어다니기를 마치 전령 군졸과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청컨대 그를

파면하소서” 청하였더니, 윤원형과 이기가 크게 노하여 공을 조옥詔獄에 내리고 국문하였다. 정순봉鄭順朋이 공이 자기를 돌보아준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여 그를 죽이지 않고 다만 안변安邊으로 귀양 보내는 것으로 그쳤다. 다른 대간들도 모두 벼슬을 깎고 귀양 보내고, 혹은 곤장을 맞고 죽었다. 얼마 안 되어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을축년에 다시 서용敍用되었다. 지금 임금 때에 와서 벼슬이 참찬參贊에 이르렀는데, 일찍이 봉사封事를 올려 조정암(조광조)을 공자의 묘정廟庭에 배향하여 선비들의 사기를 올리게 할 것을 청하였더니, 태학생太學生들이 글을 올리기를, “일두一蠹(정여창鄭汝昌)·한훤寒暄(김굉필金宏弼)·정암(조광조)·회재晦齋(이언적李彦迪)·퇴계(이황) 다섯 선생을 모두 배향하라” 하였다. 공이 조정에서 주장하기를, “일두와 한훤은 중종께서 벼슬을 추증하였고 가묘家廟에서 제사지내고 있으니, 이제 와서 다시 의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회재와 퇴계는 모두 후세에 모범이 될 만한 학문을 남기었으나, 정암은 그렇지 못하다’ 하지마는, 정암의 춘부春賦 한 편만으로도 일원一元의 이기理氣가 무궁히 만화萬化에 통달하였음을 넉넉히 볼 수 있다. 진실로 공리窮理하고 격물치지하는 학문이 아니면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후세에 모범이 될 만한 학문을 남기었다고 하는 것은 예전 성현이 이미 행한 찌꺼기를 모은 데 지나지 않으니, 실천하여 독창적으로 깨달은 묘가 없는 것이다. 세 분의 수신제가하는 것을 논하면, 회재가 기생과 친하게 놀아난 것에 비해 정암은 여색을 가까이하지 않았으니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못하냐. 퇴계가 자기 혼자만을 선히 한 것과 정암이 사람

들을 교도하여 감화시킨 것을 비교하면, 어느 것이 소득이며 어느 것이 손실인가. 일두에 이르러서는 성리性理의 학이 있고 한훤은 교도의 공이 있기는 하나, 정암은 대사헌으로 1년밖에 못 있었는데도 시정市井의 이름 없는 백성들이 그들의 부모를 섬기는 데에 살아서는 정성으로 봉양했으며 죽어서는 슬픔으로써 장사지내고 3년 동안 상복을 입었다. 군졸·천인과 종들도 여막살이를 하였으며 제사에는 나무로 만든 신주를 썼고 산소에는 반드시 돌을 세웠으니, 지금 북망산 묘지에 표석이 쭉 서 있다. 이는 모두가 가르치고 독려한 것이 아니라, 먼 데 사람이나 가까운 데 사람이 감화되어 사람들이 착한 일을 행할 줄 알고 풍속이 효도와 우애를 숭상하여 자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그에게 수년 동안만 행정行政을 하게 하였더라면, 백성들의 습관과 성행이 바로잡히고 풍속이 달라지며 인륜 도덕도 개선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옛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중에도 몸소 실천궁행하여 백성을 교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빈말만 가지고 도를 세운 사람도 있었다. 행동으로써 다스려 백성을 감화시키고 이론으로 도를 다스리는 것이 그 노력에도 쉽고 어려움이 있으며, 효과를 나타내는 데도 더디고 빠름이 있기는 하지마는 그 교화하고 실행하는 것은 한가지이다. 그러니 몸을 바쳐 사람을 교도하고 감동 분발하게 하여 빠른 시일안에 교화한 것이 정암 같은 이가 삼대 이후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하였다. 이어 상소하기를, “조광조의 현명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는데, 군흉群凶들이 곡학궤행曲學詭行(올바르지 못한 학문과 간사하고 속이는 행동)이라 하여, 그 가언선행嘉言善行과 교화의 공적이 민멸

泯滅되어 후세에 전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이 조광조를 분묘에 배향하기를 다시 청하는 까닭이며, 다만 그의 공적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자세한 것은 신원소장伸冤疏章에 있다. 아들 백유함白惟誠은 문과에 뽑히어 지금 이조정랑으로 있다.

『연려실기술』 제10권, 「명종조 고사본말」, 을사년의 당적

백인걸

백인걸은, 자는 사위이며, 호는 휴암이요, 본관은 개성開城인데, 뒤에 수원으로 옮겼다. 왕자사부王子師傅 익견益堅의 아들이다. 정사년에 태어났다. 신묘년에 생원 시험에 합격하고 중종 정유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을사년에 옥에 갇히어 파직되고, 정미년에 안변安邊으로 귀양 갔다가 신해년에 석방되어 돌아왔다. 을축년에 원형이 패하여 죽은 뒤에 다시 등용되어 선조 때에 참찬에 이르고 청백리清白吏에 뽑혔으며, 기묘년에 죽으니 나이는 83세였다. 시호는 충숙공忠肅公이다.

○공은 돌도 지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다. 어려서부터 영특하였으며, 천성적으로 효도와 우애가 뛰어났다. 연산군이 황란荒亂하여 민가를 철거시키니 당시 8세였던 공이 공중에서 나온 사신을 보고 어른처럼 수작을 하였다. 구중사신이 이를 기특히 여겨서, “내가 너의 집만은 헐리지 않게 하겠다” 하더니, 두 번째 철거할 때에 가서 헐리게 되었다. 어머니

가 방을 빌려 살면서 밤을 새워 바느질을 하였는데, 공은 꼭 모시고 앉았다가 어머니가 자는 것을 보고서야 잠이 들었다. 이에 어머니는 늘 불을 켜놓고 자는 체함으로써 공을 먼저 자게 하였다.

○차차 자라면서 개연히 도를 구하려는 뜻이 있었다. 이때 김식이 대사성이 되어 성균관에서 학문을 강론하였는데, 공은 여러 학생들이 다 물러갈 때를 기다려서 조용히 질문하였고, 정암 조광조의 집 남쪽에 서당을 짓고 스승으로 모셨다. 얼마 후에 사화가 일어나자, 공은 금강산에 들어가서 여러 해를 지내고 돌아왔다.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당시 사람들이 기묘년의 인물이라고 배척하여 성균관에 붙여두었다. 이듬해에는 검열이 되었다.

○을사년에 혼자서 반대하여 아뢰었더니, 문정왕후가 크게 노하여 옥에 가두게 하였다. 정순봉의 아들 염이 그 아버지에게 간하기를, “백인걸을 죽이면 아버지는 만세에 죄를 얻을 것입니다” 하니, 순봉이 그를 구제하였다. 문정왕후의 노염이 풀리자 사임하고 파주로 돌아갔다.

○일찍이 인종이 죽었을 때에, 우윤 최보한崔輔漢은 수릉관守陵官에 임명되자 직접 대신에게 가서 사정하였는데, 정강이빠까지 내어 보이면서, “이렇게 수척한 몸으로 3년상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였더니, 대신이 마침내 이를 바꾸어주었는데, 대간 한 사람이 보한의 숨은 허물을 들고 나와서 논박하였다. 이때에 공은 지평으로서 그를 말리며 말하기를, “이것이 비록 공론에 용납된 사람은 아니지만,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가지고 남에게 죄를 씌우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하였으므로 보한이 죄를

면하였다. 이에 보한이 매우 감사하게 여겨, 을사년 사건 때에 공이 장차 큰 화를 당할 뻔하자 마침 보한이 동의금同義禁으로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다하여 공을 구원하였다. 『기재잡기』

○공은 허자許磁와 이웃에 살면서 정의가 매우 두터웠다. 허가 별다른 음식이 있으면 꼭 공에게 나누어주었는데, 공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처음 비밀 지령이 내려졌을 때에 인심이 흉흉했다. 대사헌 민제인과 대사간 김광준 등이 원형의 시키는 바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행동이 수상하여 아침저녁에 어찌 될지 헤아릴 수 없었다. 이때 허자가 공을 초청하여 저녁상을 차려놓고 묻기를, “내일 대간이 비밀 지령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자네는 노모가 계신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허자 공은, “벌써 몸을 임금에게 바치었으니 어찌 개인의 사정을 돌아볼 수 있는가” 하였다. 이에 허자가 여러 가지로 달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였으나, 공은 끝내 말을 듣지 않았다. 허자가 탄식하면서, “내일이면 자네가 죽을 것이다” 하였다. 공이 인사하고 나오는데, 허가 공의 손을 잡으며, “내일은, 자네가 군자가 되고 나는 소인이 되는 날이로다” 하였으니, 소인이 소인되는 줄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부계기문』

○일찍이 공은 모재 김안국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한림으로 있다가 그만 두고 자원하여 여주목사驪州牧使가 되어, 늘 안국의 문하에 다녔다. 뒤에 항상 을사년 사건에 대하여 말하기를, “회재가 그때에 충순당에 입대入對 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어야 했다. 한번 죽으면 그만인데, 어찌 차마 이기의 무리들과 같이 입대하였더라 말이나. 모재가 만일 그때에 있었다면 죽고

말지언정 결코 그 입대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였다. 『월정만필』

○정묘년에 양주목사楊州牧使가 되었다. 교화가 크게 행해져서 백성들이
집집마다 송축을 하며 노래 부르기를,

흰 눈의 흰 빛은	白雪之白
임과 같이 희도다	與君同白
마음속으로 사랑하노니	心乎愛矣
어찌 뛰어나지 않으리오	胡不爲傑

하였고, 그가 떠난 뒤에는 패를 세웠다.

○기사년에 대사헌에 승진되었는데, 두 번이나 글을 올리어 사양하였다.
그러자 선조가 친히 편지를 써서 내리기를, “경의 충성은 해와 달을 꿰뚫
을 만하고 절의는 얼음과 서리를 능가할 만하다. 빨리 부르는 명을 따
르라” 하였다. 신미년에 또 대사헌에 임명되었는데, 서울에서 야단스럽
게 말이 들기를, “공이 장차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들을 탄핵할 것이다”
하였다. 공이 이 말을 듣고, “내가 일찍 물러가지 못한 것이 한이로다” 하
며 바로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

○공은 나이 팔십 노경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성리학을 좋아하여 밤낮으
로 사색을 쉬지 아니하며 이것을 문장으로 나타내었다. 밤중이 되도록
자지 아니하고 학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분석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
것을 낙으로 여겨 피곤한 줄을 몰랐다.

공은 성혼·이이와 함께 학문을 토론하기를 늙어서도 그만두지 아니하였다. 이이가 늘 말하기를, “나이가 80세인데도 학문을 연구하기에 애쓰며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 이는 오직 이분뿐이라” 하였다. 성혼은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백공의 재주를 바둑 두는 데 비유하면, 어떤 때는 높은 수를 두어 국수라도 상대할 만한데, 어떤 때는 아무렇게나 두어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믿을 만한 재주가 못된다” 하였다. 『석담일기』

○공이 죽자 정철이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외로운 충성은 일대에 둘도 없는 선비요	孤忠一代無雙士
헌납으로 밤중에도 혼자 아뢰던 사람이었다	獻納三更獨啓人
산악의 정기로 이 노인이 태어났으니	山岳降精生此老
하늘에 돌아가서도 응당 빛나는 별이 되리로다	歸天應復作星辰

『상촌선생집』 제37권, 제발題跋 19수

을사년의 사적 뒤에 쓰다(書乙巳事蹟後)

인종과 같은 분을 아들로 두고도 문정왕후가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명종과 같은 임금 밑에서도 이기·정순봉·윤원형 등 수십 인이 밑에서 화를 꾸며 인종의 외척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죽게

하였으니, 소인이 국가에 화를 미치는 것이 대개 이처럼 헤아릴 수가 없다. 명종이 어린 나이로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당년에는 미혹될 만도 하였거니와 만년에 윤원형을 내쫓고 억울하게 죄입은 자들의 원한을 씻어주었으니, 이는 바로 일월처럼 밝은 임금이었던 것이다.

선배들이 일찍이 논하기를, 그 당시 기회를 보아 떠난 자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이고, 바른 말로 과감하게 간한 자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성재省宰(참찬 백인걸)이고, 대신의 풍도를 가진 자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찬성贊成 권벌權機이라고 하였다. 아, 위대하도다.

『잠곡유고』 제9권, 제문

백휴암서원의 제문

해조차도 꿰뚫는 충성에다가	貫日之忠
서리조차 능가하는 절개였어라	凌霜之節
이미 임금 포양함을 받으셨으니	旣蒙聖褒
그 어찌 스승 말에 부끄러우리	何愧師說
한 고을의 두 분 어진 이께서	一鄉兩賢
사우는 같이하고 방은 다르네	同祠異室
봄가을로 정결하게 제수 갖추어	春秋蘋藻
영세토록 질서 있게 제사지내리	永世威秩

『우계집』 제6권, 「잡저」

백 참찬에게 올린 제문 기묘년 11월

모년 모월 모일에 문인 성혼은 삼가 아들 문준文濬을 보내어 술과 과일
과 쌀밥과 면麪의 제수를 올려 별세하신 의정부 우참찬 백 선생(백인걸)의
영연靈筵에 공경히 제사를 올립니다.

공손히 생각건대	恭惟先生
선생은 강하와 산악의 정기를 받으셨습니다	河嶽毓英
깨끗하고 빼어나고 고매하여	清曠秀邁
크고도 넓으셨습니다	既大而宏
공중에 높이 솟아오르고 먼 곳에 달려	凌空越遠
기이함과 거룩함이 간간이 나타나셨습니다	奇偉間發
일찍 스승의 문하에 올라	早登師門
올바른 학문에 종사하였습니다	從事正學
옛 도를 구하는 것으로 법을 삼아	求古作程
작은 성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匪安小成
거의 학업을 마쳐	庶幾卒業
명과 성이 모두 진보하였는데	兩進明誠
갑자기 세상이 나빠져	忽焉時屯
분서갱유와 짝할 만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禍匹焚坑

대들보가 꺾이어	梁木其摧
글 읽는 소리가 그치니	絃歌輟響
예악이 무너져	禮毀樂崩
선비들이 음탕한 데로 내달렸습니다	士趨淫放
이런 상황에서 선생은	于時先生
속마음을 변치 아니하여	內志不爽
진심으로 기뻐하고 복종하여	心悅誠服
높은 산처럼 우러러보며 연마하였습니다	高山鑽仰
때로 녹사를 하여	祿仕隨時
고당에 계신 노친을 봉양하였습니다	致養高堂
치관으로 사헌부에 들어가니	多冠入院
봉황새가 아침 햇볕에 나타난 듯하였습니다	鳳在朝陽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큰일이 있자	有大安危
한 번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간쟁하니	拚一死爭
여러 대신들은 위축되고 두려워하였으나	百辟縮栗
(어떤 본에는 '縮栗'이 '震慄'로 되어 있다)	
선생은 기운이 가득하였습니다	先生氣盈
멀리 유배지에서 온갖 고생을 하였으나	湘纍棲遑
백 번 단련하는 듯이 더욱 굳세었습니다	百鍊彌剛
집에 돌아와 두문불출한 지가	還家杜門
이십 년이 넘었습니다	踰二十霜

집이 몹시 가난하여	瓶粟屢罄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들이 앞에 가득하였으나	啼飢滿前
곤궁함에 처하여도 마음은 형통하여	處坎心亨
그 지킴이 더욱 확고하였습니다	其守確然
막힌 뒤에 드러나니	鬱而後章
깨끗한 명성이 더욱 빛났습니다	清名愈烈
세상일이 다시 새로워지게 되었으나	世事重新
선생은 이미 백발이 되었습니다	先生華髮
성상이 깊이 믿고 의지하시어	上注倚毗
곧은 절개를 표창하시니	褒升直節
인망이 크게 모여	一萃人望
백성들이 다투어 존경하였습니다	民爭手額
경륜을 크게 펼쳐	謂究厥施
군왕의 큰 계책을 도우리라고 여겼는데	匡贊皇猷
어찌하여 그러지 못하고	云胡不然
여러 간신들이 어지럽게 떠들어댄단 말입니까	衆楚群咻
급히 산림으로 돌아와	遄反于山
임천(林泉)에서 한가로이 노닐었으나	婆娑林丘
정성스러운 충성만은	懷懷之忠
길이 잊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永矢不諉
국가에 좋고 나쁜 일이 있으면	邦家休戚

강개하여 반드시 말씀하니	慷慨必言
군자들은 슬퍼하고	君子所悲
소인들은 놀랐습니다	不肖所怛
어리석고 몽매한 소자는	小子顛蒙
옷것을 여미고 가르치는 자리로 나아갔으나	搗趨教席
어린 나이에 철이 없었으니	稚年經童
어찌 큰 도를 알았겠습니까	豈識大方
병으로 폐인이 되어 이는 것이 없으니	病廢而荒
갈 길을 모르는 제가 슬픍니다	悼我悵悵
때로 선생을 모시고	時陪杖屨
간곡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誨詔諄悉
돌아보고 부탁하며 경계하고 채찍질하시니	顧託警勵
은혜가 자질과 같았습니다	恩猶子姪
따뜻한 봄날이나 가을밤에	春堂秋夜
명리의 가르침을 정성껏 가르쳐주셨고	款承名理
성명의 오묘한 이치를	性命之微
끊임없이 말씀해주셨습니다	臺臺不已
장차 이 즐거움이	將謂此樂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생각하였는데	永歲無斃
어이하야 하루이침에	何期一日
큰 병환이 계시단 말입니까	而有大戚

이미 물러났다가 다시 나아가시어	既退而進
대궐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奏章金闕
백세의 수를 누리시리라 기대했건만	期頤考終
끝내 상을 당하여 돌아왔습니다	竟以喪歸
벼슬에 나아감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시니	不潔去就
자신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我心誰知
충언의 있고 없음은	忠言有無
국가의 경중이 되는 것입니다	爲國輕重
소자는 허약한 병을 앓고 있어	小子抱羸
부음을 듣고도 달려가지 못하였습니다	聞訃不行
자리를 마련하고 슬피 통곡하니	設位號慟
애통한 마음 가슴속에 사무칩니다	痛徹心曲
병환 중에는 부축해드리지 못하고	病不舉扶
별세한 뒤에도 관에 기대어 곡하지 못하였으니	歿不憑哭
은혜와 의를 저버려	辜負恩義
슬픈 한이 다함이 없습니다	悲恨罔竭
영구가 길을 떠나	靈輻載道
멀리 유택에 가게 되니	遠屆玄宅
삼가 하찮은 제수를 장만하여	謹具薄饌
자식을 보내어 대신 올립니다	遣子代奠
서면으로 슬픔을 바치니	緘辭致哀

심정은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情因辭見
명년 늦은 봄이나 초여름이면	明年春夏
칩거하는 곳에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니	幽蛰乃動
제가 그때까지 죽지 않는다면	尙待不死
무덤에 가서 통곡하렵니다	往哭新隴
차가운 바람에 한 잔 술을 올려	淒風一觴
영결을 고하오니	告以永訣
만일 오르내리시는 영혼이 계시다면	陟降如在
부디 와서 흠향하소서	庶垂歆格
아, 슬픕니다	嗚呼哀哉
부디 흠향하소서	尙饗

『홍재전서』 제20권, 제문 2

참찬 백인걸 치제문

옛날에 경은 빼어난 호걸로서	昔卿挺豪
산하의 기운을 타고난 드문 기상이었네	山河間氣
소차疏筍를 올려 풍성을 수립하니	筍疏樹立
가슴 가득한 충성과 굳건함이었네	滿腔忠毅
한 서원에 세 사람을 제향하니	一院三享

실로 뜻을 함께하는 어진 벗이었네	寔同賢朋
청추에 행차를 움직여	清秋動蹕
길이 파릉으로 나왔으니	路出坡陵
가슴에 느낀 생각 어떠했을까	所懷如何
술을 갖춘 것이 매우 많다네	有酒孔多

『국조보감』 제24권, 「선조조」 1, 2년(기사, 1569)

○1월. 백인걸을 대사헌으로 삼았다. 인걸이 물러가자 상이 그의 기풍을 그리워하여 누차 교지를 내려 불렀으나 인걸이 병을 이유로 굳이 사양하였는데 이때 특별히 명하여 그의 품계를 올려주고 사헌부의 장관으로 삼았다. 인걸이 세 차례 사양하자 상이 손수 쓴 서찰로 그에게 답하기를, “군자라면 조정에 나와 임금을 요순堯舜처럼 만들고 후세에 준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만약 한마디 말에 속박되어 물러나 멀리 가버린다면 그것이 어찌 선비가 할 도리이겠는가. 경의 해와 달처럼 밝은 충성과 얼음과 서리처럼 냉엄한 절의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알고 있다. 사양하지 말고 빨리 조정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하니, 인걸이 취임하였다.

『국조보감』 제25권, 「선조조」 2, 3년(경오, 1570)

○병조참판 백인걸이 상소하여 을사년과 기유년에 억울하게 당한 신하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그 상소를 대신에게 내려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이준경 등이 의논하여 아뢰었는데, 그 대략에,

“을사년 사건은 사실 의논해야 할 점이 많지만 기유년의 옥사는 매우 억울합니다. 다만 전일 성상의 하교에 을사인乙巳人들의 일은 오늘날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으므로 신들은 감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이때 재해가 매우 심각하여 인심이 술렁거렸는데도 삼공이 별로 건의한 것이 없었으므로 선비들이 비난하였다. 백인걸이 을사년에 억울하게 화를 당한 자들의 원한을 씻어주자고 논단을 제기하자 사람들이 울분해하며 모두 원한을 풀지 못해 이런 한재를 초래했다고 하였다. 이준경이 여론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동료들을 거느리고 의논을 제기하였으나, 정미년 벽서壁書 사건의 옥사와 기유년 충주 사건의 옥사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만 원한을 씻어줄 것을 청하고 을사년의 옥사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 이튿날 삼사가 의논을 제기하여 을사년 이후로 억울하게 화를 당한 사람들의 원한을 씻어주고 청하였다. 그러나 위훈僞勳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론되지 않았다.

『국조보감』 제26권, 「선조조」 3, 12년(1579, 기묘)

○5월. 지중추부사 백인걸이 상소하여 당시의 폐단을 말하면서 첫 머리에 “녹미祿米를 주시니 특별하신 성은에 늙은 신하의 마음이 감격에 차서 차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지 못하겠으므로 우선 조종조 이래 변을 불러들인 것 중에서 큰 변에 대해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당금의 재변을 불러들인 이유를 언급하겠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전하의 재기才氣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영명英明하신데도 정치의 공효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신은 전하께서 병통이 있게 된 근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이 전에 경연에 입시했을 적에 늙고 어두워서 성상의 물으심에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러나와 같이 입시했던 사람의 말을 들어 보니 성상께서 지금의 조정 형편은 어떠하냐고 물으셨다 하는데, 이것은 바로 신이 말씀드리고자 하던 것입니다. 신이 초야에 있으면서 들으니, 벼슬아치들 사이에 심의겸과 김효원이 당으로 나뉘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대신과 근신들이 진정시킬 계책을 의논한 다음 경연에서 아뢰어 두 사람을 모두 외직으로 보임시켰으나, 조정은 조용해지지 않고 떠도는 의논이 구름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의견의 무리에 가까운 자면 서인西人이라 지목하고 조금이라도 효원의 무

리에 가까운 자면 동인(東人)이라 지목하여 조정의 인사들이 모두 지목하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논박하면 여러 사람들이 반드시 ‘아무개는 아무의 당이기 때문에 논박을 당한 것이다’라고 하며 떠들어대고, 한 사람을 천거하여 등용하면 여러 사람들이 반드시 ‘아무개는 아무의 당이기 때문에 천거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며 떠들어대는 등 사정(私情)으로 지목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간과 전조(銓曹)가 손발을 쓸 수가 없으며, 사류들도 비록 강개하여 논핵하고자 하지만 위에서는 서로 공격하는가 의심하고 아래서는 자기를 배척하는 것으로 의심할까 두려워하고 있으니, 동·서리는 두 글자는 바로 나라를 망치게 될 화근입니다. 우뚝이 드러난 선비는 세상에서 많이 볼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를 등용할 수 없고 보면 오늘날 쓸 만한 선비들은 모두 동서의 지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동인으로 서인을 공격해서도 안 되고 서인으로 동인을 공격해서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동인과 서인을 모두 배척하고자 한다면 이는 전하의 조정을 텅 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동과 서를 조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함께 공경하고 협력하게 하는 것이 군자의 논의일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조광조의 공덕은 마땅히 문묘에 종사(從祀)되어야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변방의 방비를 신칙하고 군정을 닦으며 기계를 수선해야 합니다.”

하였다. 그리고 서북 지방의 오랑캐와 남쪽 변방의 해적에 관한 일을 논

하였는데 상소의 말이 수천 마디나 되었다. 상은 후한 비답을 내리고 정
 원으로 하여금 한 벌을 등서하여 대내로 들여와 어람에 대비하게 하였다.
 ○지중추부사 백인걸이 죽었다. 인걸의 지는 사위이고 호는 휴암이다.
 인걸이 늙어서 일을 하지 못하자 서울에 있는 사대부들이 중시하지 않았
 으나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녹봉미와 마초값[騶直]을 모두 도봉서
 원道峯書院에 보내고 왕래하고 유숙하면서 우러르는 회포를 붙였다. 이
 때에 이르러 병세가 위독하자 상이 문병하고 의원과 약을 내려보내 치료
 케 하였다. 그가 죽자 하교하기를,

“어진 재상이 죽었으니 내 마음이 놀랍고 애통하다. 부의를 더욱 후하
 게 하라.”

하였다. 백인걸은 고매하고 활달하며 강개한 기백과 절의가 있었고 높은
 뜻은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다. 처음에 조광조를 스승으로 삼아 종신토
 록 한결같이 높이 사모하고 심복하였다. 을사년의 난難 때부터 만 번 죽
 음을 무릅쓰고 끈은 말로 항거하였는데 다른 사람은 감히 먼저 하지 못
 하였다. 그가 정직하다는 명성이 한 때에 진동하자 간사한 무리들도 무
 겁고 두려워서 감히 그들의 분함을 풀지 못했다. 같은 때에 죄를 얻은 자
 들이 서로 잇따라 귀양 가고 사사賜死되었는데 백인걸은 중도부처中道付
 處에 그쳐 5년간 귀양살이를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여러 해 동안 곤
 궁하였으나 뜻을 꺾지 않았고 만년에 등용되어서는 다시 시대와 뜻이 맞
 지 않았으나 충성스럽고 의로운 마음은 머리가 희도록 변치 않아 일에
 따라 선을 권하고 악을 못하도록 하되 반드시 그 뜻을 극진히 하였다. 나

이 팔십이 넘어서도 여전히 학문의 강론에 힘써 밤낮으로 연구를 하되, 성명性命에 관한 책이 아니면 읽지를 않았다. 그리고 집에 거처할 때에는 가난하고 검소하였으며 입고 먹는 것은 소략하고 거칠었는데, 먼지가 자리에 가득 쌓여도 쓸지 않았다. 상이 그의 기풍과 절의를 중히 여겨 끝끝내 변하지 않고 총애하였다.

『기묘록속집己卯錄續集』

만력 기묘萬曆己卯左 좌참찬 백인걸 소

그 대강에 이르기를, 조광조가 어질기는 어질지만 문묘文廟에 배향하는 것은 그 일이 중대합니다. 신이 감히 다시는 성충聖聰을 번거롭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선 광조의 일과 공적을 들어서 대강 한두 가지만 진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자箕子가 가르침을 베푼 이후로 수천백 년 동안에 유자儒者로서 세상에 이름난 자로는 두드러진 사람이 별로 없고, 다만 정몽주鄭夢周가 도학을 비로소 창도하고, 김굉필金宏弼이 능히 그 실마리를 이었으나 오히려 크게 나타나지 못하였고, 조광조에 이르러서 나이 17세로부터 학문에 뜻을 독실히 하여 행동할 때에는 법도에 따르며 하루 종일 엄숙한 자세로 꿰어앉아 있는 것은 진흙으로 만들어놓은 사람 같았으며, 매양 이경말二更末 삼경초三更初에 이르면 흑 옷 입은 채 조금 자기도 하고 흑 옷을 벗고 자기도 하며, 사경四更 중간에 이르면 소세梳洗하

고 의관을 정제整齊하여 단정히 앉아 있는 것이 진흙으로 만든 사람 같았습니다. 글을 읽는 데는 『소학』, 『대학』, 『논어』, 『근사록近思錄』과 성리학理에 대한 여러 가지 책으로 급선무를 삼고, 실천에 있어서는 효孝·제悌·충忠·신信으로 근본을 삼아 처음부터 끝까지 게을리 하지 않은 것이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오庚午에 이르러 진사 장원에 뽑히니 명성이 드날리고, 어진 사람 불초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동방의 성인이라고 하였으니, 대개 공부를 쌓기를 오래 힘써 진실로 가운데에 차서 밖으로 드러난 자입니다. 이때에 안당이 전형銓衡을 맡아서 처음에 사지司紙를 제수하여 벼슬길을 통하게 하였고, 그 뒤에 을해년 과거에 올라 사문을 흥기시키는 것으로써 자기 임무를 삼고, 도를 행하여 세상을 구제하는 것으로써 자기 책무를 삼아서, 조정에 선 지 다섯 해 동안에, 위로는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래로는 유림을 용동聳動시키고,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켜 거의 정치의 교화를 이루었으니, 사람마다 향할 곳을 알고 효도와 공경을 숭상하여 관학館學 유생이 서로 예법을 좇을 뿐만 아니라, 시정市井의 어리석은 백성들까지도 또한 모두 사모하고 본받아서, 부모를 지성으로 섬기어, 살아서는 봉양하고 죽어서는 애통하고 3년동안 시묘侍墓하는 것을 위아래가 모두 행하고, 북망산 언덕에 표석이 별 늘어서듯 하였으니, 또한 모두 광조의 덕화가 미친 것입니다. 깊은 산과 막다른 골짜기에도 또한 덕화의 미침을 입어서 어린애들이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으면 말하기를, “이때가 착하지 못한 일을 할 때인가” 하였으니, 사람을 감화시킴의 깊은 것이 어떠하였습니까. 다만 중유

從遊하는 자 한충韓忠·박세희朴世熹 같은 이가 또한 당시 사림의 영수로서 재기才氣가 고매高邁하고 강하고 날카로운 것이 중도에 지나쳐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곧장 이루어 하여 옛 신하를 구별하고 소인을 격노하게 하여, 마침내 큰 화를 만들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광조 같은 어진 이가 있는데, 연소한 무리들이 과격하여 화를 초래하게 한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만일 광조가 일을 처리할 때 자세히 살피어 오직 중中과 정正에 힘써서 나이 젊은 무리가 정광필을 논박하려 하자 힘껏 말리고, 향약에 연치대로 앓는 것을 행하려 하자, 비록 억지로 말리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폐단이 생길 것을 염려하였으니, 지금 교정하고 격려하는 일을 불가하다 하여 말린 것을 날날이 들 수가 없습니다. 광조의 어짊에 대해 사람들이 흠을 잡는 것이 없는데도 여러 간흉들이 사학邪學을 하고 괴이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라고 헐뜯어서, 시정에서 거상하는 자까지도 괴이한 행동으로 지목하여 신문하려 하였고, 사대부의 처소로 향하는 자를 기묘의 남은 싹이라고 지목하여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광조의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이 민멸泯滅되어 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던 처음에 신이 경연에서 말하기를, “궁중에서 지금은 광조를 역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였더니,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조가 역적이 아닌 것을 궁중에서도 이미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자세히 아시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생들이 사액하기를 청한 상소가 그다지 중대한 일이 아닌데도 역시 허락하지 않았으니, 신이 감히 문묘에 배향하지는 일로 두 번 아되지 않고 다만 그의 사적과 공적을 진달하는

것뿐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는 통찰하소서.

이때에 대학생들이 일두—蠹·한훤寒暄·정암靜庵·회재晦齋·퇴계退溪를 문묘에 배향하고자 두세 번 글을 올렸는데 그 소장의 뜻은 위와 같다. 정암은 한양 사람인데 한양이 지금 양주陽州에 매어 있으므로 양주 사람들이 서원을 짓고 사액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상소문 가운데에다 언급하였다.

『연려실기술』 제10권, 「명종조 고사본말」, 을사사화

처음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조정이나 민간에서는 혼연히 선정을 기대하였고, 어진 인사들이 차츰차츰 등용되었다. 유관은 당시 영수로 발탁되어 정승이 되니, 자기를 알아주고 대우하는 데 감격하여 나라 일에 충성을 다하며 주장하는 의견이 공정하였다. 이조판서 유인숙柳仁淑은 성질이 강직하며, 이름 있는 이를 끌어들이니, 평소에 청류清流로부터 배척받던 못 소인들은 모두 윤원형에게로 달라 붙었다.

○인종의 병이 매우 위중하던 날 사인 권철權轍이 공적인 일로 찬성 윤임에게 갔다. 마침 대명전大明殿에서 임금이 조복을 벗고 누워 자고 있으므로 권철은 흠칫하여 물러나왔다. 정렴이 내의제조와 임금의 병을 진찰하였더니, 임금은 벌써 기운이 다하여 임종이 가까웠는데 다만 윤흥인尹興仁이 혼자 옆에서 부축하여 앉게 하니, 보는 사람마다 모두 깜짝 놀라

며 멀지 않아 큰 화가 닥쳐올 것을 예측하였다. 『기재잡기』

○임금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윤원형은 곧 보고할 계획을 세워 이기·허자·정순봉 등과 함께 흥한 말을 만들어내어 밖에서 선동하고, 안으로 난정蘭貞이라는 그의 요사한 첩을 들여보내 대비와 임금의 마음을 놀라게 하며 의혹을 품게 하였다.

○일찍이 이기가 병조판서가 되려 할 때 유관이 이를 방해하였고, 임백령은 기생첩 때문에 윤임과 서로 다툰 일이 있었는데, 이로써 원한을 품었다. 정순봉은 평소부터 사림들을 미워하여 언제든지 한번은 분풀이를 하려고 버르었으나, 허자는 성질이 유순하고 근신하였으나 출세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협조하였다. 원형은 마침내 이 네 사람과 결탁하여 심복을 삼아, 윤임을 제거하는 동시에 인숙·관 들에게까지 그 화를 미치게 하려 하여 온갖 일을 꾸몄다. 심지어는 편지를 위조하여 주머니에 넣어 궁중에 떨어뜨림으로써 공의전恭懿殿(인종의 비)를 무함하기도 하고 원형은 제가 언문으로 편지를 써서 임이 공의전에 올리는 것처럼 만들어 일부러 대궐 안마당에 떨어뜨려 문정왕후의 마음을 동하게 하였다. 또 말을 퍼뜨리기를, “인종의 변환이 위중할 때에 임이 장차 제 몸이 보전되지 못할 것을 알고서, 임금의 아우(명종)를 추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림군桂林君 유瑠를 세우려고 하였는데 관과 인숙도 이에 협력하였다” 하여, 문정왕후로 하여금 더욱 의심이 들게 하였다. 그리하여 문정왕후가 교서를 내리기를, “궁중에서 언문 편지를 가지고 왕래하다가 발각된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말하기를, ‘근래에 나라 일이 점점 수상하여지니,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몰라서 밤낮으로 울고 있습니다. 판서 인숙도 이러한 사정에 동정하여 왕위를 공우公友 봉성군鳳城君 완환의 자에게 옮기기 위하여 벌써 정승 유관과도 통하여 놓았습니다. 어제 하교하신 일은 형편상 하기가 곤란하오니, 먼저 말씀드린 일을 속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머뭇거리면 마침내 애매하게 죽을 사람이 몇이 될는지 알 수 없사옵니다. 전번 원로를 귀양 보낼 때 원형마저 치죄하여 버렸더라면 인심이 이렇게 갈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적혀 있었다" 하였다.

○8월에 예조참의 윤원형에게 윤임·유관·유인숙 들을 치죄하라는 밀지가 내렸다. 원형이 이를 대사헌 민제인과 대사간 김광준에게 통하고, 21일 신해에 양사兩司가 중학中學에서 회합을 가졌다. 제인과 광준이 말하기를, "지금 대신 중 두세 사람이 대비의 의심을 받고 있다. 그로써 재상 아무개의 집에 밀지를 내리셨고, 또 익명으로 쓴 글이 발견되어 유언이 그치지 아니하여 궁중에서는 공포에 쌓여 있다. 만일 우리가 먼저 그 단서를 적발하여 가벼운 죄명을 붙여 선처하지 아니하면, 사태가 딴 길로 번져나가서 국가에 화를 미치게 될까 염려된다. 비록 서로가 애매한 줄은 아나, 현실의 사태로 헤아려볼 때에 그대로 보고 넘길 수 없게 되었다" 하였다. 좌중이 모두 말하기를, "이것은 간특한 자가 화를 얻어서 만들려는 수단이다. 우리가 그의 시키는 대로 하여 그 단서를 끄집어낸다면, 이것은 바로 그 술책 중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니 할 수 없다" 하고 지평 김저金儲는, "이 일은 다만 윤임만을 치치하려는 것이 아닐 것이요, 어질고 충성된 인사들이 모조리 도륙되는 화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기묘년의 화는 말만 하여도 콧등이 짙한데, 지금 인사들이 또 곤핍과 정
 眞의 한 짓을 따르단 말이냐” 하였다. 혹은 앉고 혹은 일어서서 노기가
 등등하였다. 집의 송희규宋希奎는, “나는 비록 뼈가 마디마디 부서질지라
 도 따를 수 없다” 하고 장령 정희등鄭希登은, “조정의 중대한 일을 논핵하
 는데, 어찌 내지內旨를 가지고 한단 말이냐” 하고, 사간 박광우朴光佑, 헌납
 백인걸, 정언 유희춘柳希春·김난상金鸞祥은 얼굴빛을 붉혔고, 장령 이언
 침李彦枕, 지평 민기문閔起文은 하늘을 쳐다보고 길게 한숨 쉬면서, “지금
 임금에 어리시어 나라가 불안한 시기에 간특한 소인들이 서로 뜯소문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대신을 논핵해서는 안 될 것이
 다” 하였다. 제인齊仁들이 종일 밀지에 따르기를 간청했으나, 끝내 아무
 도 따르지 않아 그대로 헤어졌다. 이에 간당들은 놀라고 겁을 내며 일이
 성사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으니, 원형은 지중추 정순봉, 병조판서 이기,
 호조판서 임백령, 공조판서 허자 등과 밤에 광화문 밖에서 회합하였다.

○이튿날 임자 22일 아침에 함께 승정원에 나아가서, 나라에 큰일이 일
 어났다고 하며 직접 죄을기를 청하였으므로 임금과 대비가 충순당忠順堂
 에 나왔었다. 이에 기쁜가 앞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형조판서 윤임이 중
 종 때부터 딴 생각을 품고 있다가 이제 와서는 스스로 불안스러운 마음
 을 가졌으며, 좌상 유관과 이조판서 유인숙들도 또한 그와 같은 형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은,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로구나” 하
 였다. 대비는, “임의 흉한 계획은 종종 때부터 이미 나타나 있었는데, 근
 자에 와서는 궁중에서도 또한 위조 언문 서간 번고가 있어서 이를 어떻

게 하면 좋을는지 모르고 있던 터에 공론이 이제야 제기되었으니, 이것은 실로 천지와 선왕의 신령이 암암리에 도와주신 것이로다. 임은 정유년에 김안로와 결탁하여 국모를 위태롭게 하려고 계획한 사실이 이미 허경許垞의 신문서와 유생의 상소에서 나왔고, 중종께서 삼흥三興(김안로 金安老·허항許沆·채무택蔡無擇)을 처리할 때에 함께 이 윤임을 치죄하려다가 세자를 위하여 실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한 품계를 올려주었고, 나도 그를 후대하여 신수경申秀溆의 아들로 부마를 삼을 때에도 처음에는 임의 손자로 부마를 삼으려 했으나 임은 이에 응하지 아니했으니, 이로써 속에 흉한 생각을 품고 후일에 그 독을 터뜨릴 계획을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였다.

○드디어 육조판서 이상으로 영중추 홍언필洪彦弼, 영의정 윤인경, 좌찬성 이언적, 우찬성 권벌, 좌참찬 정옥형丁玉亨, 우참찬 신광한申光漢, 예조판서 윤개尹概, 관운 윤사익尹思翼, 대사헌 민제인, 대사간 김광준, 도승지 송기수宋麒壽, 사관 조박趙璞, 주서注書 안함安喆 등에게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순봉順朋 등이 나와서 아뢰기를, “제인과 광준이 윤임·유관·유인숙의 죄를 탄핵하려 하였으나 하급 관료들이 이를 방해하였습니다. 본시 윤임은 세자(인종)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드디어는 대운·소운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신하와 백성들이 다 같이 받들고 있는 세자를 윤임이 따로 보호해야만 될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경중을 구별하여 이들에게 죄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좌우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

편 이는, “죄를 다스려야 마땅하다” 하고 어떤 이는, “죄를 줄 수 없다” 하였다.

○언필은, “유관과 인숙은 관직을 갈고, 윤임은 약간이나마 형적이 나타나 있으니 귀양 보내야 합니다” 하고 주장하니 신광한은, “전하께서 새로 왕위에 오르시고, 이렇듯 위태롭고 불안한 시기를 당하여 인심을 진정시켜야 될 것이니, 윤임의 죄는 마땅히 모두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언적은, “일은 반드시 광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오며,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 중에 억울하게 걸려들 사람이 많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이에 대비가 이르기를, “사람에 화가 미친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아니다” 하였는데, 위엄이 등등하였다. 언적이 또 아뢰기를, “지금 온 나라의 대소 신민이 모두 한 마음으로 우러러 받들어 감히 사특한 생각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윤임 한 사람을 치죄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워서 밀지를 승정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내려 보내셨습니까. 일을 명백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심이 진정되지 못하는데, 하필 그렇게 하셨습니까. 또한 신하로서의 의리는 자기가 섬기는 분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는 것인데, 이제 와서 그 당시 대행왕께 마음을 다한 사람에게 어찌 심한 죄를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전하께서는 왕대비가 친족으로는 수숙媿叔간이며, 의리로서는 모자간이니, 만일 그 사이에 미안스러운 일이 있다면, 전하의 덕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대비가 답하기를, “경의 말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람에 화가 된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조정에서 혐의해서 사특한 의는

을 없애고자 한다. 그동안 편당이 갈라졌다는 말을 만들어낸 자들이 모두 세자(인종)를 보호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는데, 어찌 반드시 부자간에 틈을 벌려놓고 형제 사이를 이간 붙여야만 세자에게 충성이 된단 말인가. 이것이 모두 윤임의 짓이다. 하늘에 계신 인종의 혼령이 밝게 내려다보고 계실 터이지만 궁중에서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종종께서는 세자가 문안을 드릴 적마다 늘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치셨다. 인종으로 하여금 늘 마음속으로 불안히 여기게 한 것은 모두 윤임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옛적부터 채취 왕비와 거기에서 난 대군을 없애야만 세자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 어디 있었는가. 이미 대군을 해쳐버렸는데 인종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면 국가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윤임이 이제 와서 집정자들과 결탁하는 것은 또한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하였다.

○권벌이 아뢰기를, “신이 세상의 의논을 듣지 못하였사오니, 전일 대윤·소윤이란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옛날 성종께서 나이가 겨우 13세에 차례를 뛰어넘어 세웠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전하는, 곧 인종의 친동생으로서 이미 왕위에 오르셨으니, 어찌 다른 염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 왕자들 중에는 당파를 꾸미는 이가 없고, 대신도 권력을 독점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감히 음험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만일 윤임이 사특한 생각을 품었다면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첫 정사에 힘써 인심을 얻고, 공평하고 지극히 바르게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종종께

서 처음 임금이 되셨을 적에 대신들이 잘 인도하지 못하여 노영손盧永孫이, '이과李顥가 반란을 도모한다'고 고변하여 당상관을 얻었습니다. 이로부터 고변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종종께서도 뒤에 마침내 그 원인을 아시고 연루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석방하시어 온 나라가 모두 북종하고 인심이 안정되었습니다. 이 점은 오늘에도 마땅히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퇴계집』 「권충정공행장權忠定公行狀」

○순봉이 아뢰기를, “중사를 위태롭게 하려 한 것은 사실상 현저한 형적이 없으나, 공론이 이미 일어났으니 마땅히 죄의 경중을 가려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하니 윤인경이, “윤임은 이미 제 스스로 불안한 입장에 있었으니 귀양을 보내고, 세론이 유인숙은 약간의 형적이 있다 하니 관직을 파면하고, 유관은 그 속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니 대신의 직을 갈게 하옵소서” 하여, 그대로 행하였다.

○이에 윤임을 성주星州로 귀양 보내고, 유관은 벼슬을 갈고, 유인숙은 파직하였다.

○23일 계축癸丑에 집의 송희규·사간 박광우 등이 피험하여 아뢰기를, “어제 민제인·김광준들이 윤임들에게 논하기 위하여 회의할 때 신들은 생각하기를, 세 사람이 비록 논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임금이 어리시고 국가가 염려스러운 때를 당하여 간특한 무리들이 뜯소문을 서로 지어내는데, 이것을 가지고 대신을 탄핵한다는 것은 그 시기가 아니고, 간교한 자의 계책에 빠져 사람의 화를 증가시키는 것이라 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 등의 하는 일

을 보니…… 저희들의 직을 같이주소서” 하였다. 제인과 광준도 역시 피협하여 직을 같이주기를 청하였고, 원상院相 이언적은 양편이 모두 나와서 일보게 할 것을 청하였다. 희규는 말하기를, “원형元衡이 밀지라 빙자하고 조정 밖에 전파하여 인심을 의혹하고 어지럽게 하였으니, 마땅히 첫째로 이 간특한 자를 탄핵하여 명백히 범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처리하라” 하였다. 사헌부 관원들이 모두 물러가고, 헌납 백인걸이 남아 있다가 혼자서 아뢰기를, “위에서 하시는 정사는 마땅히 광명정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윤임의 일은 마땅히 원상과 의논하여 처리할 것인데, 안에서 윤원형에게 밀지를 내려 보내시어 두세 사람의 재신을 시켜서 직접 아뢰어 그 죄를 처단하게 하였으니, 죄를 처단하는 것이 옳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주는 방법은 크게 법의 체통을 잃은 것입니다. 뒷날에 간사한 무리들이 반드시 이것을 단서로 기세를 펴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죄인이란 반드시 뚜렷한 명목을 세워서 죄를 결정한 뒤에 전 국민이 모두 아무가 아무런 일로 어떤 죄를 받았다 고할 터인데, 윤임 등 세 사람의 죄는 다만 멀리 귀양 보낸다, 파면시킨다, 사면시킨다고 발표한 것뿐이고 전지의 사연이 없으니, 이것은 국법의 떳떳함이 아닙니다. 원형은 밀지를 처음 받았을 때에 마땅히 이를 방계防啓하기를, ‘이러한 비밀로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이를 거행할지라도 오히려 후폐가 있을 터인데, 하물며 지친에 속하는 제가 이를 취급한다면 그 폐해를 장차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상주하였으면, 위에서도 처사에 실수가 없었을 것이며 아래에서도 폐

해를 끼칠 염려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급작히 제가 직접 나서서 스스로 재상에게 상통하여 국가의 처사를 광명정대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추고하소서. 민제인·김광준이 윤임의 일을 논하여 아뢰자고 신들에게 의논했을 때, 신들은 생각하기를, 나라에는 대신과 육조판서가 있는데 이 일이 그들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밀지로 나온다는 것은 매우 정당하지 못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인齊仁 등도 그렇게 생각하여 이를 아뢰지 않았습니다. 이것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원형의 실수는 처음 직접 임금을 뵈었을 적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드리지 아니한 것이 또한 틀렸습니다. 하물며 제인은 사헌부의 장으로서 밀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두세 재상의 집으로 쫓아다니며 꼭 명을 전달하는 군졸과 같은 행동을 하고 다니니, 이것이 비록 임금을 위로하려는 생각에서 나왔다 해도 대간으로서의 체통은 없어진 것입니다. 집의 송희규와 사간 박광우도 신이 아뢰는 바와 뜻은 같으면서도 곧 결정하여 아뢰지 못하고 번거롭게 사양만 하는 것은 그 태도가 모호하여 자기가 말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오니, 제인 이하의 직을 모두 바꾸소서” 하니 답하기를, “밀지는 종사가 절박한 때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너희들이 아뢴 뜻은 조정과 상의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유희춘은 인걸이 아뢴 글을 보고 혀를 내두르며, “참, 장하다”고 감탄하였다. 『석담일기』

○24일 갑인 에 대비가 이르기를, “요즈음 불칙한 화로 종사가 절박하므로 어쩔 수 없이 밀지를 내려 보낸 바 있었는데, 이에 옥당과 대간이 아

된 바를 보니, 모두들 이것을 그르다 하고 이제는 오히려 나라 일에 몸을 바치는 사람을 바르지 못하다 하여 논하기를 마지 아니하니, 이 같은 이의를 말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라 일을 하겠는가” 하고, 즉시 육조판서 이상을 불러들이게 하고 명을 내리기를, “백인걸은 일을 정대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역적 윤임을 옹호하고 나라 일을 깊이 걱정하는 사람들(원형의 무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니, 우선 백인걸의 관직을 파면하고 금부에 가두어 심문하여 철저히 다스리고, 송희규 등은 모두 파직하라” 하였다.

○윤인경이 글로 아뢰기를, “대간이 말로 죄를 받게 된다면 사기가 꺾일 것이오니, 그의 어리석고 망령됨을 용서하소서” 하니 답을 내리기를, “내가 백인걸의 아뢰는 것을 보니 밀지를 그르다 하였는데, 이것이 위예선들 어찌 하고 싶어서 한 일이겠는가. 임금이 어리고 국가가 염려스러운 시기에 역적들이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고 하여 사세가 매우 급급한데, 이에 대하여 한 사람도 들고 나서서 난국을 구하려는 사람이 없다.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던 끝에 마침내 과거의 전례를 모방하여 밀지를 내린 것이니, 이는 어쩔 수 없어 한 일이었다. 이제 이것으로 탈을 잡아서 동료를 탄핵하여, ‘명을 전달하는 군졸과 같다’고까지 하니, 아래에서 아무도 바른 말을 해주는 자가 없는데도 위에서 밀지조차 내릴 수 없다면, 우리 모자(대비와 명종)는 고립되어 도움도 받을 데 없이 가만히 앉아서 망하기만 기다리란 말인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간적奸賊의 말을 듣고 그런 것이다. 또한 윤임 등의 죄를 너무 가볍게 처리하였기 때

문에 시특한 논의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니 법에 의하여 죄를 처결하게 하라” 하였다.

○인걸이 옥에 들어 원정原情(죄수가 자기의 진정眞情을 공술供述하는 것)한 뒤에 양사兩司의 계청에 의하여, “심문은 중지하고 석방하여 보내라”고 명하였다. 인걸이 아뢰 글씨를 써서 대궐에 나갈 때 그의 어머니와 아내에게 작별을 고하자, 아내가 울면서 작별을 말했으나 듣지 않더니 마침내 ‘윤임의 당’이라 지목되어 옥에 갇혔다. 대신 윤인경과 부학 나숙羅淑이 소를 올려 극력 구하고, 또한 밀지의 부당함을 말하였다. 뒤에 일결은 마침내 멀리 귀양 가게 되었다. 정미년에 안변安邊에 귀양 갔다.

○심하도다, 소인(원형)이 국가를 해침이여.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해치려는데 조정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을 듯하자, 마침내 대비를 현혹시켜 밀지를 빙자해 위협하여 광명정대하여야 할 임금의 처사가 불분명한 데로 빠지게 하여 한 세상 공론의 입을 봉쇄하고 사림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감행하였으니, 하늘에 사무치는 그 죄상은 어떻게 죽여야 할까.

백인걸은 용감히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정색으로 바른 말을 하였다. 비록 그의 말이 조금도 실시되지 못한 채 곧 파면과 쫓겨남을 당했지만, 또한 여러 소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으며 바른 사람들의 눈을 고무시켰으니, 우주 간에 이 한 번의 장한 행동이 없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장남헌長南軒이 호전胡銓의 봉사를, “일월과 빛을 다투겠다”고 칭도하더니, 나는 인걸의 이 상주문에 대하여도 또한 그와 같이 말하겠다.

○이에, “유관과 유인숙은 윤임에게 붙어서 종사를 위태롭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는 정순봉의 말을 인용하여, 윤임은 멀리 떨어진 섬에 안치시키기로 하고, 유관과 유인숙은 중도부처하고, 김저는 관직을 삭탈하고, 송희규 이하는 파직시켰다.

○윤임은 남해南海, 유관은 서천舒川, 유인숙은 무장茂長으로 귀양 보냈다.

○이기는 우의정, 임백령은 이조판서, 민제인은 호조판서, 허자는 대사헌, 나세찬羅世纘은 대사간에 임명했다.

○26일 병진에 병조판서 권벌이 원상院相으로서 대궐에 들어가 아뢰기를, “선왕조부터 7년 동안 계속하여 흉년이 들었고 하늘이 여러 차례 큰 재앙을 내리었는데, 올해는 가을비가 그치지 아니하고 근일에 또 큰 바람이 불고 장마가 그치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대신을 귀양 보내고 쫓아내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일인데, 그 죄의 명목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늘의 뜻에도 노여움이 있어서 이러한 듯하여 매우 두렵게 여기는 바입니다. 근래 모여 의논한 일에 대해 아무도 그 단서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종사를 위태롭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는 것으로 치죄한다면, 이것은 신하로서는 극도의 죄가 되는 것이니, 명목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어리신 임금께서 보위에 오른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급작히 선왕의 유명을 받은 대신을 귀양 보내니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게다가 또 간관까지 잡아 가두시니, 누가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신은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죽을 줄을 알면서도 감히 아뢰입니다. 윤임이 비록 무거운 죄를 받을지

라도 그다지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왕대비(인종 비 박씨)에게는 지금 전하의 어머니라는 명분이 있사오니, 만일 이 윤임의 일 때문에 심려하다가 병환이라도 드신다면 전하의 덕에 큰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언비어란 것은 옛날부터 있는 것이며 고래로 현명한 임금 은 이로 인하여 사람에게 죄를 주지 않았습니다. 유관은 평소 배에 병이 있어서 조정에 나와서도 늘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또한 지식도 없는데 감히 사직하고 물러나지 못한 것은 국가를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유인숙은 상기증(上氣症)이 있는 지 벌써 여러 해포가 되는데, 이러한 늙고 병든 서생으로서서는 더 높을 수 없는 관직에 있으니, 어찌 탄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죄의 명목을 분명히 정해야만 인심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만일 먼 곳으로 귀양 가다가 병이 들어서 중도에서 죽는다면, 사람마다 말하기를, '나라에서 죄 없는 대신을 죽였다'고 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냉정하신 마음으로 이를 살피시고 널리 여러 신하들에게도 문의하여 사실과 죄명이 서로 부합되게 하시면, 곧 여러 사람들의 마음도 안정되고 하늘의 재변도 풀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답하기를, "이 일(윤임의 죄)을 누가 모른단 말인가. 또한 재변을 핑계하고 죄를 윤임 등에게 준 것이 그르다 하니, 재변이 만일 죄를 준 뒤에 일어났다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재변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간특한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이런 말이 생기는 것이다. 세종 때에 소현왕후의 아버지도 중죄를 받았으니, 만일 죄가 있다면 지친이라 하여 어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조정에서 이와 같으니 나라

일은 더욱 그릇될 것이므로 나는 한심하게 생각한다” 하였다. 『동각잡기』 「행장」

이때 권벌이 선왕조에서 부탁을 받은 무거운 책임을 생각하여 한번 죽음으로써 국가에 보답할 것을 맹세하고, 밤을 새워가며 걱정하고 분해하며 불을 밝혀 아뢰는 글을 썼다. 이른 아침에 대궐에 나아가려 하니, 집안 사람·아들·딸·사위 등이 서로 붙잡고 울면서 말리는데도 곧 뿌리치고 나갔다. 대궐에 이르러 신광한과 서로 만나서 같이 걷게 되었다. 신광한이 공의 뜻을 알자 깜짝 놀라며 이를 굳이 말렸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원상 이언적에게 가서 주서 유경심柳景深을 불러 아뢰는 글을 정서시키는데 초안에는, “대비는 한 부인이시며 임금께서는 미성년인 고아로서, 선왕조의 대신을 귀양 보내고 내쫓는데 그 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뜻이 진노하는 원인이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윤임이 만일 다른 뜻을 품었다면, 어찌하여 인종의 병중에 5, 6일간이나 입시하고 있을 때에 감행하지 아니하고, 왕위가 이미 결정된 오늘 날에 와서 감히 딴 계획을 내겠습니까” 하는 등의 문구가 있었다. 언적이 초안을 보고 놀라면서, “사태가 벌써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말하면 불측한 화만 일으킬 뿐이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면서 드디어 그 위태로운 문구를 모두 지워버리니, 권벌이 물러앉아 무릎을 안고 길게 한숨 쉬며, “이렇게 모두 삭제해버릴 바에야 차라리 말을 하지 아니함만 못하겠다”고 하였다. 「행장」

○이때 유관 등 세 사람의 난역亂逆에 대한 벌을 실시하려 하였는데, 사

람들은 그가 원통한 줄을 알면서도 감히 구제하는 자가 없었다. 권벌이 혼자서 항변의 글을 올려 그들이 딴 의도가 없다는 것을 극력 밝히는데 충성이 문구에 넘치고 의기가 얼굴에 나타났다. 비록 여러 간교한 무리들이 죽 둘러서서 으르렁거리고 옆에서 엿보았으나 조금도 개의치 않고 기운이 넘침하기가 추상같았다. 김안국이 일찍 공은 절의를 위하여 죽을 분이라고 인정하여, “권벌은 소박하고 진실하며 충성스럽고 정직하여, 어린 임금을 부탁할 수 있을 이는 바로 이 사람이다” 하였고, 정광필鄭光弼은 일찍이, “권벌은 어려운 때를 당하여 목숨을 바치고, 그 뜻을 빼앗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니, 그 말이 과연 모두 들어맞았다. 『아언별록野言別錄』

○이때에 권벌이 또 윤원형에게 편지를 보내어, ‘내가 서쪽으로 가지 않으면 큰 화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여 그를 책망하였다.

○대사헌 허자와 대사간 나세찬이 연명으로 아뢰기를, “유관 등이 종사를 위태롭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는 것으로 죄를 결정하는 것은 죄명이 너무 중합니다” 하고 윤인경도 또한 이렇게 말하니, 순봉이 크게 노하여 소를 올렸다.

○이때 임백령·허자가 모두 아뢰어 윤임의 죄목 중에서 ‘종사宗社’ 두자를 뺄 것을 청하니, 순봉이 이 때문에 버럭 노하여 다시 앞서 하던 말을 번덕스럽게 꾸짖었다.

○27일에 정순봉이 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다. “신은 간악한 역적이 반란을 꾸미려 한다는 말을 가만히 듣고 마음으로 통분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신이 오랜 병으로 능히 직접 아뢰지 못하고 있다가 밀지

가 내렸다는 말을 듣고는 놀랍고 걱정됨을 견딜 수 없어 두세 재상과 상의하고 대사헌에게 말하여 이들로 하여금 먼저 아뢰게 하였더니, 당시의 대간들이 도리어 밀지를 부정하다 하여 각자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위태함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켜 함께 의논하는 재상들을 따라서 죄상을 진술하고, 경중을 따라 죄를 주어 인심을 진정시키고 종사를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그 뒤에 사특한 논의가 연달아 일어나서 인심이 요동하고 있으니, 유관·유인숙이 비록 주범은 아니라 할지라도 서울 안에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아울러 귀양 보내고 추방할 것을 청했던 것인데, 권벌은 조정의 중신으로 무리하게 그들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신무장人臣無將이니 국법에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흉한 음모가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윤임은 정유년간에도 삼흥(김안로·허항·채무택)과 한 당이 되어 국모(문정왕후)를 해치려 하였습니다. 만일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어머니(지금의 대비)가 쫓겨나는데 아들(명종)이 온전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대행왕大行王(인종)께서는 효성과 우애가 천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 사이에 조금도 틈이 없었는데, 윤임은 이간 붙이는 말을 만들어 상하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대행왕께서 돌아가신 뒤에 절로 의구심이 생기자 몰래 대신과 결탁하여 반역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죄상은 죽어도 남음이 있으니 비록 선왕(인종)의 지친이나 사세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유관은 유명을 받은 대신으로서 위태롭고 염려스러운 시기를 당해 동료들과 협력하여 어린 임금을 보좌하고 인도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윤임의 말을 따라

전하를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지게 만들고, 전하가 왕위를 계승 받는 날
 에 영상과 말하기를, '누구를 세워야 하는가' 하고 물으려 하였습니다. 대
 행왕이 돌아가시면 중종의 적지는 오직 전하 한 분이시고, 대행왕께서
 유교하신 데에도, '경원대군慶原大君이 있으니 후시를 부탁할 수 없다' 하
 셧는데, 관이 또다시 누구를 세우려고 문의한 것이겠습니까. 유인숙은
 윤임의 집안과는 혼인관계로서 연결된 지가 이미 오래고, 전하께서 왕위
 에 오르시자 곧 임금이 되시기 전에 가르치던 스승을 불러서 전하께서
 착하신지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만약 착하지 못하였다면 장차 어떻게 하
 려 했겠습니까? 이언적이 입시하였다가 물러가서 인숙을 보고, '전하의
 영특하고 총명하심이 뛰어나시더라' 하였더니 인숙은 언짢은 기색을 나
 타내며 묵묵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도 함부로 전하에 대하
 여 요약한 말을 하면서 임금께서 눈병이 있다는 등 조금도 거리낌 없이
 지껄여 죄악이 또한 크니, 목숨을 보존하는 것만도 만족한 일입니다. 전
 하께서 왕위를 이어 받으시던 날 이림李霖 등 몇몇 하급 관료들이 이 사
 람들의 지휘를 받으며, '나라의 권리를 대비에게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
 다'는 말을 공공연히 떠들어대었으니, 이것 또한 음흉한 계획의 일단이
 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세 사람의 죄를 밝혀 기록하여 안팎에
 알리심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면 이보다 더 큰 다행이 없겠
 습니다. 7월 이후로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나지 않는 날이 없었고 흐
 린 무지개가 해를 둘러싸고 장맛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음
 이 왕성하고 양이 미약하기 때문이니, 임금이 악하고 신하가 강했던 징

조였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논의하면서부터 일기가 차츰 개였으니, 인심은 속일 수 없는 것이며 천후의 상징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권벌은 여러 해 거듭된 심한 재변은 생각지도 않고 도리어 하루 동안 은비를 가지고 세 사람을 치죄한 징조라 하니, 신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소가 올라가자 대비는 교서를 내리어 그를 칭찬하였다.

이때 원형은 공론이 번갈아 일어나는 것을 보자 어찌할 줄을 몰라 밤에 변장을 하고, 생원이라 자칭하며 기범과 순봉順朋에게 가서 상의하였고 순봉의 문객인 박정원朴貞元이 녹공錄功할 계책을 모의하였다. 일찍이 권벌은 순봉과 매우 친하였으며, 순봉이 고변할 때에 몸이 불편하여 수개월간 쉬고 있다가 이날 처음으로 나왔는데 권벌이 그를 맞이하면서, “대감은 또 어떻게 오셨소” 하니 순봉이 기가 질려서 모의가 약간 늦어졌던 것인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순봉의 언론이 점차로 변하여 가혹한 태도로 나아갔다. 일이 결정된 뒤에 남에게 말하기를, “나쁜 놈들은 당장에 처단해버려야 할 것이지만 권벌의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등에 땀이 흘러서 다시 말도 못하여 일이 늦어졌고 이문중李文中 기범의 자수의 일하는 것이 매섭지 못해서 여러 날을 두고 시끄럽게 말하게 되었다” 하였다. 『충재집沖齋集 부록』

○28일에 임금과 대비가 같이 충순당에 나왔아서 현직과 전임대신 및 중신들을 불러들였으니 홍언필·윤인경·이언적·권벌(병조판서)·임백령(이조판서)·윤개·민제인(호조판서)·정옥형(형조판서)·윤사익·허자(대사헌)·나세찬(대사간)·송기수·안명세安名世(기사관記事官)·주서 유경심

이 입시하였다. 순봉의 상소문을 여러 신하에게 보이니 언필과 인경 등은 인자한 덕을 베풀기를 칭하고, 또한 그들이 선왕의 은총 입은 것을 진술하였다. 허자와 임백령은 거짓 옹호하는 체하면서 임금의 감정을 촉발시켜 은근히 세 사람의 죄를 엮으려 하였고, 권벌은 순봉의 배척을 당하여 도중에 물러나오면서도 오히려 유관 등이 원통하다는 사정을 말하였다. 대비가 하교하기를, “윤임이 일찍이 왕대비(인종의 비)에게 글월을 내 통하였는데 내용이 자못 긴박하여 화를 예측할 수 없었다” 하니 언적은, “대행대왕께서 위증하실 적에 왕대비께서 유교遺敎를 찬성하셨고, 또한 왕대비로 말씀하면 임금님에게는 모자의 도리가 있사오니 만일 미안스러운 사태가 있게 된다면 성덕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고 곧 눈물을 흘리면서, “살리는 것을 좋아하고 죽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임금으로서의 훌륭한 덕이옵니다. 결정적인 명령이 일단 내려진 후에는 다시 말씀을 청할 수 없사오니, 바라건대 깊이 재량하시어 처리하소서”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대비의 뜻에 맞추어 말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의 소견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비께서 하교하기를, “이와 같이 위태롭고 염려스러운 때에 정순봉은 국가를 위하여 신변을 돌보지 않고 소를 올리니 정말 절의 있는 신하로다” 하니 언필은, “잘 재량하여 처결하시어 인자하신 덕을 나타내소서” 하였다. 이에 대비는, “어린 임금이 자리에 앉았으니 위태롭고 염려스러운 시기이다. 예종 때에 남이南怡가 역모를 모의했으므로 국상 중이었지만 임금께서 직접 문초하시고 단근질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나라 일의 경중을 따져서 행한 것이다. 나도 어찌 사람 살

리기를 좋아하는 심정이 없겠는가만 본시 소인을 다스릴 때는 뱀을 베는 것 같이 해야 하는 법이다. 만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면 왕실에 위협이 곧 닥치게 될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알아서 처결할 터이니 그대들은 물러가 있으라” 하였다.

○29일 궁중에서 의금부에 전지를 내려, “윤임·유관·유인숙에게는 사약을 내리고, 이림은 의주에 안치하라” 하였다.

관이 죽을 때 하늘을 쳐다보며 혼자서 말하기를, “내가 선왕의 아들(명종)에 대하여 감히 배반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늘과 땅은 이 마음을 알아주리라” 하였다. 『아언별집』

○전지에 이르기를, “윤임은 본시 흉칙하고 간사한 인간으로 오랫동안 왕실의 세력을 의지하여 오더니, 마침내는 흉악한 세 사람이 서로 결합하여 국모를 해칠 계획을 꾸미었다. 또 세자(인종) 궁에서 화재를 당하자 무도한 말을 많이 만들어내어 어지러운 소문을 퍼뜨리고 흉칙한 틈을 거듭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항상 불안한 생각을 품고 제 몸을 보전할 계책으로 권력 있는 신하와 결탁하고 멋대로 권력을 휘둘러 왕실을 위태롭게 하려던 형적이 탄로되었다. 그러므로 법에 의하여 죽음을 내리노라” 하였다. 충주忠州에 이르러서 사사賜死하였다.

○전지에 이르기를, “유관은 평소부터 윤임과 친밀하였다. 그런데 대행대왕께서 병환이 위독하실 때에 왕위를 계승할 분이 정해져 있는데도 유관은, ‘세워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여쭙어야 한다’ 하였다. 그리고 내가 왕위를 계승한 뒤에 대비께서 정사를 듣는 것은 옛적부터의 전례로 되

어 있던 것이다. 그런데 유관은 말하기를, ‘국모는 조정에 나설 수 없다’ 하였으니, 이는 모두 몰래 다른 뜻을 품고 저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이다. 죄가 왕실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법이 용서할 수 없으므로 죽음을 내린다” 하였다.

○ 전지에 이르기를, “인숙은 윤임과 혼인 관계가 있으며 그의 음모를 협조하였고, 속으로 권력 잃을 것을 염려하여 내가 임금이 되면 저에게 불리하리라고 생각하여 몰래 나를 가르치던 스승을 불러 내가 총명한가의 여부를 물었으며, 나를 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전하였다. 또 내가 현명하다는 말을 들으면 매우 언짢은 기색을 보였으니, 이것은 모두 속에 다른 뜻을 품고 저의 욕심을 이루려 한 것이다. 따라서 죄가 왕실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법이 용서할 수 없으므로 죽음을 내린다” 하였다.

『석담일기』 권상, 「1569년(선조 2)」

○ 금상 2년 정월. 백인걸을 대사헌으로 임명했다. 인걸이 물러나자, 임금께서는 그 기풍과 절개를 생각하여 여러 번 교서로 내려 불렀으나 인걸이 병을 칭탁하여 굳이 사양하기에 이때에 와서 임금께서 특명을 내려 승품陞品(직위가 종3품 이상의 품계에 오름)시켜 현장憲長(대사헌)을 삼았다. 인걸이 세 번이나 글을 올려 사양하였으나 계속 소명召命을 내리니 마침내 배명拜命하였다.

○그 뒤 조강에서, “전하께서 송기수가 기록해놓은 것을 보시면, 을사사화의 원통함을 더욱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다. 선조는, “기수가 이미 간인들의 정상을 알았으면, 어찌 그때에 바로 말하지 않았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선조가 이르기를, “그러면 어찌 병이라 핑계하고 물러가지 않고, 아직까지 녹훈과 관작을 보전하고 있는가” 하였다. 『패관잡기』 『유분록』

『연려실기술』 제11권, 「명종조 고사본말」, 윤원형의 세력에 붙은 사람들

김명윤金明胤은, 자는 회백晦伯이며, 본관은 광산光山이요, 극핍克樞의 아들이다. 계유년에 진사가 되었다. 선비로 있을 때에 헛된 이름을 얻어 조광조의 현량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저작이 되었다가, 합격이 취소된 뒤에 곧 벼슬하여 익위사 시직이 되고, 중종 갑신년에 다시 문과에 급제하여, 먼목을 바꾸어 시세를 좇아 이익을 탐하며 뻔뻔스럽게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므로 세상 사람들이 더럽게 여겼다. 을사년에 위훈으로 광평군光平君이 되고, 벼슬이 찬성에 이르렀다가 선조 때에 삭탈되고, 외방에 내쫓겨서 죽었다.

젊어서 선하다는 명망이 있어 현량과에 뽑히고, 합격이 취소된 뒤에 명

윤은 도로 유건을 쓰고 과거장에 들어가서 급제하자, 시비를 가리지 않고 출세하기에만 급급하였다. 을사년 회란에 권간의 뜻을 받들어 봉성군 鳳城君과 계림군 桂林君을 무고하여, 큰 화가 하늘까지 닿아 사림이 일망 타진되었고, 명종 말년에 바른 의논이 다시 일어나 여러 간신들의 세력이 꺾이니, 명윤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을사사화에서 남은 무리들이 원통함이 많이 있으니, 원통을 풀고 치욕을 씻어서 인심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조식·이항 李恒 등이 부름을 받자, 명윤이 착한 선비들에게 아첨하려 하여 아뢰기를, “이들은 마땅히 대간이나 시종의 벼슬을 주어야 합니다” 하였다. 시세를 따라 이익만을 취하는 술법은 늙을수록 더욱 교활하여 사람이 분개하고 미워하여, 선조 초년에 죄로 관직이 삭탈되고도 오히려 목숨을 보전하게 된 것을 사람들이 불쾌히 여기었다. 인종이 처음 왕위에 오르자 사헌부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기묘사화의 원통함을 씻으려고 아뢰는 말에, “기묘년 일에 관계된 선비는 정직하지 않은 이가 없다” 하자, 지평 백인걸이 그 구절을 말소하자 하니, 동료 중에 노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인걸이 말하기를, “임금에게는 털끝만큼이라도 속여서는 안 된다. 기묘년에 현인이 많았지마는, 어찌 다 정직한 사람이라 하겠는가. 현량과가 혁파된 뒤에 책보를 끼고 과거 보러 들어간 이도 또한 정직한 사람이었는가” 하였다. 뒤에 인걸이 명윤에게, “당신은 천백 억의 화신 千百億化身이다” 하니 사람들이 꼭 맞는 말이라 하였다. 『석담일기』

『연려실기술』 제12권, 「선조조 고사본말」, 대비의 수렴청정

정묘년(1567) 7월에 인순대비가 밭을 치고, 임금과 같이 정사를 하기로 하였다.

○대비가 능에 참배하는 예를 행하고자 하니, 영상 이준경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전례典禮를 상고해보면, 왕비가 능에 참배하는 조문이 없으니, 이는 예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예전에 동진東晉 때 황후가 능에 참배한 일이 있었으나 대개 황제가 어린 까닭이었으며, 의논하는 자가 그래도 예절이 아니라고 하여 그만두었고, 그 후에 역대로 예악禮樂을 구비함이 송나라 같은 데가 없으나, 역시 황후가 능에 참배하는 예는 없었으니, 그것이 예법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능에 참배한 일이 간혹 있었으나, 다 한때의 정을 좇아서 그런 지나친 행동을 한 것이니, 지금 그대로 좇아서 또 능에 참배하신다면, 이것은 선왕들의 허물을 무겁게 만들고 그것을 잘못이라 하면서도 본받는 일이 될 것이니, 이 어찌 시초를 바르게 해야 할 새 임금의 첫 정치에 바라는 바이겠습니까. 이제 만일 전날의 과실을 따라서 또 비례의 거조를 행하면, 이제부터는 그것이 전례가 되어 만대의 무궁한 폐단을 열어 위魏나라의 호황후胡皇后가 태산泰山에 참배한 것과, 당 나라 무후武后가 종묘에 아헌亞獻한 것과 같이 장차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천재지변이 거듭 생기니, 진실로 정성을 다해 인사를 닦아 고요히 기다려도 비상한 변괴가 있을까 두렵거늘, 거기에 예를 파괴하고 의에 어긋나는 행동

을 또다시 하여 하늘의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대비가 답하기를, “아뢰는 말씀 지당하여 그지없이 두렵소. 죽은 뒤에는 마땅히 능에 모시려만 지금의 참배는 국가와 종사를 생각하여 실행하지 않겠소” 하였다. 『동고집』

○대비가, “수렴정치를 얼마 동안 할까” 하고 물으니, 대사간 백인걸이 나와서 아뢰기를, “새 임금께서 그렇게 어리지 아니하시니, 여주女主가 국정을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지라, 대비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얼마 안 되어 발을 견었다. 『명신록』

○무진 원년 2월에 푸르고 붉은 햇무리가 있고 흰 기운이 무지개처럼 해를 건너질렀으므로 왕대비가 임금에게 정사를 돌려보내고, 발을 견고 시 신侍臣에게 이르기를, “여주가 정사에 참여해서는, 비록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하여도 큰 근본이 바르지 아니하니, 다른 것은 볼 것이 없거늘, 하물며 다 잘할 수도 없는 것에 있어서이겠는가. 해의 변화가 진실로 미망인이 정사를 들은 연유로 생긴 것이리라” 하였다. 『석담일기』

『연려실기술』 제12권, 「선조조 고사본말」, 덕흥군의 추존

○무진년 4월 하동 부부인 소상小祥에 임금이 사친의 제사 지낼 것을 의논하니, 대사간 백인걸이 아뢰기를, “예는 인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하가 비록 왕통을 계승하시었으나 사친의 은혜도 다 끊을 수 없는 것이

오니, 명분과 대의에 혐의되는 것이 없다면, 제관을 보내어 지극한 정을 펴는 것도 불가함이 없을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을 좇았다. 사헌부에서 백인걸을 잘못이라 논박하여 체직되었다. 『우암집(尤菴集)』과 『명신록(名臣錄)』의 합록(合錄)

그때에 맑은 선비가 조정에 가득하여 임금의 사친에 대한 존숭을 힘써 누르고 깎는 것만을 주장하였는데, 백인걸이 너무 과하다고 말하였으므로 사론(士論)에 버림받아 종신토록 용납받지 못하였다. 『지천병인차(遲川丙寅劄)』

『연려실기술』 제12권, 「선조조 고사본말」, 을사년의 원통함을 풀고 을사년의 위훈을 삭제하다

○임금이 위를 계승한 처음에, 먼저 백인걸을 부교리로 삼았다가 얼마 후에 직제학으로 승격시켰다. 백인걸이 오랫동안 폐출되었다가 다시 등용되었건만, 그래도 비장한 마음으로 의논하여, 늙었다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신뢰하여 중하게 여겼다. 『석담유사(石潭遺事)』

○무진년 2월에 이보다 먼저 승지 기대승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학문과 행실이 출중한 사람들이 전일에 귀양 갔다가 이제는 나이가 늙었으니, 마땅히 빨리 등용하여 불차(不次)의 자리에 발탁하소서” 하니, 이는 백인걸과 노수신 등을 가리킴이었다. 대신도 역시 그렇게 말하였더니, 이때에 와서 발탁되어 인걸은 이미 당상에 올랐고 수신은 직제학을, 유희춘

은 응교를, 김난상은 집의를 시켰다가, 머지않아 모두 당상관에 승진되었다. 『석담일기』

『연려실기술』 제12권, 「선조조 고사본말」, 이준경의 유차遺劄

처음에 이준경이 정승자리에 있으면서 일시에 명망이 있었으나, 다만 재주와 식견이 부족하고 성질이 높고 거만하면서, 선비를 높여 주고, 말을 받아들이는 도량이 없어 재해가 절박하고 인심이 흉흉한 때를 당해서도 별로 건의함이 없으므로 선비들의 비난을 받게 되니, 준경도 스스로 불안하여 신진사류들과 화합하지 못하게 되었다. 기대승은 재주와 기개가 넉넉하여 일을 논할 때에 과감하고 날카로워 이준경과 점점 틈이 생겨 기대승이 분이 나서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니, 사류들이 대부분 아깝게 여겼다. 백인걸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지금 조정에서 신구新舊가 불화한 것은, 대신은 안정에만 힘쓰는 데에 그 폐단이 있고, 사림은 무엇을 하려고만 힘쓰므로 과격한 데에 그 폐단이 있으니, 마땅히 조정하여 중도를 얻어야 할 것이다. 내가 전하를 뵈고 다 아뢰겠다” 하니, 듣던 자가 백인걸은 말이 번다하여 본의를 잃어 도리어 임금으로 하여금 조정에 봉당이 있는가 하는 의심을 일으킬까 두려워하여 힘껏 말렸다. 『석담일기』

○그때에 사류들이 비록 요직을 차지하였지만 많은 대신이 속된 부류여서 대소 관료 사이에 의논의 간격이 생겨 조정에 맑고 화평한 기상이 적

으므로 불만스러운 처지에 있는 소인들이 자못 그 틈을 노렸다. 그러다가 오겸吳謙, 박충원朴忠元이 잇달아 탄핵당하자 용렬한 자들이 모두 불평을 가지게 되었다. 백인걸이 본래부터 이준경의 인격에 심복하여 매양 사류들이 준경에게 붙지 않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겨서 때로는 말을 하여 드러내고, 또 기대승과 심의겸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들의 과실을 들추어 사류들이 자못 의심하였다. 이준경의 재종제再從弟 이원경李元慶이 관직을 잃고 분해하며 조정에 무슨 일이 나기를 바라고, 임금의 외숙 정창서鄭昌瑞도 권세를 한 번 잡으려고 하여, 서로 몰래 박순, 이후백, 오건 등 10여 명을 공격하여 쫓으려고 꾀하였다. 이원경은 백인걸과 이준경을 빙자해서 세력을 삼으려고 매양 이준경의 말이라 칭탁하고 박순등의 과실을 들추어내서 백인걸을 움직이려 하였는데, 이원경이 하루는 백인걸에게 말하기를, “임금께서 박순과 이후백을 매우 싫어하시니, 쫓으려면 쉬울 것이오” 하여, 백인걸이 민기문閔起文에게 물었다. 민기문이 노수신에게 가보니 이원경도 역시 자리에 있었다. 기문 이수신에게, “백인걸이 망녕된 짓을 하려고 하니 공이 말리셔야 할 것입니다” 하니, 이원경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사생을 결단하고 거사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말로 중지할 것 같소” 하였다. 민기문이 일어나 나가니 이원경이 노수신에게 말하기를, “숙도叔度(기문의 자)는 믿을 사람이 못되오. 오늘 나하고 같이 백공의 말을 듣고 공에게 와서는 말리라고 말합니다” 하였다. 얼마 후에 백인걸이 노수신에게 말하기를, “사림 중 연소한 자들이 기가 자못 성하니 눌러야겠소” 하므로 노수신이 말렸다.

이에李睿란 자가 원경이 정창서에게 쓴 편지를 얻어 심인겸沈仁謙(의겸의 형)에게 보였는데, 그 편지의 대략에, “먼저 영중추領中樞(준경濬慶)를 보고, 다음에 사위士偉(인걸의 자)를 만나니, 이 일이 금명간에 일어날 것이라 대궐에 내통하는 것을 빨리 도모하지 않을 수 없소” 하였으므로, 여론이 떠들고 일어나 모두 “백인걸이 사람을 해치려 하는데 이준경이 이것을 주장한다”고 말하였다. 이택李鐸이 이 말을 듣고 박수朴受를 시켜서 백인걸에게 그 까닭을 묻고 그것을 말리라고 하여, 박수가 백인걸을 보고 여론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백인걸이 놀라며, “내가 어찌 사람을 해치겠소. 다만 방숙方叔(심의겸의 자)이 좋지 않다는 것뿐이오” 하니, 박수가, “남곤의 신무문 열던 일을 공이 어찌 본받으려 하오” 하니, 인걸이 더욱 놀라면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까지 의심한단 말이오” 하였다. 권철이 역시 백인걸을 말리니 백인걸이 권철과 박순을 차례로 찾아가서 변명하고 신미년 7월에 벼슬을 사면하고 과주로 돌아가니, 혹자는 말하기를, “백인걸이 애매한 비난을 받았다” 고 하였다. 백인걸이 은퇴한 뒤에 사람들이 이원경을 미워하여 죄 주고자 하였으나, 또 조정이 불안할까 염려하여 모두 말하기를, “대신이 경연에서 그 연유를 자세히 아뢰고, 인하여 이원경을 쫓는 것이 의당하다” 하므로, 박수가 권철에게 고하니 권철이 “이준경에게 연루될까 염려된다” 하고, 끝내 아뢰지 않았다. 『석담유사』

○병자년 7월에 의주목사 곽월郭越이 소를 올려 시국의 폐단을 진술하였는데, 소 가운데 이준경의 그릇 것을 논하고, 또 백인걸이 사람에게 화를 주려 하였으나 음모를 감출 수 없어서 부끄러워 자퇴하였다고 논하니,

임금이 삼정승을 불러 이르기를, “이준경은 국가의 주석(柱石)이 되는 원로였는데 꺾일이 감히 추후로 험뜯고, 백인걸은 순수한 충정이 해를 깨뚫었는데 사림에게 화(禍) 주기를 꾀했다고 지적하니, 그 정상이 망측한지라 잡아다가 국문할까 하오” 하니, 영상 홍섬이 아뢰기를, “그런 근거 없는 말을 감히 아뢰니 망녕되고 경솔하다 하겠으나 국문할 것은 없습니다. 관용을 베푸시어 언로를 넓게 열어주소서” 하였다. 『석담유사』

『연려실기술』 제13권, 「선조조 고사본말」, 동서 당론이 나누어지다

○5월에 지중추부사 백인걸이 상소하여 당시의 폐단을 진술하면서 동인·서인이 분당(分黨)을 한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고르게 진정시키도록 청하자 상이 칭찬하여 답하였는데, 사류는 그 상소가 동인을 편들고 서인을 억제하지 않았음을 보고 노하였다. 이에 삼사와 승정원이 모두 상소하여 그 말의 잘못을 논하고 백인걸이 늙어서 노망하여 정신이 착란된 것이라고 지목하였다. 『석담일기』

○기묘년(1579) 7월 초에 백인걸이 상소하여 시사를 논하고, 아울러 동인과 서인을 화합시키는 계책을 드리려고 하였으나, 글이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이이에게 보내어 파주에 있었다. 수정하고 다듬어주도록 하니, 이이가 그 말에 따라 대략 몇 줄의 문자를 만들어 보내었다. 인걸은 성질이 소탈하여 사람을 향하여 숨기지 아니하였으므로 허

엽許曄과 이문형李文馨이 이 말을 인걸에게서 들었다. 이에 사류가 떠들
 씩하니 전하면서 그가 동인을 나무란 데에 노하였다. 정언正言 송응형宋
 應澗이 방정맞고 성미가 급하여 속마음이 흉하여 몰래 이이가 사류에게
 미움받는 것을 틈타서, 먼저 말을 내어 이이를 탄핵하여 동인과 굳게 결
 탁하고자 이내 동료들에게 의논하였지만, 대사간 권덕여權德興 등은 따
 르지 않았다. 그러자 응형이 피협하면서 말하기를, “이이는 경연의 옛 신
 하로 젊어서부터 유학자라는 명망을 가졌음에도 감히 자취를 감추고 은
 연히 남을 대신하여 상소를 지었으므로, 신이 그 잘못을 논하여 신하로
 서 속이고 숨기는 정직하지 못한 과실을 바로잡으려 하다가 동료들에
 게 저지되었습니다. …” 하였다. 권덕여 역시 동료들을 데리고 피협하고,
 대사헌 이식李栻 등 역시 함부로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일에 묵묵
 히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유로 피협하니, 홍문관이 처치하게 되었다. 교
 리 김우옹金宇顥이 말하기를, “송응형은 분명히 소인으로서, 이 기회를 타
 서 군자를 모함하려는 것이니, 탄핵하여 사헌부와 응형을 체직하고 대사
 간 이하만을 남겨두어야 옳다” 하였으나 동료들이 따르지 않았다. 우옹
 이 말하기를, “잘못 처치하면 우리들 또한 소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
 이니, 어찌 송응형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소인의 지경에 빠져서야 되겠
 는가” 하였다. 부제학 이산해와 응교應敎 이발은, 양쪽 사이에서 우물쭈
 물해서 마침내 둘 다 온전히 하려는 생각을 하고는, 차자를 올려 모두 출
 사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마침내 이문형을 불러 물으니 문형이 아뢰
 기를, “신이 우연히 인걸에게 물었더니, 인걸이, ‘이이가 보냈다’ 하였고,

이 밖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사헌부가 출사한 뒤에 응형을 내보내고 덕여를 체직하였으며 장차 이이를 탄핵하려 하자, 의논이 매우 떠들썩하였는데 지평 기대정奇大鼎이 더욱 팔을 휘두르며 크게 욕설을 하였다.

○인결이 그것을 듣고 이내 상소하여 아뢰기를, “이이가 과연 신의 상소를 수정하였습니다. 삼가 들으니, 송나라 정이는 팽사영彭思永을 대신하여 복왕濮王의 전례典禮에 관한 상소를 지었고, 부필을 대신하여 영소릉永昭陵을 논하는 상소를 지었으며, 여공저묘公著를 대신하여 임금의 부름에 응하는 상소를 지었으니, 이런 일들은 예전 선비들도 일찍이 한 일이라고 하였으므로, 신은 이이의 글을 사용하고서도 혐의를 삼지 않고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전하는 자들이 모두 이이가 신을 꺾어서 상소하였다고 하는데, 신이 비록 못났긴 하나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신의 본의가 아닌 것으로 이런 상소를 올렸겠습니까. 신이 늙어 죽을 때가 되었는데 감히 거짓을 꾸며서 전하를 기망欺罔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옥당이 마침내 상처하여 아뢰기를, “송응형이 경솔하게 들은 말을 믿고서 조정이 편안치 못할 우환을 아뢰려 하였고, 이식 등은 처치가 정당치 못하여 크게 화평하게 하는 의사가 아니었으니, 모두 체직하소서” 하였다. 새로 임명된 대사헌 이산해 등이 역시 이이를 헐뜯기 그지없었고, 집의執義 홍흔洪渾은 더욱 분개하여, “어찌 응형을 체직시켜 언로言路를 막아서야 되겠는가” 하면서 상소를 올려 다투려고까지 하였는데, 유성

룡·이발이 힘써 말려 중지시켰다.

김우옹이 듣고서 말하기를, “만일 사헌부의 상소가 올라갔다면 나도 역시 상소하여 그들이 어진 이를 해치는 죄를 배척하고 나도 물러갈 것이다” 하였다. 우의정 노수신은, “사헌부가 과연 이이를 공격하였다면, 우리들도 마땅히 그들의 잘못을 아뢰는 것이다” 하였다. 수신이 동몽훈도童蒙訓導 박형朴炯에게 말하기를, “송응형이 이이를 공격하였다는데 바깥 의논이 어떤가?” 하니, 박형이 말하기를, “현재 의론이 비록 이공(이이)을 헐뜯고는 있지만 이공은 훼방할 수 없습니다. 어린 학도로서 내 문하에서 배우는 이들이 3, 4백 명인데 내가 그들의 의사를 시험삼아 묻기를, ‘이공이 어떤 사람이나?’ 하니, 이이가 군자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뒷날의 사람입니다” 하였다.

관련 유적



용주서원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호
- 지정일 : 1983년 9월 19일
- 시대 : 선조 31년(1598)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98
- 소유자 : 파주 유림
- 규모 : 정면 7.5m, 측면 5.2m 목조

월롱산 기슭에 위치한 용주서원龍洲書院은 조선 선조 때 유학자이며 청백리에 녹선된 휴암 백인걸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자 건립된 서원이다. 1598년(선조 31) 백인걸 선생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학문과 후진 양성에 전념했던 옛 집터에 지방 유림들이 서원을 세우고 사당을 지어 위

패를 모셨다.

그 후 유생 정재심鄭在心이 사액을 청했으나 실패하고 철폐되었으며 그 자리에 유허비遺墟碑만 남아 있다가 1924년 유생들이 다시 뜻을 모아 서원을 복원하고 백인걸 선생 외에 그의 문인이었던 장포長浦 김행金行, 옥천玉川 조감趙堪, 낙금당樂琴堂 신제현愼齊賢, 당산堂山 백유함白惟咸 선생 등 5인의 위패를 모시고 배향하고 있다.

경내에는 1997년 개축한 5칸 규모의 정륜당과 사우, 내·외삼문, 홍살문 등이 있으며 사우는 흠처마에 맞배지붕 건물로 정면 7.5m, 측면 5.2m의 6칸 규모이다.

그 좌측에는 1862(철종 13)년에 화강석으로 세운 '백휴암선생 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매년 음력 9월 9일에 파주 유림에서 제향을 받들고 있다.

묘소

- 지정번호 : 경기도기념물 제58호
- 지 정 일 : 1981년 7월 16일
- 시 대 : 선조 12년(1579)
-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산26

조선 중기의 유학자이자 청백리의 한 사람이던 휴암 백인걸 선생의 묘소

이다. 조광조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으며, 중종 3년(1537) 문과에 급제한 뒤 대사간, 대사헌 등 여러 관직을 거쳤다. 선조 즉위년(1567)에 양주목사로 있으면서 고을을 잘 다스려 주민들이 기념비를 세워주었다. 선조 12년(1579)에 조정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당파를 짓는 폐단에 대해 논하고 군비강화를 강조하였다. 묘를 정면으로 하여 왼쪽 편으로는 묘비가 서 있으며, 묘 앞에는 단을 쌓았는데 좌우로 동자상·망주석·문인석이 각 1쌍씩 놓여 있다. 묘소 아래에는 신도비가 있는데 송시열이 글을 짓고 송준길이 글씨를 쓴 것이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명종실록明宗實錄』

『선조수정실록宣祖修訂實錄』

『선조실록宣祖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인종실록仁宗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중종실록中宗實錄』

『계곡만필谿谷漫筆』

『국역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국조방목國朝榜目』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기묘록보유기卯錄補遺』

『가옹만필畸翁漫筆』

『기재잡기寄齋雜記』

『남계집南溪集』

- 『노서집魯西集』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
『모재집慕齋集』
『부계기문涪溪記聞』
『상촌선생집象村先生集』
『석담유사石潭遺嗣』
『석담일기石潭日記』
『송자대전宋子大全』
『수몽집守夢集』
『야언별집野言別集』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우계연보牛溪年譜』
『우계집牛溪集』
『우암집尤庵集』
『월정만필月汀漫筆』
『율곡별집栗谷別集』
『을사전문록乙巳傳聞錄』
『이락정집二樂亭集』
『잠곡유고潛谷遺稿』
『중봉어록重峯語錄』
『중봉집重峯集』

『청음집淸陰集』

『충재집沖齋集』

『퇴계집退溪集』

『파산세고坡山世稿』

『해동잡기海東雜記』

『해동잡록海東雜錄』

『홍재전서弘齋全書』

『성우계사상연구논총』(우계문화재단, 1988)

『용주서원지』(용주서원, 2008)

『우계학보』(우계문화재단)

『파산서원지』(파산서원, 1994)

『파주군지』(파주군 · 파주문화원, 1994)

『파주시지』(파주군 · 파주문화원, 2009)

『파주의 인물』(파주문화원, 2005)

『휴암 백인걸의 생애와 사상』(휴암선생기념사업회 · 휴암선생연구논총기념사업회, 1997)

우계 성흔과 坡山의 학자들

발행일 2013년 2월

발행인 우관제

발행처 파주문화원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운정행복센터 2층)

전화 031-941-2425

발간기획 서교승

원고편찬 이윤희

책임편집 강승훈

디자인 김효창

편집제작 (주)역사만들기

©파주문화원, 2013

이 책은 파주시의 일부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파주문화원에서 펴낸 책들

파주금석문대관
501쪽, 2000년 12월

역사속의 임진강
176쪽, 2002년 11월

파주금석문대관 II
354쪽, 2003년 12월

파주 역사문화 기행
312쪽, 2003년 12월

파주의 향교와 서원
211쪽, 2004년 12월

우리고장 파주
202쪽, 2005년 12월

파주의 인물
452쪽, 2005년 12월

파주 문화유산 가이드북
245쪽, 2005년 12월

파주의 역사와 문화
348쪽, 2005년 12월

큰 스승 율곡 이이의 삶과 사상
287쪽, 2007년 2월

파주문화재대관
262쪽, 2007년 2월

이야기로 만나는 파주 인물 설화
258쪽, 2008년 2월

명재상 방촌 황희의 삶과 사상
235쪽, 2008년 2월

이야기로 만나는 율곡 이이
151쪽, 2008년 4월

해동명장 대원수 윤관
203쪽, 2008년 11월

우계 성혼과 파산의 학자들
300쪽, 2013년 3월

